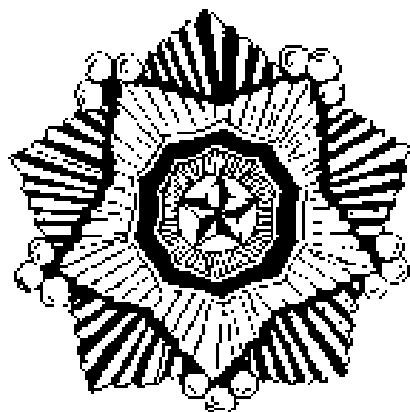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12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12호

(루계 제698호)

차 례

위대한 령도자와 운명을 같이한 빛나는 로정.....	3
우리의 영원한 주석	5
술재령의 들꽃중대	5
오, 12월 24일	6
금강의 샘물	6
소덕수의 물방아	7
먼 후날 이야기하리	8
오늘도 그날의 죽가마 끓어라.....	9
12월의 진달래	9
건국의 첫 기슭에서	10
조선로동당 만세!.....	21
깊이 새겨주신 민족적자존심	29
어머니 우리 당	30
영원히 발동소리 울린다	32

총대우에 날리는 당기	34
명령하라	45
내 고향의 버드나무숲	53
이해를 보내는 노래	54
장엄하고 격동적인 시대와 함께 전진해온 한해	56
흰눈의 축복	61
유모아	61
들에 물어보라	62
막장길 걸으며	62
외무성은 성명한다	63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였는가	64
물과 기름	65
영웅은 모교에 서있다	66
한해의 시작도 끝도	68
류사한 주제령역에서의 개성적인 성격형상	69
청춘의 막장	72
비상정황속에서	73
피테와 베토벤	78
유모아	79
경구, 격언	79
조선사람의 성과 본	80

위대한 령도자와 운명을 같이한 빛나는 로정

-불멸의 회답서한 15돛을 맞으며-

김순림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불멸의 회답서한을 보내주신 때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유구한 민족문학사에서 15년이란 그리 긴 기간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나 이 짧은 역사적기간에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참으로 보람찬 삶의 길을 걸어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두터운 정치적인 임에 의하여 우리 작가들의 사회적지위는 매우 높아졌다. 우리 당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언제나 그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내세우고 우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는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라는 가장 고귀한 칭호로 우리 작가들을 불러주시면서 작가들에게 이 세상, 그 어느 시대, 그 어디에서도 누릴수 없는 최대의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시고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작가들을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우리 나라에서 작가들의 활동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에서 작가의 활동은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어있다는것을 통찰하시고 작가들로 하여금 그 어느 역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높은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회답서한에는 우리 작가들에 대한 최대의 신임과 사랑, 크나큰 기대가 어려있는 믿음의 철학이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을 령도하시던 첫 시기부터 작가들을 《당의 작가》라는 가장 값높고 믿음에 찬 칭호로 불러주시고 우리 작가들을 주체문학창조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터운 신임과 사랑은 선군문학창조의 길에서 더욱 숭고하고 자애롭고 뜨겁게 미치였다.

우리 혁명이 류레없이 간고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은 그 깊이와 높이를 헤아릴수 없이 심원하고 자애로운것이였다. 《고난의 행군》의 간고한 시련이 겹쳐들고있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창작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 심어주시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 락관주의정신은 우리 작가들을 준엄한 시련을 뚫고 사회주의붉은기를 수호하는 명작창작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이였고 창작적양양의 무진장한 활력소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세심한 지도와 구체적인 가르치심에 의하여 우리 작가들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혁명의 붉은기를 지키는데 이바지하는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특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쇄소리나는 작품들을 팡팡 써냄으로써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선군시대의 작가로서의 시대적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15년간 우리 혁명은 충격적인 사변들과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겪었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는 최대의 국상을 당했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횡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며 그야말로 불굴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우리 혁명을 지켜내야 했다.

우리 작가들은 이 격동적인 시대와 뜨겁게 호흡하면서 추호의 동요와 변심이 없이 위대한 장군님

을 따라 선군혁명문학창조의 길에 펼쳐나섰다.

인류문예사에 전혀 새로운 수령영생문학이 탄생하여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 동지》가 세계적인 걸작으로 창작되었고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와 90년대의 《적기가》인 《높이들자 붉은기》가 높이 올려퍼졌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랑만이 맥박치는 수많은 소설, 시, 아동문학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평론, 고전문학, 외국문학부분과 작가후비육성에서도 전례없는 혁신적양양을 일으켰다.

우리 문학발전에서 이룩된 이 놀라운 전변과 혁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을 높이 내세워주시고 신심과 활력을 안겨주신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령도의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그 긴장한 나날에도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우리 작가들이 쓴 작품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시대의 명작으로 완성시켜주시였으며 나라가 것처럼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도 작가들의 창작생활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주시는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우리 작가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 신임과 기대는 우리 당의 붓대철학에 의하여 더욱 깊고 숭고하게 배풀어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문필가들은 대중을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는 시대의 선각자들이며 대중속에서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과 위훈으로 불리일으키는 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는 최대의 신임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고 낫을 치차라고 한다면 지식인들, 문필가들을 상징하는 붓대는 윤활유와 같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윤활유가 없으면 치차가 마모되는것처럼 문필가가 없으면 혁명과 건설이 생기를 잃게 된다. 붓대가 있어야 혁명이 언제나 생기와 활력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도 붓대가 있기때문에 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필가들이 있어 혁명이 생기와 랑만에 넘쳐 힘차게 전진한다는 우리 당의 붓대철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우리 작가들의 지위와 역할을 가장 높이 내세워주신 또 하나의 경이적인 력사적사변이다.

불멸의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15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작가들은 나의 정치의 대변자이며 선군혁명동지라는 가장 고귀한 칭호를 받아안고 붓대철학의

위대한 진리를 심장에 새기게 된것은 더없는 영예이고 긍지이고 자랑이며 최대의 행운이다.

우리 작가들은 이 영예와 행복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순결한 랑심과 의리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것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는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되며 참다운 선군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좋은 글은 작가의 가슴속에 우리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신념과 의리가 깊이 간직되었을 때 나올수 있다.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글재간은 있어도 당의 의도에 맞는 훌륭한 글을 써낼수 없다.

작가들은 시대의 선각자, 당정책의 대변자인것만큼 정세발전의 추이와 당의 사상과 의도에 민감하여야 한다. 오늘의 정세가 우리 작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당이 의도하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작품에 반영하여야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할수 있고 혁명이 바라는 좋은 작품을 써낼수 있다.

작가들이 당적작가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실력이 높아야 한다. 창작적재능과 실력은 작가의 생명과 같다. 아직도 지식의 빈곤, 상식의 빈곤, 문화정서의 빈곤으로 하여 철학적깊이가 있는 작품들이 창작되지 못하고 형상이 낮은 작품들이 나오고있는것은 작가들의 자질이 낮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적재능과 실력을 련마하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학습하고 또 학습하면서 풍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의 자랑찬 선군현실을 뜨겁게 체험하여야 한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을 생활적으로 느낄수 있으며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세계관도 생동한 현실로 굳게 확립할수 있다.

창작적재능과 현실체험의 련마와 강화는 선군문학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비결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회답서한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15년이 되는 이 력사적시기에 우리 작가들의 자각과 각오는 비할바없이 높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의 대변자이며 선군혁명동지라는 최대의 영예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문학으로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길에서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주석

문동식

따사론 해빛속에 길을 걷다가도
그리움에 사무쳐 간절하게 불러본다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인민의 아버지 **김일성** 동지

그이는 행성우에 사람이 생겨나
처음으로 인간의 철리를 밝혀주신분
주체의 화불로 암흑을 태우시고
인류에게 자주의 새 세계를 열어주시었다

그이께선 한생에
못가보신 길이 없고 못해보신 일이 없다
쌓이고 덧쌓인 그이의 로고우에
인민이 주인된 락원이 솟아났다

그이께서 못해보신 전투가 없고
그이께서 승리못한 전쟁이 없다
그이께서 하지못한 혁명이 없고
그이께서 실현못한 건설이 없다

소박한 인민과 다름없는 한생에
세월의 한끝까지 다 밝아보시며
천만년 먼 후손들 미래까지
한품에 안으시고 가꾸시던 그이

그이는 만민에게 안겨주시고픈
그 모든 인덕과 사랑을
자자구구 법전에 고스란히 담으시어
조선을 사회주의 성공탑으로 빛내여주셨거니

위대한 사상으로
탁월한 령도로
불멸의 업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며 환호하는
인류의 영재 **김일성** 동지

그이는 맑고푸른 우리의 저 하늘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대지
무궁한 해와 달도 운명을 다 맡긴
희세의 위인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 다함없는 행복이여 환희여

만민의 귀인이신 우리 수령님
그이는 백두의 선군태양 장군님 계시여
인민의 심장속에 길이 영생하시며
오늘도 지구를 진로예로 이끄신다

수령님 모습으로 인덕을 베푸시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따를수록
탁월한 국가주석 수령님의 해빛에
인민의 만복은 더 활짝 꽃피거니

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속에 차넘치는 순결한 한마음
절세의 위대한 천출위인 두분을
결사옹위하는 성스러운 한길에
내 한생 몸과 마음 다 바쳐가리라

가사

술재령의 들꽃중대

박웅전

구름도 쉬여넘는 산마루 초소에서
내 조국 푸른 하늘 지키는 녀병사들
꽃을 가렸네 산나리 도라지꽃
자애로운 수령님 그리는 마음담아
아 술재령의 들꽃중대
그 향기 맑은 하늘 퍼지여갔네

저 멀리 노을비낀 평양하늘 우러러
아버이수령님 못내 그리울 때면

꽃을 보냈네 령길의 길손들에게
만수대언덕에 오르는 마음담아
아 술재령의 들꽃중대
장군님은 만수대로 불러주셨네

4월의 봄빛 안고 우리 장군님
술재령 초소를 찾아오신 날
꽃을 드렸네 소원의 꽃다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담아서

아 술재령의 들꽃중대

장군님 결사옹위 성새가 됐네

오, 12월 24일

주광일

나의 벅찬 삶속에서
우리모두의 날과 날속에서
숨쉬며 퍼덕이며 굽이치는
위대한 날이 있다

이날은
나의 붓대우에
마치와 낫우에
백두산 총대가 굳건히 솟아있음을
누리에 선언한 날

12월 24일
이날은 우리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날이다
이날은 삼천리를 안은 정일봉이
선군의 봄우뢰를 더 크게 터친 날이다

이날이 우리에게 있어
불구름 밀려오던 나날에도
내 사는 집 창가에 봄빛이 눈부시고
고난의 눈보라속에서도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삶의 희열이 가득차 흘렀거니

새별눈 반짝이는

가사

내 아들의 고운 얼굴에도
이날이 준 미래가 숨쉬고있고
머리들어 바라보는
내 나라의 푸른 하늘도
이날이 있어 더더욱 푸르기만 하더라

진정 이날이 있어
내 조국의 존엄이 빛나고
내 나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의 길을 가거니

이날은
명절로 맞고 보내는 하루만이 아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높뛰며 흐르는 우리의 한생이다
내 조국의 빛나는 천만년 미래다

오, 12월 24일
이날은
어제와 오늘
조국과 혁명을 떠밀고
창창한 미래에도 도도히 굽이치며
김정일 동지의 존함으로 빛난다
태양의 빛발로 세기를 이끈다

금강의 샘물

고영수

단풍이 붉게 어려 더욱 유정한
어머님 찾아주신 금강의 샘물
해방의 기쁨담아 축원을 담아
그 샘물 수령님께 정히 드렸네
아 금로수 금강의 샘물
어머님의 그 마음 비껴담았네

항일전에 쌓인 피로 예서 푸시라
수령님께 바치신 뜨거운 정성
그날의 그 모습이 더욱 그리워

오늘도 뜨겁게 속삭여주네
아 금로수 금강의 샘물
어머님의 그 소원 새겨안았네

수령님의 안녕을 띠스로 여긴
어머님 높이신 뜻 어린 금로수
천위전사 그 충정 대하로 흘러
인민의 마음속에 굽이친다네
아 금로수 금강의 샘물
혁명의 젖줄기로 영원하리라

소덕수의 물방아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천과 쌀, 신발, 소금, 성냥...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산으로 보내주었다.

특히 많은 식량을 보내주기 위해 애썼다. 마을마다에서는 밤마다 왜놈들의 눈을 피해 쌀을 찧는 물방아소리가 그칠새 없었다고 한다. 그 물방아소리를 두고 수많은 전설들이 생겨났다.

이 이야기는 소덕수마을의 물방아를 두고 생겨나 전설로 전해오는 한토막의 이야기이다.

해방전 수십호의 인가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크지 않은 소덕수마을에는 사시장철 마르지 않는 골개물을 리용한 물방아가 있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호기있게 쿵쿵거리는 방아소리가 깊은 산골의 정적을 깨치며 멈출 줄 몰랐다.

한알의 쌀이라도 유격대에 더 보내자고 그 인근의 마을은 물론이고 멀리에서까지 쌀섬들을 지고 이고 찾아들곤 했다.

유격대의 원호미를 찧고 또 찧는 방아소리를 들어야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잘 온다고 말들을 하며 이 물방아를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었다.

왜놈들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다. 그렇잖아도 산으로 빠지는 쌀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전전궁궁하던차에 소덕수마을의 물방아로 낮이고 밤이고 술한 쌀을 찧어낸다니 그것은 분명 유격대의 원호미일것이라고 패재를 불렀다.

왜놈들은 소덕수의 물방아를 목표로 총출동하였다.

가을날의 이른 아침이었다.

물방아소리는 그전과 다름없이 쿵쿵 아침대기를 깨쳤고 마을의 집집마다에 부지런한 너인들이 불을 지피느라 굴뚝마다에서 연기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있었다.

왜놈들은 은밀히 물방아를 포위하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물방아주변에는 사람그림자 하나 찾아볼수 없었다. 물방아소리는 여전히 쿵쿵거리고...

밤낮으로 쌀을 찧는다면 사람들이 왜 보이지 않는가.

왜놈대장놈은 그 어떤 놀림가마리속에 든것만 같아 피대줄을 세웠다. 그 분풀이를 해대지 않고서는 성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그놈은 줄개들을 시켜 마을사람들을 끌어내리고 호통을 쳤다.

집집마다에서 어른 아이 할것없이 끌려나왔다.

왜놈대장놈은 사람들속에서 그중 나이가 많은 로인에게 울려했다.

《오늘 아침 령감은 뭇이나 먹었는가?》

《아직 식전이지요.》

그놈의 상통이 소태를 씹은듯 했다.

《뭇이나 먹게 되는가 말이다.》

《풀죽이나 먹지요.》

《쌀이나 많이 찧어서 어디에 가져갔는가?》

《쌀이 어디 있어야지요.》

그놈은 또 한 너인에게 눈을 부라리며 물었다.

《쌀이나 많이 찧었지?》

《쌀구경 한지 까마득한데요...》

가까스로 자신을 다잡듯 살가운 웃음이 그놈의 얼굴에 나타났다.

왜놈대장놈은 이번에는 옆구리에 차고있던 일본군도로 예닐곱살 되여보이는 더벅머리 총각애의 턱을 들어올렸다.

《너는 알지? 너의 엄마가 밤마다 쌀을 찧었지?》

더벅머리 총각애는 금시 왕- 하고 울음을 터뜨릴듯 겹을 먹고 비실비실 물러나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단 말이지. 누구도 쌀을 안찧었다... 쌀을 먹지 않는다...

왜놈대장놈의 음흉스러운 상통에 보기에다 오싹해질 살기어린 웃음이 찰랑거리는것이였다. 그놈의 눈길은 쿵쿵거리는 방아공이를 따라 오르내렸다.

마침내 그놈은 줄개들에게 명령했다.

《저 물방아를 흔적조차 없애버려!》

왜놈들은 간악한 심보그대로 물방아를 찍어넘기고 꺾어버리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불을 달아 재가루만 남게 하였다. 그리고는 제놈들의 상부에 유격대원호미를 보장하는 근원을 깨끗이 없애버렸다고 보고를 했다.

그런데 며칠후 왜놈들의 상부에서 오히려 독설이 섞인 추궁이 떨어졌다.

《빠가야로(머저리같은 자식) 근원을 없앴다? 물방아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저건 무슨 소리인가?》

정말로 쿵쿵 물방아소리가 들리는것이였다.

전에 없던 그 소리에 몸이 오싹오싹해나고 눈앞이 어질어질해나는듯싶었다.

《당장 출동하라. 물방아간을 향하여 돌격!》

왜놈대장놈은 고래고래 소래길 지르며 즐거들을 내몰았다.

그런데 웬일인가. 소덕수마울로 가는 곳곳의 마을들에서 더 크고 소리도 힘찬 물방아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쪽마을에서도 쿵쿵... 저쪽마을에서도 쿵쿵... 그 소리가 합쳐져 그리도 크게 쿵쿵거리는 소리로 메아리되어 울리고있음을 알수 있었다.

소덕수마울에 들이닥친 왜놈들은 깜짝 놀라 서로 마주보며 눈알을 떼룩거렸다.

종전의 물방아보다 더 크고 더 힘찬 소리를 내는 물방아가 그 자리에 있었다. 골개골의 물량도 더 많아지고 물살 또한 세차게 흘러내리고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귀신의 조화로다.

왜놈대장놈은 마을의 좌상로인에게 사연을 물었다. 로인의 대답은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며칠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이끄시고 소덕수마울을 찾으신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물방아가 없어 안타까와하는 마을사람들에게 본시 물방아를 놓지 못하고 살아왔는가고 물으시였다고 한다.

왜놈들이 달려들어 그 물방아를 없애버렸다는 것을 아신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대노하시어 대원들에게 더 크고 힘찬 물방아를 놓아줄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는 것이다. 그이께서는 떠나시면서 이제 이 물방아소리를 듣고 왜놈들이 울터인데 이 물방아를 없애는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라고 이르시였다는 것이다.

왜놈대장놈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만을 듣고 도 벌써부터 제정신이 아니였다. 사지가 떨려나고 아래턱이 눈에 알리게 덜덜거렸다.

그러나 감히 물방아는 다치지 못하고 골개물을 이루게 하는 샘을 없애버리고 황황히 소덕수마울을 떠났다.

그런데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다.

밤도 깊은 밤, 갑자기 어디선가 좌아- 하는 물소리와 함께 왜놈병영을 향해 물사태가 났다. 하늘은 푸르청청 별이 떴는데 때아닌 물사태가 이어인 일인가.

여기서도 물, 저기서도 물... 삽시에 왜놈병영안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었다.

자다가 죽는 놈, 허우적거리다 죽는 놈, 뛰다가 죽는 놈, 별의별 놈이 다 있었다. 이상한것은 그 날밤의 그 물사태가 왜놈병영만을 휩쓸어간 것이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물방아의 샘줄기를 막아버린 왜놈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천지조화를 일으켜 벌을 내리신것이라 했다. 이 소문에 날개가 돋쳐 이쪽저쪽으로 쉬임없이 전해지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백두산의 천지물이 격랑을 일으키며 왜놈병영을 향해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았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압록강의 물이 왜놈들에게 쏟아져내렸다고도 했다 한다.

어쨌든 그 일이 있은 후로 왜놈들은 더는 물방아소리를 없앨 녀를 못하고 그 소리만 듣고도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는 것이다.

가사

먼 후날 이야기하리

김 파

설레이는 언제우의 물결을 바라보니
가슴속엔 못잊을 추억도 많네
발전소 건설장에 청춘을 바쳐가며
더운 땀 우리는 얼마나 흘렸던가
아 먼 후날 이야기하리 후대들에게
강성대국건설의 그 나날들을

천지개벽 넓은 벌과 영웅도로 바라보니
가슴속엔 못잊을 추억도 많네
눈비를 맞으며 허리띠 졸라매며

먼길을 우리는 얼마나 걸었던가
아 먼 후날 이야기하리 후대들에게
강성대국건설의 그 나날들을

장군님 높이신 뜻 이 땅우에 꽃피워온
가슴속엔 못잊을 추억도 많네
영원히 식지 않을 청춘의 심장을
변함없이 바쳐갈 맹세로 불타네
아 먼 후날 이야기하리 후대들에게
강성대국건설의 그 나날들을

오늘도 그날의 죽가마 끓어라

최남순

내 이젠 가정의 주부가 되어
아침마다 한식술의 밥을 짓는 까닭이런가
창밖에 눈내리는 12월의 이 아침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생각을 하면
내 맘에선 자꾸만 그날의 죽가마 끓어넘쳐라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한 돌 작은 식구도 아닌
온 대오를 한식술처럼 품어안고
끼니마다 정성을 끓이시던 우리 어머님

잊지 못할 그날엔
끓는 죽가마 통채로 이시고
총탄이 비발치는 전장속을 현현히 달리셨으니
그 이야기 전설아닌 전설로 잊지를 못해...

불을 떠난 가마밑에
동지애로 불라는 자신의 심장을 고이시고
오늘도 세차게 끓는 가마를 이고계시는듯
아, 우리 어머님

어머님 끓이신 그 죽가마에
어찌 빨찌산대원들의 가슴만 덥혔다 하라

세대를 넘어 태어나는 온 나라 인민이
그 후더운 동지애의 죽을 마시며 자랐고
우리 시대 동지애의 영웅들이
그 죽가마로 달아오른 심장을 덥히었거니

그 죽가마
아침이면 아침마다
밥짓는 우리 집 가마목에서도 끓어라
혁명의 길 함께 가는 정든 동지를 위해
어머님처럼 내 모든것 다 바치고픈 마음

어려워도 힘겨워도
내 바치는 사랑으로
동지의 심장 한생 식지 않을수만 있다면
하여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다면
나는 정녕 어머님을 닮은
이 나라의 행복한 녀인 아니던가

아, 내 한생 마음속에
어머님 심어주신 동지애의 높은 뜻 안고살려니
창밖에선 눈내리는 12월의 이 아침
밥짓는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속으로
오늘도 어머님은 끓는 죽가마 이고 오시여라

12월의 진달래

리덕진

어머님의 동상을 찾아
오산덕에 오르니
금시라도 향기풍길듯 한
어머님 안으시고 피우신
진달래 진달래

함박눈 고요히 내리는 이 12월에
오산덕에 피어난 봄의 꽃이여
김정숙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아마 봄이신게지
겨울에도 진달래 활짝 폈으니...

안으시여 피운 꽃은
216송이 진달래
송이송이 더듬어보는 마음
뜨거움에 젖어라

세상에 만가지 꽃이 핀다면
이보다 향기로우랴
빨찌산녀장군의 그 넋이 어려
그리도 아름다운 진달래, 진달래

한계절에 피는것이 꽃이라지만
한번 피여 언제나 지지 않는
오산덕의 진달래
어머님의 한생을 이야기하듯
눈속에서 웃고있는 아름다운 꽃이여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 서계시는
어머님 우리 어머님은 오늘도
우리러 찾아오는 가슴마다에
12월의 꽃향기 안겨주시려
언제나 변함없는 한모습으로
오산덕언덕에 서계시네

오, 오산덕에 피어난 12월의 진달래
그것은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이신
어머님의 마음이여서
장군님 따르는 우리 마음속에
활짝 피었네
붉게 피었네



조창근

1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졌다. 보통강이 에도는 봉화산의 송림위로 아득히 비낀 하늘에서 피약별이 련일 쏟아져내렸다. 계절도 해방의 열기로 더욱 왕성해지고 주말음치는듯싶다. 하긴 보리이삭이 여문다는 소만도 지나 빼꾸기소리 산천에 유정하다.

보통강개수공사장에 나오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점심철참에 허란주를 데리고 봉화산에 오르시었다. 보자기의 네귀를 움아매여 만든 주머니에 부지런히 쪽잎을 따넣으시었다. 푸르다못해 거뭇거뭇해지는 숲속과 골짜기, 오솔길옆에 쪽이 무덕무덕 무릎을 치게 자랐다. 며칠째 너무 무리하신탓인지 그이께서는 밤이면 부상당한 다리상처가 도저 쪽으로 즙을 떠보실 생각이시었다.

날씬한 몸매에 쌍태머리를 가슴앞에 드리운 허란주는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쪽을 뜯다말고 《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투사선생님, 공사장을 좀 보십시오. 산에서 내려다보니 정말 굉장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리를 펴시었다. 소나무숲사이로 사계가 환히 트인 너럭바위에 란주가 올라서서 연방 감탄하며 흥분하고있었다. 아마 찾고있던 악상이라도 떠오르는 모양이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란주곁에 다가가시며 공사장을 부감하시었다. 과연 장관이었다. 동서로 길이 5키로미터 되는 남교제방이 서평양쪽으로 토성처럼 아득히 뻗어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첫삽을 뜨신 서포천과 형제산강의 합수목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산허리를 뭉청 가르는 물길이 점점 바닷을 드러내고있다. 제방둑과 좌우의 산기슭, 평지의 곳곳에 시내 공장, 기관, 단체들의 기발과 프랑카드, 구호관들이 숲을 이루고 천막이나 판자로 지은 가설건물들이 촘촘히 늘어섰다. 점심시간이지만 공사장은 사람들로 끓고있었다.

원체 평양시민민위원회는 나이 18~55살사이의 남자들로 연 100만명의 동원을 예견한 보통강개수공사동원령을 공시하였었다. 집집에서 남자들

이 우쭐해서 공사장으로 달려나가자 녀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어찌 남자들만 사람인가, 녀녀평등이 된다는데 녀자들은 사람이 아니냐, 처녀들은 물론이요, 녀맹원, 가두녀성들이 다 떨쳐나섰다. 어른들만 사람인가. 서광중학, 삼흥중학, 평양농전, 동명중학, 신학교... 각 중학교학생들이 떼를 지어 밀려들었다. 예술련맹산하 무슨 음악단, 기예단, 악극단들이 격려위문연예대를 못고 달려나왔다. 지어 맹인들까지 집안에서 뛰쳐나와 시를 읊고 돈을 기부하였다. 참으로 해방된 민중의 애국열의는 활화산의 분출에 비길만 한것이였다.

허란주도 학생들을 이끌고 공사장에 나온 삼흥중학의 처녀교원이다. 공사지휘성원의 한사람인 리무영이 그이께 소개해드린데 의하면 란주의 아버지는 련화동에 사는 유명한 허심로의원이라고 한다. 9년전 리무영이 출옥하여 병약한 몸을 치료받은 곳이 《심로의원》이였고 단천 도덕사에서 김정숙동지로부터 임무를 받고 평양과 강서, 남포일대에 나와 지하공작을 할 때도 허의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연고로 허심로의 외동딸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명의였던 허준의 10대손으로 자부하고있는 허심로는 딸에게도 의술을 물려주려 하였다. 그런데 딸은 허준이 아니라 당대시기 녀류시인이였던 허란설현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밤낮으로 감상적인 시정속에 빠져 몸부림치더니 돌연 음악을 한답시고 서울로 달아났다. 《포리톨》 레코드회사 전속작곡가로도 있었다고 한다. 그후 평양에 아주 귀향하여 《서전음악단》인지 《삼천리악극단》인지 하는데서 작곡을 하느라고 했으나 변변한 곡 하나 남기지 못하고 해방을 맞아 중학교 음악선생으로 돌아앉았다고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허란주를 사귀여보니 감정이 쉽게 끓고 경박스러운 성격적약점은 있으나 애국열의가 높고 량만적인 처녀였다. 대번에 그이께 매혹되어 언니처럼 따르는 사이가 되였다. 하먼서도 말못할 그 어떤 슬픔이 겹고 아름다운 눈동자속에 깊숙이 깃들어있었다.

삼흥중학교에 나가셨을 때 그이께서는 학생연예대를 못는것이 어떤가고 한마디 하셨는데 이를

날로 음악반학생들을 끌고 공사장에 나왔다. 그런데 선생이나 학생들이나 질통을 지고나와 의아해하셨더니 란주는 고운 눈섭을 찡그리며 몹시 속상한 표정을 지었다.

《투사선생님, 정작 연예대를 못자고보니 변변한 노래가 없습니다. 계몽기가요나 류행가는 슬프구 느려서 현실에 맞지 않구 그렇다고 씩씩하고 힘찬 새 노래는 없으니 야단입니다.》

《란주선생, 그렇다고 어린 학생들까지 등짐을 지게 해서야 되겠어요? 새 노래도 우리 힘으로 지어봅시다. 난 란주선생이 할수 있을것 같군요.》

《제가 말입니까?》

란주는 놀라와 하면서도 믿어주시는데 감격하여 내심 흥분하고있었다.

《가사만 있으면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좋은 가사만 주십시오.》

《란주선생, 가사도 제힘으로 해보세요.》

《예!!》

《제힘이 제일입니다. 지금 해방을 맞은 우리 인민이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제힘으로 건국을 하고있지 않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허란주가 여간 대견하게 생각되지 않으시였다. 공사장 여기저기서 벌리고있는 격려위문공연에 대해 생각이 많으셨던 그이이시였다. 사상주제가 다 과거의것들이고 웃음과 해학도 진부한것이어서 건국기상이 넘치는 노래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던중이였다. 그이께서는 허란주의 심정이 자신의 심정과 같은것이 기쁘시였다. 아니 그것은 한두사람의 심정이 아니라 해방의 열기, 건국의 기상이 충천하는 현실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품속에 간수하고 다니시던 노래수첩을 란주에게 주시며 우선 이 혁명가요부터 잘 형상하여 내놓자고 하시였다.

얼마후부터 공사장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씩씩하고 우렁찬 혁명가요가 인기를 독점하였다. 민주건국의 양양된 현실과 애가, 비가의 모순속에 부자유를 느끼던 위문연예대들이 허란주를 찾아와 혁명가요를 배워갔다. 삽시에 온 공사장에 혁명가요가 차고넘쳤다.

지금 허란주는 발아래 드넓게 펼쳐진 공사장전경에 황홀감을 금치 못하며 팽배한 애국의 숨결, 거세찬 맥박, 높뛰는 리듬을 악상에 담아보듯 연신 고개를 까딱거리고 손가락으로 장단을 치고있었다. 그 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시다가 그이께서는 다시 산길을 오르시였다.

2

소나무와 참나무숲이 무성한 봉화산정점에 올라서니 사방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를 타고 여러갈래의 오솔길들이 흘러내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봉화산북쪽기슭에 있다는 적

골동마울로 떨어지는 오솔길에 들어서시였다. 쪽보자기를 들고 따라오던 란주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투사선생님, 그쪽에 쪽이 없습니다.》

《란주선생, 정말 쪽뜰으러 온줄로 아는군요. 우리 적골동에 얼른 다녀옵시다.》

사실 그이께서는 쪽뜰으러 산에 오르신것이 아니였다. 아침에 리무영을 만나 공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다가 산너머 적골동이라는 마을에 야장간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시였다.

《무영동지, 이 주변에 야장간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이마가 흰칠하게 벗어지고 귀가 류달리 큰 리무영은 김정숙동지께서 야장간에 관심을 가지는데 놀라면서 그이를 안심시켜드리려 했다.

《정확한 수자는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걱정마십시오. 서평양철도공장, 평양고무공장, 전차수리공장과 같은 큰 공장들에서 레루와 밀차를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했습니다. 레루를 놓고 밀차로 토량을 운반하면 공사속도가 몇배로 빨라지게 될것입니다.》

리무영은 김정숙동지께서 공사장에 나오시게 된것이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되는듯 송구스러워하며 사람들로 뚫는 통수로굴착장을 가리켜드렸다.

《그리구 저 통수로굴착장에 나오는 암반은 폭약을 써서 발파해치우려고 합니다.》

리무영은 해방전에 억눌렀던 애국의 열정을 마음껏 분출하는듯 신심과 투지에 넘쳐 통이 크게 공사를 내밀고있었다. 그는 지금 보통강개수공사 지휘성원이라는 중임을 지고있다. 소학교선생출신으로부터 국내지하공작원을 거쳐 오늘에 이르는 그의 혁명가로서의 성장은 김정숙동지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단천군의 깊은 산중 절간에서 김정숙동지를 처음으로 만나뵈고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을 받아안은 그때로부터 그이는 리무영의 스승이시고 삶의 은인이시였으며 북선정치공작조의 책임자이시였다. 그러기에 리무영은 해방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매사에 심중하고 주도세밀한 지하공작원의 자세로 그이를 모시고있었다. 밤중에 저택주변에서 총소리가 나고 목사의 집이 습격당하며 군중대회장에 수류탄이 날아드는 때, 반동들이 텅빈 국고를 가지고 이 방대한 공사를 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코웃음치며 갖은 꾀방질을 하는 때, 때가 때이니만치 리무영은 그이의 신변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그래 허란주가 눈이 등그래서 물었을 때에도 그저 《빨찌산투사선생님이시란다.》 라고만 소개하여 란주도 그렇게 알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리무영의 그런 처사를 매우 고맙게 여기시였다. 자신의 신분을 깊이 물어볼수록 아무런 간격이나 구속도 없이 사람들과 섞여 일할수 있고 인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무영동지, 매일같이 공사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업도구들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어요. 서있는 사람도 있고 또 도구가 마사져 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맞들이, 질통같은것은 목공을 붙여 전문으로 만들거나 수리할수 있고 삽, 곡괭이, 정과 메같은것은 야장간에서 버려주도록 할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 미쳐…》

리무영은 얼굴을 붉히었다. 큰 사업을 맡은데다 해방열에 들떠 그런데까지 눈이 못미친것이였다.

《야장간들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 주변 공팔과 적팔동, 서채팔같은데는 농촌지대여서 철공소, 야장간들이 다 있습니다. 적팔동에 박풀무라는 대장쟁이령감이 살았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직접 가서 실태를 알아보고싶으시였다.

날씨가 물쿠면서 보리장마가 질것 같은데 그것도 야단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7월장마가 지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했다. 그래 적팔동으로 가시던 길인데 쪽잎이 하도 호함져서 뜸을 떠볼 생각이 드셨던것이였다.

적팔동에 다녀오자는 말쑈에 허란주는 어마지두 놀라면서 얼굴에 그들이 질어갔다.

《적팔동예요?》

《거기에 박풀무라고 부르는 야장간로인이 살고 있다더군요. 그 로인을 잠간 만나보고옵시다.》

《어마-》

허란주는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저… 정말입니다.》

허란주는 별스레 불안해하며 변명비슷이 중얼거렸다. 그이결에서 떨어지기 싫어 자진 따라온 란주였다.

숲속은 고요하였다. 초여름의 뜨겁고 밝은 햇빛이 숲사이로 흘러들어 짙은 록음과 무늬를 짜며 뛰놀고 가까운 어디선가 뻐꾸기가 짹을 부르며 구성지게 울고있었다.

어째서 란주가 적팔동이라는 소리에 놀라서 낮빛을 흐릴가 하고 생각하시며 앞서 걸으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뒤따르던 발자국소리가 떠지는 바람에 뒤를 돌아보시였다. 고개를 푹 숙인 란주가 쪽보자기를 맥없이 흔들며 마지못해 따라오고있었다.

《란주선생…》

그이의 부르심에 란주는 처진 어깨를 흠칫 떨며 걸음을 빨리했다. 그의 갑작스런 감정변화에 무슨 곡절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더 묻지않으시였다. 그런데 얼마 더 못가서 허란주는 아예 한자리에 서버렸다. 범을 만난 사람처럼 공포에 질린 눈을 홑뜨고 앞쪽 어딘가를 쏘아보며 중얼거렸다.

《저기-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어쨌단 말인가. 대낮에 사람을 무서워하다니?! 김정숙동지께서도 이미 그 사람을 보고계시였다. 오솔길옆 가독나무숲에 가리운 바위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이상한 젊은이- 넙적넙적한 가독나무잎사이로 검정학생복을 입은 상체의 윤곽이 알리고 잘 생긴 얼굴이 하늘을 우러러 까딱 움직이지 않는다. 란주는 얼굴이 해쓱해시며 허둥거렸다.

《투사선생님, 전 도로 내려가겠습니다. 연예대 학생들이 나올 시간도 됐구…》

《그러세요. 오늘은 공연을 일찍 끝내구 어둡기 전에 학생들을 돌려보내세요. 부모들이 기다리지 않게…》

《알겠습니다. 쏙은 제가 건사하겠습니다.》

허란주는 말을 마치기 바쁘게 돌파서서 도망치듯 아래로 사라져버렸다.

(무슨 곡절이 있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오솔길을 에돌아 미지의 청년한테로 다가가시였다. 우거진 가독나무숲을 벗어나시자 뻥판처럼 우가 평평한 바위와 그우에 앉아있는 젊은이의 전모가 날날이 드러났다. 물난 김정학생복상의에 검댕이가 묻고 불찌뿜 자리가 승승한 토스레바지를 입은 모순적인 옷차림새, 발앞에 놓여있는 학습장과 손에 든 《삼천리》 연필, 멍하니 하늘 어딘가를 바라보며 돌상처럼 굳어진 잘 생긴 얼굴에서 빛을 잃은듯 한 침침한 두눈동자, 바위에 기대놓은 지팡이…

(?!)

김정숙동지께서는 대번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동정심이 북받쳐오름을 느끼시였다. 나이는 스물댓정도 되었을가 아마 꿈에도 어려오는 사랑하는 동생 기송이도 살아있었더라면 저 나이였을것이다. 아까운 나이에 눈을 못보다니? 불현듯 유격구의 등판에서 전사한 기송이의 생각이 치밀며 칼로 가슴을 에이는듯 하시였다. 끝끝한 청년일군들을 대상하시거나 공사장을 달리며 뛸는 젊은이들을 보시면 그들속에서 기송이의 모습을 찾게 되시고 그들모두가 기송이로 보여 웃음짓군 하시던 그이이시였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명의 젊은이가 눈을 잃고 떨어져나와 외로이 홀로 산속 바위우에 앉아 명상에 잠겨있는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픈 심중을 지그시 누르며 조용히 다가가시였다. 인기척을 들었겠는데도 청년은 꿈쩍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 한줄기의 더운 숲바람이 불어치며 바위우에 놓여있는 학습장갑피를 후르륵 날리더니 종이 한장을 그이의 발앞에 떨어졌다. 집어들고 보시니 줄이 맞지 않게 비뿔비뿔 쓴 시 한수가 눈에 안겨들었다.

슬프구나 건국의 함성은 드높은데
이 몸은 불구로 때를 만났으니
저 썩썩한 대오의 투사가 못됨이
펼떡이는 두팔이 놀고있음

젊은이의 번민, 고뇌의 심정이 가슴을 친다. 얼마나 피롭고 분했으면 인적드문 산속, 공사장의 들끓는 숨결이 마쳐오는 바위우에 홀로 앉아 이런 시구를 쓰고있을가. 불행한 청년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싶으시였다.

《시를 잘 썼구만요.》

청년은 고개를 푹 꺾더니 한숨을 길게 뽑았다.

《누구십니까?》

《공사장에서 일한답니다. 동무는 이 근방에서 삽니까?》

시를 잘 썼다는 칭찬과 살뜰한 물음에 청년은 대뜸 감동해마지 않았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장님에게 누가 이렇게 따듯이 말을 건네준 일이 있었던가.

《박명도라고 합니다. 적골동에서 삽니다.》

《적골동이라면 혹시 박풀무로인을 알겠군요.》

《우리 할아버지 말입니까?》

《할아버지라고요!》

이 근처 가까이 살고있을 청년일거라고 짐작하고 물으셨는데 마침이었다. 그이께서는 할아버지가 지금 계시는가, 뭘 하시는가, 식구는 몇이며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물으시였다. 그리고 어서 집에 가보자시며 지팡이를 그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오솔길은 공사장으로 넘나드는 사람들의 발길에 닳아 내려가면서 넓어지고 다져지고 평탄해졌다. 박명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걸어내려갔다.

《천천히… 조심히 걸어요. 앞에 돌이 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 넘려하실라치면 박명도는 제편에서 호기를 뽑았다.

《선생님, 앞을 못봐도 머리속에 길이 환합니다. 하루 한번씩은 오르내리지요. 산우에서나마 공사장의 숨결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심장이 터질것만 같아 견딜수가 없습니다.》

《눈은 언제 그리됐어요?》

《몇해전 큰물때였습니다. 큰물이 토성랑을 휩쓰는통에 집은 통채로 떠내려가구 어머니는 익사하구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박명도는 지팡이로 앞을 휘휘 저으며 처참하던 그때 광경에 억이 막히는듯 잠잠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원한이 사무친 몸이여서 개수공사소식을 듣구는 목메여 울었습니다. 스무하루날 착공식때만 사불문하구 할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나갔으셨습니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연설하시는데 아- 귀는

살아서 우렁우렁한 그 말썽 들었지만 눈은 멀어서 기록하신 그 모습 뵈올수가 없었으니 세상에 이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튿날부터 산에 올라가 멀리서나마 공사장의 음향을 듣는것으로 자신을 위안합니다.》

지성도 있고 똑똑하고 정의감이 강하면서도 순박한 청년이었다. 아까운 청년이 그리웠다는 생각으로 그이께서는 가슴이 더욱 쓰리시였다.

박풀무로인네 야장간은 오솔길에서 내려서는

동네 첫어귀 둔덕진 곳에 어슬프게 서있는 초가집이었다.

3

《어떻게 살아왔는가구요? 그 기막힌 이야기를 해선 뭘하겠소.》

박풀무로인은 긴 곱방대를 빼금빼금 뺄며 주름살이 오그라붙은 입술을 찻찻 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식어버린 불덕에 참나무숯덩이를 넣고 불씨를 단 다음 풀무질을 하시며 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로인은 풀무질을 해주던 손주녀석이 저 모양이고 앞집 천득이란 녀석도 공사장으로 달아나서 래일부터 자기도 공사장에 나가 등짐을 지겠노라며 불을 꺼버린 상태였다. 《애- 일은 안하구 마음 들썩해서 어찌자는거냐. 어휴-불쌍도 허지.》하는 할아버지의 지청구에 박명도는 창피해서 방안에 숨어버렸다.

《원체 우리 집은 밥술이나 뜨는 집안이였습니다. 우리 선친이 조선봉건왕조말기 망국바람에 몰락한 량반이였는데 그래도 넘겨준 재산이 있어서 난 그걸 밀천으로 저 안산기슭에 철공소를 차렸수다. 뼈가 휘도록 일해서 살림을 근근히 지탱했는데 서기산에 일본군려단본부가 들어오면서 안산의 조선사람집을 철거하라는것이 아니겠소. 뭐 거기예다 왜인들의 화장터를 만든다나요. 산 조선사람의 목숨이 죽은 왜놈시체보다 못한 처지였습니다.》

굴뚝같은 한숨과 함께 연기를 내뿜는 로인의 눈에 처량한 빛이 번뜩거렸다.

《저 애 애비가 막아섰는데 칼들고 달려드는 왜놈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소. 경찰서에 끌려가 매만 맞았지요. 끝내 토성랑쪽으로 쫓겨났수다. 왜놈한테 지지 말자는 악을 품구 토성랑에다 다시 철공소를 차렸수다. 그럭저럭 밥술이나 떼구 저녀석도 서울공부를 시키게 되였지요.》

그런데 임오(1942)년 여름 큰물에 풍지박산이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하늘도 왜놈편인지 성안을 내놓고는 온 평양일대가 물에 잠겼수다. 보통강, 대타령, 서평양, 토성랑일대는 비자루로 쓸듯 쓸어갔지요. 방학이 되여 집에 와있던 명도녀석이 가산을 건져보겠다고 물에 뛰여든 제 어미를 좇아 물란리에 들어섰다가 가산은 고사하구 제 어미조차 건지지 못했수다. 명도애비는 불은 딱지가 붙어 징용에 끌려간 뒤였지요.

…빈털터리가 되여 한지에 나왔으니 다 늙은 목숨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게 원썩갈질 않겠소. 죽자 해도 저 명도녀석때문에 눈을 감을수가 있어야지요. 저 녀석이 물란리를 겪은 후 수열병인지 뭔지 덜컥 걸렸수다. 온몸이 풀무불처럼 달아올라 장판지를 쥐어뜯으며 헛소리치다가는 까무러치는데 죽더라도 저놈 하나라도 살려내구 죽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반년을 앓았지요. 서울가서 공부할 때 친했다는 처녀가 크게 도와

주었수다. 귀한 약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간 호도 극진히 해주어 목숨을 건졌수다. 보매 돌사가 눈치가 달라서 혼사땀을 생각까지 들었지요. 현대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수. 저 녀석이 목숨은 구했지만 점점 눈이 어두워지는게 아니겠소. 1년이 지나서는 장님이 다되고 말았수다. 그 처녀도 눈물만 흘립시다. 처녀부친이 고통한 고려의 사라지만...》

방문이 벌췌 열리며 명도가 얼굴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까지 다 하세요.》

《넌 잠자고 있거라. 늙은이 답답한 속 씨원히 풀어보려다. 술한 사람들이 야장간을 드나들지만 다 제 쟁기때문이지 공사에 쓸 쟁기때문에 오신분은 처음이다. 토성랑에서 고생하신분이 아니고 서야 어찌 그에 생각이 닿겠느냐. 부인님, 내 그 래 주책없이 쌓인 설음 다 쏟아놓수다.》

《로인님, 저도 못해본 고생이 없답니다. 허물 마시고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말이우다. 아무리 마음고운 처녀란들 어떻게 장님한테 오라고 하겠소. 사람이 럽치가 있어야지. 더우기 가세를 봐도 그 집은 지체 높은 가문이요, 우리는 대장쟁이 아니겠소. 내 그래서 처녀보구 사람목숨 구해준것만도 고맙기를 이룰데 없으니 더 발길을 하지 말라고 차마 하기 힘든 말을 했수다. 그후로 처녀도 발길을 끊었지요.》

《병원에는 다녀보았습니까?》

《더러 의원들을 찾아가 보였수다. 의원들의 말 인즉 눈알피줄이 고열로 터졌는데 굳어진 피덩이가 시신경을 압박하면서 앞을 못본다는거웨다. 피덩어리를 풀면 회복될수 있는데 사향이 있어야 한다고들 합디다. 후유- 우리 처지에 사향이라니 하늘의 별따기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런 응대도 못하고서 묵묵히 풀무질만 하시였다. 푸르륵 딱- 푸르륵 딱- 풀무소리만 무거운 침묵이 드리운 야장간공기를 단조롭게 흔들었다. 바람이 풍길 때마다 불덕속의 숯덩어리가 빨갭게 피여올랐다.

로인의 기구한 이야기를 듣느라니 자꾸 가슴이 저려나며 숙영지의 달밤이 떠오르시였다. 울창한 수림속으로 교묘히 흘러내리던 가을밤의 달빛... 벌써 등골에 서늘하게 스며드는 북방의 선기... 그 무슨 큰 시름을 안으신듯 주무시지 못하고 락엽갈린 수림속을 거닐기만 하시던 장군님...

김정숙동지께서는 봄가을외투를 드시고 조용히 다가가시였다.

《장군님, 날씨가 껍 찹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이께서 드리시는 외투를 받으실념을 못하시며 손에 드신 신문을 내보이시였다.

《정숙동무, 이걸 좀 보오. 두달전 7월장마때 평양이 물에 잠겼다고 하오. 원래 서평양일대는 한것만 비가 와도 물란리를 겪는 곳이요. 그런데 이번 큰물에는 2,000여정보의 농경지와 1,000여호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다고 하오. 5만명의 주민

이 한지에 나앉았소. 머지 않아 겨울인데 그들이 울겨울을 어떻게 나겠소. 정숙동문 한번도 평양에 못가보았지?》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숙이시였다.

《거기 토성랑이라는 빈민촌이 있소. 게딱지같은 집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이라고 쓰고살던것마저 다 끌어갔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 몸을 붙이겠소. 또 죽은 사람은 얼마구...》

달은 구름속으로 스며들고 어두운 그림자가 숲속을 무겁게 덮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을 위로해드릴 아무런 말씀도 찾아내지 못하시였다. 그저 가슴이 짝 메이고 토성랑이라는 빈민촌이 큰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며 사람들의 통곡소리, 아이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으시였다.

《5월말에 조선주둔군사령관으로 악명을 떨쳤던 룡군대장 고이소가 조선총독으로 임명됐소. 부임하자마자 내놓은것이 <호적정비대책위원회>라는 것이였소. 징병대상의 조선청년들을 쟁그리 칙략전쟁에 내몰기 위한 극악한 책동이요. 이런자이니 평양이 물에 잠기전말길 눈섭 하나 까딱하겠소. 토성랑에서 멀지 않은 서기산기슭에는 일본군 77려단이 주둔하고있는데 거기서는 벌써 몇달째 싱가포르점령을 경축하는 축하연을 매일같이 벌려놓고있다고 하오. 일제가 10년가까이 보통강개축공사요 뭐요 하고 떠들기만 하는것은 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에 불과하오. 그들에게는 조선사람의 목숨이 파리목숨보다 못한거요. 우리는 하루빨리 조국을 해방하고 나라를 찾은 다음에는 보통강부터 길들여 평양시민들이 자연재해에서 영영 벗어나게 해야 하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밤의 장군님의 아픔을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시였다. 그 아픈 심정이 못처럼 박혀있어 평양에 오시자 토성랑일대부터 눈여겨 보시였으며 공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나오시는것이였다.

《로인님, 이제 개수공사만 끝나면 그 모든 원한이 영영 옛말로 될것입니다.》

《그렇다마다요. 요샌 정말 사는것 같수다. 한밤을 자고깨면 희한한 일만 생겨 정신이 얼떨떨해지우다. 인민위원회가 선다, 토지개혁을 한다, 개수공사를 한다, 해방이 좋긴 좋수다. 나도 공사장에 나가 흙 한짐이라도 지자고 불을 켜던것인데 부인님의 청탁을 받고보니 생각이 짧았수다. 애명도야, 오늘 저녁엔 앞집 천득이랑 도로 데려와야겠다. 밤부터 쇠를 버리자꾸나.》

박명도가 지팡이를 짚고 토방을 내려서더니 그이께로 다가와 풀무채를 넘겨잡았다. 그이께서는 야장간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버려야 할 농쟁기들을 근심어린 눈길로 훑어보시였다.

《로인님, 일감이 쌓였구만요.》

《예, 농민들이 땅을 받더니 농쟁기주문이 배로 늘었수다. 넘려마시우. 그건 뒤로 미루고 당장 공사용도구부터 버리겠수다.》

《로인님, 아닙니다. 농민들의 농쟁기부터 먼저 버려주세요. 쌀이 많아야 건국도 잘될것 아닙니까. 더우기 농사야 철을 놓치면 안되지요.》

김정숙동지의 말씀에 박풀무는 눈을 껌벅거렸다.

《옳거니! 내 생각이 또 짧았수다. 토성랑에서 살았지만 나라일을 생각하는 품이 난 밭밭에도 못닿겠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감탄을 연발하는 로인으로 부터 이 주변 야장간형편이며 농촌실태까지 료해하신 후 자리를 뜨시였다. 야장간을 나서시면서 박명도에게 말씀하시였다.

《명도동무, 너무 락심하지 말아요. 할아버지일을 돕는것두 건국사업에 대한 기여로 된답니다. 시쓰는 재능도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건국을 도울가 하고 생각하면 명도동무도 술한 일을 찾아할수 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병기창에서 작란을 만들다가 두눈을 잃게 되자 손에 악기를 들고 인민들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킨 한 유격대원의 이야기도 해주시였다.

오셨던 산길로 다시 올라가시는데 등뒤에서 박로인의 이런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명도야, 저 부인님은 분명 나라의 큰 간부임에 틀림없다. 토성랑에서 큰 인물이 났구나.》

로인은 김정숙동지를 제나름대로 토성랑에서 고생하신분으로 단정하고있었다.

4

날이 갈수록 공사장은 시민들로 뿔어번졌다. 어찌된 일인지 김정숙동지께서 공사장에 나와 일하신다는 소문이 현장을 벗어나 온 성안에 퍼졌다. 대중의 눈과 귀란 속일수 없는 법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분을 가까이에서 보왔노라고 어깨를 으쓱거렸다. 김정숙어머님의 모습이 어쩔던가는 물음에 이런 대답을 했다.

《그야 이룰데 있겠소. 김장군님처럼 우람한 체격에 눈에서는 번개불같은 빛이 번쩍거립디다. 왜놈들이 보기만 해도 기절초풍할 기상이에요. 빨찌산군복을 입고 장화를 신었는데 저기 공사지휘부에서 리무영선생과 이야기하는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시다.》

《허 참 모를 소리다. 아무려면 어머님까지 공사장에 나오신단 말씀이요? 믿어지질 않소그려.》

기연가미연가 하면서도 하여튼 김정숙동지께서 공사장에 나오신다는 소문은 사람들을 격양시켰다. 그 소문에 흥분된 사람들, 호기심을 품은 사람들, 이게 어디 도리가 됐냐며 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몰밀듯이 공사장으로 달려나왔다. 매일같이 불어나는 지원자들로 공사장은 발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일판마다에서 그분의 이야기로 떠들썩거리고 묻고 대답하고 예상과 추측을 섞어가며 즐거운 웃음을 터치였다. 그러나 누구

도 그이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어디에도 그들의 상상을 만족시킬만 한분은 없었던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용기를 내서 지휘부성원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에 머리를 들이밀고 기웃거리기도 했다.

허란주가 통수로굴착장의 맨 밑바닥으로 내려왔다. 그이께 좀 쉬시라며 귀전에 대고 속살거렸다.

《투사선생님, 빨찌산녀장군께서 공사장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정말입니까?》

《호호... 평양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 나와야지요.》

《어마-》

새삼스레 놀라며 뿔어지게 쳐다보는 란주의 커다란 눈에 의혹이 한껏 짙어갔다. 그이께서는 얼른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란주선생, 노래는 잘태가요요? 빨리 노래를 완성합시다.》

《가사가 아무래두... 아는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몇편 들어왔는데 마음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란주선생, 좋은 가사는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나와요. 누구보다도 토성랑의 원한을 뼈에 사무치게 겪은 사람들, 큰물피해로 수난과 곡절을 당한 사람들속에서 진실한 감정이 나올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토론해보세요.》

란주는 심각해졌다. 깊은 고뇌에 빠졌다가 얼른 화색을 지었다.

《투사선생님,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모셔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요?!》

《예, 제가 쏙뜬던 애기랑 투사선생님 애기랑 했더니 아버지는 절 철없는년이라고 꾸중하시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얻은 병이겠는데 오늘 당장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꺼이 응하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해방전 리무영을 도와준 애국지성에 사의를 표하는검 박명도의 치료문제도 의논하고싶어 한번 찾아가시려던참이였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무렵 그이께서는 란주와 함께 련화동으로 가시였다. 솟을대문에 《심로의원》간판이 걸린 란주네 집은 배집, 우산각, 학각지붕들이 처마를 다투며 늘어선 중산층들이 사는 거리의 가운데 당당히 자리잡고있었다. 조선총독이 욕심을 내면서도 데려가지 못했다는 허심로의 도고성과 높은 의술, 재력이 엿보이는 집이였다.

《아버지-》

허란주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부르며 성급히 대문을 열었다. 그러자 정원너머 퇴마루에서 기다린듯 서성거리던 조선바지저고리에 푸른 공단조끼를 입은 사람이 《오셨느냐?》 하며 급히 마당에 내려섰다. 키도 크지 않고 몸도 체소한편이나 첫눈에 강단이 느껴지는 록록치 않은 50대의 중년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인사를 나누시었다.
《선생님. 왜놈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애국자들을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허심로는 손을 내흔들었다.
《파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해방된 하늘에 머리들기 부끄럽습니다. 저야 의사의 본분을 했을 뿐이지요.》

허심로는 겸양의 뜻을 표하며 그이를 별채에 꾸린 치료실이 아니라 자기 방으로 안내해드렸다. 심장생도를 그린 열썩짜리 병풍을 친 벽우에서 구암 허준의 초상이 내려다보고있었다. 서가에 가득 꽂힌 《고려의학보감》이니 《언해구급방》이니 하는 의서들로 방안에서는 고풍의 냄새가 짙게 풍겼다.

허심로는 정기어린 예리한 눈길로 그이의 신색을 주시하며 런꽃무늬를 수놓은 돗자리를 권하였다. 명외들이 그러하듯 기왕력도 묻지 않고 맥부터 짚어보고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부인님. 젊으신 나이에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신상에 어혈이 들어 기가 허해졌는데 헛참...》

허심로는 맹랑한 표정을 지었다.

《한걸음 늦었습니다.》

《예?!》

그이께서는 저르기 긴장해지시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어혈을 푸는데는 사향만 한 명약이 없습니 다만...》

《그럼...》

김정숙동지께서는 박명도의 앞날이 근심되며 불안해지시었다. 일루의 희망을 안고오신 길이였다.

《미안합니다. 명색이 의사인데... 사실은 사향뿐이겠습니까. 호골, 웅담, 록용, 우황, 서후뿔서 전 귀한 약재는 다 있었지요. 그런데 폐망직전에 일본강패들이 총을 들구 달려들어 다 털어갔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전용의사를 거절한데 대한 보복이지요. 이 허심로를 알기를 우습게 알지 짐승보다 못한 놈들! 내 조선의 개, 돼지를 치료해줄 지언정 <천황>놈이 부른단들 가겠습니까...》

허심로의 눈에서 노기의 파란 불길이 팔팔 일었다. 한참 진정하고나서 미안한 태도를 지었다.

《제 분김에 그만... 량해하십시오. 그렇게 털리우고도 사향 두돈오푼이 용케 남아있었는데 어제 나라의 큰 간부가 와서 가져갔습니다. 귀한분께 드리겠다고 하여 다 올렸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십시오. 후에 생길터이니 써드리겠습니까. 왜적을 치구 나라를 세운 <개국공신>들께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좋은 고려약을 드릴테니 지금은 그걸 먼저 써보십시오.》

김정숙동지께서는 착잡한 심정을 달래시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한테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4년전 수해때에...》

하고 그이께서는 옆에서 듣고있는 란주가 귀를 강구며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길을 느끼시며 《동생》이 당한 불행을 자상히 말씀하시었다. 허심로는 자신보다 《동생》을 먼저 생각하는 지성에 감동하면서도 난감한 기색을 지었다.

《수열병으로 눈이 멀었다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피가 더 굳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하는데... 역시 약재가 걸렸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아무쪼록 힘써주십시오. 전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에 저르기 시름이 풀리시었다. 한결 개운한 심정으로 허심로의 배웅을 받으며 거리로 나서시었다. 고려약구레미를 들고 멀리까지 따라나온 허란주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투사선생님, 정말 그런 <동생>이 있습니까?》

《있합니다.》

《무영아저씨가 그러는데 투사선생님은 왜놈들한테 일가친척 다 잃고 홀로 남으셨다던데요.》

《대신 술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허란주동무도 동생이 되고...》

《예?!》...

날이 저물어 댁에 들어서시니 언제 왔는지 리무영이 와서 그이를 기다리다가 반갑게 맞이했다.

《정숙동지, 어디 가셨다가 늦었습니다?》

《아니 무영동지가 오랜만에... 마침 잘 오셨어요. 공사지휘로 수고하시는데 한번 변변히 대접 못해 미안해요. 자- 어서 들어가십시오.》

리무영은 감격해하면서도 사양하였다.

《정숙동지, 그럴새가 없습니다. 며칠내로 보리장마가 올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걸 받으십시오.》

리무영은 작은 팍을 내밀었다.

《사향입니다. 정숙동지의 치료에 꼭 맞는 약이라고 합니다. 어혈을 푸는데는 곱열도 좋지만 사향이상 없다고 합니다. 란주한테서 쏙뜬던 얘기를 들구 가책이 컸습니다. 술직한 말로 정숙동지께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하신 소나무이야기때문에 제 이제껏 참아왔는데 이제 안되겠습니다. 공사장에 나오지 마시고 이 약을 쓰시면서 몸을 돌보셔야겠습니다. 아니 장군님의 사업을 받들자 해도 시간이 없겠는데 현장에까지 나와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예?》

리무영은 오빠벌되는 사람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려는듯 태도가 엄숙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고마우시었다. 동지들의 이런 사랑속에 살고있는 행복감이 밀물처럼 가슴그득히 차오르시었다. 한편으로 걱정하던 사향이 생겨 마음이 놓이시었다.

《호호... 무영동지, 소나무얘기는 얘기구 어서 들어가십시오. 바빠도 저녁이나 자시구 가야 할게 아닙니까.》

사실 산에서 함께 싸우던 동지들에게는 자신의 손으로 술한 밥을 지어드렸지만 국내에서 싸우는

동지들에게는 생각뿐이지 따끈한 밥 한끼 대접 못
한것이 늘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던 그이이시
였다.

《정숙동지도 참...》

리무영은 더 우기지 못하고 그이의 손에 이끌
려 방으로 들어갔다. 잠간사이에 그이께서는 소
박한 밥상을 차려들고 리무영과 마주앉으시였다.

《무영동지, 저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이면 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박명도의 이야기를 하고싶으
셨으나 리무영이 천만락심하여 섭섭해할것을 생
각하니 차마 말씀이 목에 걸려 나가지 않으셨다.
그래 인민들속에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는것은 해
방전이나 오늘이나 먼후날에도 영원히 변함없는
혁명가들의 근본 생존방식이지만 특히 주권을 쥔
다음 그것은 더욱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는데
대해 말씀하시였다.

리무영은 이 문제가 김정숙동지께 있어서는 혁
명리론이기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달리 살수
없는 그이의 마음이며 보람이며 행복이라는데 대
해 잘 알고있었다. 한마디로 그이의 체질화된 삶
의 생리여서 어쩔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절히
느끼며 눈시울을 습벅이였다.

《그러니 변함없는 신념이군요.》

리무영이 감회깊은 어조로 되뇌였다. 좌우합작
으로 독립을 이룩해보려 산전수전 다 겪다가 도
덕사에서 첫 상봉을 했을 때 그이께서는 이런 말
씀을 하시였던것이다.

《저기 벼랑우의 락락장송을 보십시오. 천년세
월 풍상을 이겨내며 푸르청청 서있는 근본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위속에 깊이 억세게 뿌리를
박았기때문입니다. 우리 혁명가들도 저 소나무처
럼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장
군님께서는 무영동지를 비롯한 국내혁명가들이
몇몇 선각자의 힘으로 조국해방을 이룩하려 할것
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의사, 종교인,
중소기업가, 애국적인 민족자본가 등 조국해방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각계각층 대중속에 들어가 그
들을 깨우치고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며 나
아가서 전민항쟁으로 해방성전에 떨쳐나설것을
바라고계십니다.》

홍분한 리무영이 소나무를 쳐다보며 시를 읊듯
부르짖었다.

《아, 보입니다. 해방의 길이 보입니다. 정숙동
지! 소나무이야기를 명심하구 제 인생전환을 하
겠습니다.》

김정숙동지의 그 말씀을 명심하고 리무영은 평
양의 고무공장, 제사공장, 곡산공장이며 남포와
강서지구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지하정치공
작원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던것이다.

사흘후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허심로를 찾아
가시였다. 사향팍을 받아든 허심로는 어안이 병
병해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리무영선생

이 빨찌산녀장군께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올린
약인데 되돌아오다니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지성을 잊지 않
겠습니다. 하지만 전 일없습니다. 이 약은 어제
말씀드린 눈먼 청년한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허심로는 와뜰 놀라더니 마른벼락 맞은 사람처
럼 몸이 꼳꼳이 굳어졌다. 입술을 떨며 간신히
중얼거렸다.

《그럼 부인님이?! 아 이게 무슨 일이지요!》

허심로는 황황히 일어나 절을 하려 하였다.

《어머님! 어머님을 알아 못본 소인을 책망해 주
십시오. 제 늦은 인사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그의 손을 잡아 자리에 앉히시며 그이
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웅색해서 견디겠습니
까. 팔처럼 허물없이 대해주십시오.》

《아니올시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 있습니
까.》

김정숙동지께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허심로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선생님도 적골동에 사는 박풀무로인을 아시겠
지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집 박명도라는 손
자의 눈을 고쳐줄수 없을까 하여 다시 찾아왔습
니다.》

《뭐라고요?!》

놀랍고 당황하고 감란이 덧쌓여 허심로는 미처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심중에서는 감동인지
자책인지 알수 없는 파도가 일어번지기 시작했다.
외동딸이 미칠듯이 사랑했던 대장간집 젊은이...
망국노의 설움도 잊고 순결무구히 핀 처량한 꽃
이어서 차마 막을 용기를 못냈던 그애들의 사랑
... 하나 실명앞에서는 자기의 아량과 도의심과
량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통탄하며 꺾어야 했던
불행한 꽃이었다. 허심로는 마음을 다잡지 못하
고 허둥거리며 저도 모를 소리를 중얼거렸다.

《어머님. 안됩니다. 사향만은... 그것만은 어머
님께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기를 내어 가문의 전통에 매
달렸다.

《이것은 우리 구암선조님께서 물려준 허씨가문
의 계를입니다. 선조님께서 30여년간 궁중어의로
임금님과 황후를 모셔오면서 후손들에게 넘겨준
대의명분입니다.》

허심로는 사색이 되어 어떻게 임금과 백성을
한자리에 놓을수 있으며 또 이젠 나라가 쇠는데
국모님께 올린 약재를 무엄하게 람용하여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지어 가문에 수치를 남길수 있겠
느냐며 어머님께서 널리 보살펴주십사고 애걸하
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딱하시였다. 이럴 땐 어쨌으
면 좋겠는지 난처하시였다. 봉건유교교리에 굳어
진 머리를 한순간에 퇴위줄수 있으랴만 그이께서
는 한참이나 **김일성** 장군님의 이민위천사상과 지

론에 대하여 해설하지 않으면 안되지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산에서 싸우실 때부터 대원들이 있어야 지휘관도 있고 인민이 있어야 령도자도 있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을 하늘로 섬기고계시는데 대하여, 장군님의 뜻으로 서는 새조선은 옛날의 봉건조선이 아니라 인민이 주인된 민주주의 새조선이라는데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선생님, 저에 대해서는 넘려마시고 젊은이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하루가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건대는 허준선생님이 비록 궁중의사는 했지만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치료법을 내놓아 백성들의 목숨도 크게 구제한줄로 알고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무슨 귀천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 약을 젊은이에게 썼다 해서 선조님의 계를 어기는것으로 된다고는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이의 타견과 사리정연한 말썬에 허심로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자 의사의 권리를 가지고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조치할터이니 널리 양해해달라고 빌었다.

《선생님, 젊은이를 제 동생으로 생각해주십시오. 누나가 동생을 위한 일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살아있었다면 그 젊은이와 동갑이었을 저의 친동생은...》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이 꼭 메여 더 말썬을 못하시였다. 잠시 진정하고나서 절절히 간청하시였다.

《젊은이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가슴아픈것은 왜놈의 확정밑에 그집 가세가 몰락한데다 눈까지 잃다보니 사랑마저 시든것입니다.》

《?!》

허심로는 얼이 나간듯 하였다. 심중에서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감동과 의혹, 걱정과 령정, 애국과 리기, 과거와 현재... 량극단으로 울리솟고 떨어지는 파도에 휘말려들어 도고하던 자기 존재가 가랑잎처럼 되어버린듯 했다. 왜놈의 총칼앞에서는 지켜낼수 있었고 그래서 인생의 자부와 긍지로 되었던 제나라의 애국이 이 위대한 애민의 바다속에서는 너무도 하찮은것으로 부끄럽게 생각되는것이였다.

한없이 소박하고 평범하고 친근한 그이의 가슴속에 깊이와 높이, 그 끝을 알수 없는 거대한 우주와 같은 애국, 애족, 애민의 바다가 장엄하게 설레이고있음을 알았을 때 허심로는 무아경에 빠지고말았다.

5

비가 구질구질 내리기 시작했다. 보리장마가 시작된 모양이다. 공사장은 온통 시뻘건 진흙으로 매닥질이 되였다. 사람들의 신발과 도구는 물론 옷이며 얼굴서건 진흙투성이가 되였다. 방죽우의 레루길과 밀차며 휴계실안서건 어디가나 팔죽같은 진흙이 묻어돌아갔다. 사방에서 시뻘건

진흙물이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하늘을 욕질하며 힘을 곱으로 뽑았으나 능률이 오르지 않았다. 통수로굴착장은 바닥이 깊어갈수록 사처에서 물이 모여들고 밑에서는 샘줄기까지 터져 물바다가 되였다. 비가 오는통에 등짐운반이 어렵게 되였다. 바닥에서 독우까지 서너길나마되는 경사면을 사선으로 오르던 질통, 맞들이, 목고, 소랭이 대렬은 바닥이 매끄러워 발을 붙일수 없는데다 진흙물로 사람주제가 말이 아니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사면에 두개층으로 된 넓은 계단을 만들도록 하시였다. 맨 밑바닥 사람이 흙을 떠서 첫계단에 올려던지면 첫계단 사람이 다음계단에 올려던지는 식으로 토량을 처리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강바닥 량안 좌우경사면에 종대로 행렬을 이루었던 운반대렬 대신에 경사면에 든든히 발을 붙인 수십수백개의 계단조가 형성되어 비속에서 바글바글 끓어번졌다. 능률이 쑥쑥 오르고 성수가 났다. 대신 사람마다 삽, 곡괭이를 요구했다. 삽이 엄청나게 모자랐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제방뚝너머 후미진 곳에 있는 야외야장간으로 사람을 띄우시였다. 박풀무로인이 거기에 야장간을 차려놓고있었다. 그 덕을 단단히 보고있었다. 미구에 박로인이 몇사람과 함께 갇혀버린 삽을 한아름씩 안고 나와 나누어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릎치는 물속에 발을 잠그고 제일 힘든 일을 하시였다. 물어나는 진흙때문에 한삽 올리던지고는 삽날에 물을 묻혀 드러난 땅에 깊숙이 박군 하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치고 힘이 딸리시였다. 그러면 이국땅에 묻힌 전우들의 이름을 불러보군하시였다.

(희숙동무, 성숙동무, 이건 동무들의 뭍으로 뜨는 흙이에요. 록금동무, 확실동무, 이건 동무들의 뭍이구...)

그이께서는 얼굴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훔치시며 먼저 간 렬사들을 뜨겁게 찾으시였다. 그러면 가슴터지는 아픔이 심장의 피를 설설 끓이며 자신도 모를 힘으로 피줄을 치며 줄달음치는것이였다. 그들을 생각하시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부상자리가 아픈지 어떤지 알지 못하시였다. 정녕 그이께서는 투쟁과 헌신속에서만 자유와 안정을 찾는데 습관되시였다.

비는 점점 억수로 내렸다. 봉화산은 뽀얀 비발속에 잠겼다. 서남쪽 하늘이 컴컴하게 변해갔다. 행어나 하고 하늘을 살피던 사람들이 깨가 글렀다는듯 혀를 차며 자리를 떴다. 비나 굶고 일하자는 심산이다.

삽을 나눠주고 방죽우에 그냥 쭈그리고앉아 작업장을 내려다보고있던 박풀무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사람들아! 요만한 비에 피할셈인가 엉? 토성량원한을 잊었나. 여기 토성량에서 사신분들은 다 나서시우. 저 부인님을 따르시우. 나부터 삽을 들겠소.》

로인의 호령질에 사람들이 머뭇거렸다.
이때 우장을 쓰고 장화를 신은 50대의 사나이가 로인곁에 다가왔다.

《사돈아버님,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시오? 허의원이...》

《그렇습니다. 허심로지요. 그런데 사돈님은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박풀무는 갑자기 허심로가 나타나 아닌 밤중에 흉두께 내밀듯 《사돈》이니 《실책》이니 하는 소리에 영문을 차리지 못하였다.

《사돈님, 저분이 누구신줄 아시오?》

하고 허심로는 발아래 강바닥에서 삽질에 여념이 없는 김정숙동지를 가리켜보였다.

《저분이 바로 김정숙어머님이십니다. 왜놈들을 벌벌 떨게 하셨다는 그 유명한 빨찌산녀장군이란 말씀입니다.》

《...》

《나도 실책을 범했지요. 김정숙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두번씩이나 어려운 결음을 하셨소다. 리무영선생이 어머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다기에 제귀한 약을 올렸는데 아 글썽 그걸 도로 들고오시여 사돈님의 손자눈을 고쳐달라는게 아니겠소. 그애들의 사랑이 꺾인것을 그리도 애달파하시면서... 말씀은 차마 못하십디다만 내 어찌 그 뜻을 모르겠소. 어머님의 뜻과 지성이 그러하오니 나나 사돈님이나 그걸 어기면 이 나라 하늘에 머리들수 없을줄로 압니다. 내 지난날의 용렬한 처사를 널리 용서하시요. 나도 오늘부터는 이렇게 현장치료를 나왔습니다.》

박풀무는 허심로의 말을 듣는지마는지 알수 없었다.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강바닥으로 달려내려갔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물탕을 차며 사람들을 비집고 나가더니 김정숙동지앞에 허리를 깊이 굽히었다.

《김정숙어머님! 눈이 어두워 어머님을 몰라봤으니 이 죄 무엇으로 씻으리까. **김일성**장군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것만도 하늘같은 은덕인데 어머님께서 백성을 위해 삽을 드셨으니 그 덕망 또한 바다에 비기겠습니까.》

《할아버님, 갑자기 이 무슨 일입니까?》

그이께서는 못내 당황감을 금치 못하며 로인의 팔을 잡아주시었다.

《김정숙어머님이라니?!》

김정숙동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이와 로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삽시에 사람들속에서 술렁술렁 파문이 일어났다. 누군가 《김정숙어머님이시다!》하고 웨쳤다.

《뭐라구? 김정숙어머님?》

《그렇소. 김정숙어머님께서 여기에 계시오!》

환희와 걱정에 찬 부르짖음이 소연한 비소리를 뚫고 사람들 머리위로, 공사장 멀리로 새처럼 날아퍼졌다. 소식은 흥분과 감격의 파도를 연줄연 줄 일으키며 드넓은 공사장을 걱정의 도가니속에

몰아넣었다.

《김정숙동지!》

함께 일하면서 낮을 익힌 녀인들, 젊은이들, 장년들이 그이를 둘러싸며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고 감탄하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아스라하게 뻗어간 제방쪽으로 사람들이 너도나도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김정숙동지께서 계시는 부근의 방죽우에 운집하여 앞사람의 머리톱과 어깨를 비집으며 강바닥의 군중을 더듬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디? 어디? 어느분이시오?》

《안보입니까. 저 아래 사람들이 빙 둘러선 가운데서 대장쟁이 령감과 말씀하시는분이시라고.》

《아니, 정말이시오?》

《에그 기차라-》

경사면에서 허리띠고 내려다보던 한 녀인은 허둥지둥 바닥으로 달려내려 그이앞에 이르더니 새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맏시사! 이게 누구시오? 요전달 친정대사에 갈 때... 어머님! 제 그때의 복너올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이를 등에 업고 무거운 임을 이고 비지땀을 흘리며 가던 복너를 알아보시었다.

《복너아주머니, 대사를 잘 치렀어요?》

《예, 해방후의 첫대사라 마음놓고 치렀어요. 어머님덕분에 쉽게 갔어요. 하마트면 목대 부러질번한걸 어머님께서 살려주셨지요.》

《하하하...》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나왔어요?》

《친정집에 맡겼어요. 우리 집에서는 어른 여덟이 몽땅 공사장에 나와 일해요.》

녀인은 아주 우쭐해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며 웃고 떠들어댔다.

제방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다. 폭우와 제방경사면과 울퉁불퉁한 강바닥은 그이를 뿔뿔하고 밀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리무영이 달려왔다. 그는 김정숙동지께 우장을 드리려고 나왔다가 예상외의 사태에 맞다들려 곤진상을 알아차렸다.

《정숙동지, 이왕 일이 이렇게 된바엔 어찌겠소나.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정숙동지의 음성을 듣고싶어합니다.》

리무영은 가지고 다니던 공사지휘용 확성기를 그이께 드리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확성기를 받아드시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둘러보시었다. 비내리는 방죽우에, 계단을 이룬 경사면에, 물이 찬 드넓은 강바닥에 사람들이 짝 들어차서 자신을 지켜보고있었다. 경탄과 선망, 존경과 사랑, 기쁨과 환희로 번쩍이는 수천수백쌍의 눈과 눈들... 우줄우줄 파도치듯 설레며 끓는 수천의 머리들과 격동으로 빛나는

얼굴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자꾸 솟아올라 목이 메이시였다. 기쁘시였다. 행복하시였다.

다 찾으신것이다. 원수들에게 빼앗겼던 부모형제, 일가친척들을 다 찾으신것이다. 만리타향 이국땅에 혈혈단신 홀로 남은 소녀이시였던 어머니, 장군님을 따라 혁명에 바친 절대의 충성, 인민에 대한 절대의 사랑, 불같은 헌신, 눈물많은 인정으로 사랑하는 인민을, 겨레를, 민족을 혈육으로 다 찾으신것이였다.

《여러분!》

겨우 첫마디 말씀을 떼시였다. 구름이 낮추 드리운 하늘과 비발이 자욱히 서린 공사장 온 천지가 숨을 죽이고 그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오빠들과 동생들...》

그이의 음성은 마치 사향가의 선률처럼 그리운 정에 젖어 잔잔히 흘렀다.

《우리 인민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 벌써 이 보통강개수공사를 구상하시였습니다. 큰물피해를 입은 평양시민들의 비참한 소식을 신문에서 읽으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습니다. 나라가 해방되면 보통강부터 길들여 평양을 수해로부터 보호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숙동지의 음성은 차츰 담담하고 힘찬 어조를 띠며 류창하게 번져갔다. 장군님께서 새조국건설의 첫공사로 이 공사를 발기하시고 이끄시는 의도에 대하여 그리고 북반부에서의 민주기지건설과 통일된 전 조선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공사가 가지는 거대한 정치적의의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말씀하시고 시민들의 로력적성과를 치하하시였다.

《여러분! 저 할아버지가 흙 한삽 뜨면 그것이 작은것이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가 돌 한개 옮기면 그것이 작은것이 아닙니다. 저 학생이 노래 하나 부르면 그것이 작은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여 큰것을 이룹니다.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새조선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뭉친 힘, 뭉친 지혜, 뭉친 단결 그것이 큰것입니다. 장군님의 두리에 애국과 사랑으로 뭉친 힘- 그것이 새 조선의 불패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가 내리고있습니다. 머지 않아 더 큰 장마가 질것입니다. 모두다 분발합시다. 장마철전으로 공사를 끝냅시다. 민주력량의 기개를 떨칩시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술한 식술 거느린 한가정의 어머니다운 자애와 부드러움, 애정에 찬 고무와 격려가 력력히 어려 봄날의 단비처럼 가슴을 적시는가 하면 불꽃처럼 심장에 떨어져 온 심신을 애국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것이였다.

흥분한 군중속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가 터져올랐다. 우렁찬 환호성이 비속을 뚫고 멀리 봉화산우로 메아리쳐갔다. 파도치는 검은 머리우로 붉은 주먹들, 삽과 곡괭이, 모자와 수건들이 술처럼 솟았다가는 잣고 잣었다는 또 솟구치며 구호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속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김정숙동지의 모범을 따릅시다!》하는 박로인의 웨침도 섞여있었다. 사람들은 비에 흠뻑 젖은 몸들이었으나 해를 가슴에 안은듯 열풍의 환희로 설레였다.

허란주가 이끄는 학생연예대가 방독우에 나타났다.

저 산을 보아라 저 강을 보아라
원췌 왜놈이 짓밟은 상처 흉하다
너도나도 떨쳐나자 김장군두리에 뭉쳐
애국제방 높이 쌓자 우리 힘으로
...

박명도가 읊는 시랑송에 이어 학생연예대의 씩씩하고 우렁찬 합창이 공사장을 흔들며 멀리로 울려가고있었다.

조선로동당 만세!

-이 시를 조선로동당창건 60돐에 드린다-

김만영

가없는 하늘 맑고도 푸른
10월의 이 아침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그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 땅우에 쌓아놓고

창건 예순돐을 맞는것인가

천만가닥 파사로운 해빛이 쏟아져내린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

인민의 마음에 받들린 그대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구나

아, 한없이 숭엄한 그대를 우러러

인민의 심장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는

환희의 웨침

영원한 운명의 선언을

내 세상에 목청껏 터치노라

-조선로동당 만세!

1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성스러운 그대 이름으로

이 노래 시작하노라

잠결에도 꿈결에도

때없이 불러보는 그 이름

우리 생활의 그 하루하루

흐르는 시간과 공간에도 실리고

이 나라 산천초목에도 깃들여

그 어디서 그 무엇을 바라보아도

제일먼저 떠오르는 그 이름

당

조선로동당

그대 이름 자랑스럽게 부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뜻깊은 10월의 이 아침

이 나라 천만군민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의 물줄기들은

오직 한뫼으로만 흐르거니

나도 그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새날의 첫 지점

여기 당중앙청사앞에

경건히 걸음 멈추었노라

천만의 녀과 의지가

하나의 뫼으로 합쳐져 흐르는 곳

우리의 생활과 행복이 설계되고

우리의 혁명이 작전되며

그 빛나는 승리가 마련되는 당중앙

내 여기 걸음 멈추고

한뫼의 우리 당의 붉은기가

푸른 하늘을 짝 채우며

세차게 휘날리는 그 위용을 보나니

우러르노라

저 기발의 위대한 기수

우리 당의 총비서

김정일 동지를 우러르며

내 정히 옷깃 여미고

그이께 삼가 인사를 드리노라

지금 그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셨으리

우리 당이 걸어온 60년

그 승리사를 다 총화하고

가야 할 천만리

그 진군로를 다 열어놓으시고

그이는 못잇을 추억에 잠기셨으리

그 생각 그 추억의 시작도 끝도

수령님 생각, 수령님 추억

우리 장군님

천리로 깊은 그 생각

만리로 넓은 그 추억

저 붉은 기폭에 다 실렸으니

이야기하라 기발이어

이 아침 장엄히 피어나는

노을에 담아 해돋이에 담아

우리 장군님의 그 마음을

누리에 가득 채우라
하늘땅에 가득 채우라

저 기발을 바라보시면
수령님 영상이 떠오르고
그 필력임소리 들으시면
수령님 숨결이 맥박쳐와
한없는 그리움에 가슴젖는
우리 장군님

그이는 온 심신을
추억의 배에 싣고
세월을 거슬러 거슬러
우리의 붉은기가 떠나온 첫 기슭
《E. C》의 열혈심장들이 부르던
한별의 노래를 들으시는가
백두광야에 지동치던 눈보라소리를 들으시는가

붉은기는 수령님
수령님은 붉은기
수령님 붉은기에 승리를 새겨온
그 성스러운 한생의 자욱자욱이
우리 당의 영광에 찬 력사

하여 우리 장군님
자신의 운명도
필생의 과제도
저 붉은기에 실으셨고
우리 당의 기초축성의 첫시기부터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 하시며
수령님 사상으로 전당을 일색화하시였어라

그이는 내 심장에도
마치와 닳과 붓을 새긴 붉은기에
수령님 영상을 모신
소중한 당원증을 없어주시였나니
내 심장엔 뛰고있어라
위대한 그이 나에게 이어주신
붉은기의 혈조
수령님의 피줄기

나의 운명 붉은기여
오늘은 이야기하자
너 봄바람을 타고 오늘로 온것 아니여라
너 순풍을 안고 먼길을 가는것 아니여라

그 어느분이 추켜드시였기에
드세찬 역풍이 불어쳐도
오직 한방향으로만 나뭇기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것이냐
모진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더 높이 솟구쳐오르며
기세차게 기세차게 전진하는것이냐

나는 아노라
똑똑히 보고 심장에 새기었노라
너 인민의 피눈물에 젖어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일으켜세울수 없이
무겁게 무겁게 드리웠던 그날
우리 장군님 네앞에 숙연히 서계시던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그날

눈물이 앞을 가리워
아무것도 볼수 없었던 그때
그이는 바라보시였다
우리 당의 위대한 창건자
김일성 동지의 거룩한 손길이
아직도 파스히 어려있는
우리의 당기를

수령님의 유산인 그 붉은기를
우리 장군님은
백두산총대로 추켜드시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이 세상 운명의 축으로 세우시였다

그 붉은기 한폭에
수령님으로부터 이어받은
우리 당과 우리 혁명무력
우리 공화국과 우리 식 사회주의
인민운명의 무게가 없혀있었다

그 붉은기 한폭에
수령님 이룩하신 위업의 높이와 넓이
주체위업완성의 아득한 높이와 무한한 넓이가
다 담겨져있었거니

뜻깊은 이 아침
붉은기여 너는
또다시 나에게 들려주누나
그날 우리 장군님
네앞에 다지신 그 언약, 그 맹세
력사앞에, 혁명앞에
그리고 후손들앞에
신념으로 웨치시던 불멸의 그 선언

--우리의 붉은기에는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습니다
나는 이 붉은기를 높이 들고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것입니다

오,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우리 장군님 진두에서 추켜든
그대의 기발에선
백두산총대바람이 일어나고
선군의 열풍이 폭풍친다

그대 기발의 펄럭임에선
최고사령부의 야전차발동소리가 울리고
초도의 세찬 파도소리가 들린다
그이 오성산정에 찍어가신
그 거룩한 발자욱소리가 울린다

우리 장군님
빨찌산행군으로 이어가신
전선길의 낮과 밤이 다 깃들어있고
사생결단의 의지와 강인담대한 배짱이
그대 기발에 다 어려있거늘

천리 또 천리 끝없는 전선길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위대한 선군혁명실적으로
조선로동당사를 새롭게 엮으신
우리 당, 우리 혁명무력의 통솔자
우리 당 총비서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그이의 사상이며 신념
그이의 량심이며 심장인
오, 붉은기
우리 당의 붉은기여 너는
그늘진 눈으로는 바라볼수 없고
흐려진 마음으로는 그앞에 설수 없는
신성불가침의것

만약 그 누가
우리의 저 기발을 내리우려 한다면
저 기발을 추켜든
위대한 기수의 그 억센 손에서
번개가 치리
벼락이 치리

누구나?!
번개와 벼락에
감히 손을 델자
이 세상 그 누구나?!

하기에 우리의 붉은기는
전무후무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한점의 색도 바래지 않고

한치의 키도 낮추지 않으며
더 붉어지고
더 기세높이 휘날리는것 아니나

자랑스러워라
당이 창건될 때 높이 든 기치는
영명한 후계자
령도의 계승이 위대할 때에만
곡절없이 혁명의 표대로 영원히 휘날릴수 있음을
생명의 철리로 선언한 조선로동당이여

수령님의 선군사상
선군의 숨결
선군의 의지로
그이는 복잡다단한 이 세계우에서
조선로동당에 무궁무진한 활력을 주고
우리 당을 승승장구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나니

당의 사상은
그이의 사상
당의 령도는
그이의 령도
당의 위엄은
그이의 위엄

오, 그때문에 우리는
수령님의 주체의 기치를 더 높이 휘날리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이라 부른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정일**동지라 부른다

2

당이여
조선로동당이여
그대의 손을 잡고
먼먼 길을 걷는 나날에
우리 가슴속에는 저도 모르게
하나의 숭고한 모습이 새겨졌어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더욱더 밝게 어러오는 그 모습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그 음성 이 가슴에 쟁쟁한 그 모습은
아, 어머니모습

아버지들도 어머니라 부르고
어머니들도 어머니라 부르고
나도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며 자랐건만

알수 없어라 언제부터 그 누가
우리 당을 어머니라 불렀는지
허나 따르며 안기는 그 마음은 하나같고
찾고 부르는 그 목소리도 하나같거니

나는 아노라
이 세상 그 어느 당사를 펼쳐보아도
당을 어머니라 부른
그런 력사
그런 시대
그런 인민은 없었음을

당이어
내 오늘은 그대만이 지닌
어머니의 그 뜻, 그 의미를
이 나라의 평범한 공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말하고싶노라

이 새벽에도
당중앙의 검소한 방에서
수령님 추억에 잠기신 그이
우리 수령님은 그 어느 하루도
인민을 떠나 사신적 없었고
한평생 사랑이 인민이어서
그이의 수령님 추억은
수령님 맡겨주신 인민에 대한 추억

장군님은 조용히 그려보시여라
짧지 않은 한생애
준엄한 혁명의 길을 가고가시며
그리도 정이 깊어진 인민들
때로 국경넘어 그 어디 먼길 가도
더더욱 그리움이 사무쳐
꿈결에도 안겨오는 사랑스러운 그 모습들

장군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사람 또 한사람 수천수만사람
들어서고 또 들어서노라
만나면 저절로 웃음이 피고
시름 가셔지고 즐거워지시는 인민들

그 언제인가
눈덮인 전호가에서 야전식사를 나눌 때
불들을 깔아드리던 그 꼬마병사도
이제는 릉름한 병사로 자랐으리
멀리 바다가 감나무초소의 녀병사들은
탐스럽게 익는 감을 아침저녁 바라보며
기다리고있으리 기다리고있으리

삼지연 새 거리에서 만났던 돌격대대장은
삼수발전소의 산악같은 언제우에 올라서서

평양하늘을 바라보고
미루벌의 포전에서 만났던 근면한 그 농민은
실하게 익은 밭벼단을 안고 웃음지으리

친히 이름 지어주신
대흥단체대병사의 딸 홍단이
비전향장기수 영웅의 딸 축복이...
무럭무럭 커가는 귀여운 그 모습들이
텔레비죤화면에 나오는 시간이면
일손도 놓으시고 기쁨 겨워 보시는 장군님

그 정, 그 마음을 안으시고
초소의 아들딸소식을 전해주시려
그들의 고향집문을 두드린적은 그 얼마며
병사의 부모소식 전해주시며
머나먼 전방의 전사들은 몇몇이나 만나셨던가

이른새벽 깊은 밤
전선길의 야전차안에서도
문득 어느 산골 할머니의
백둠상을 보낼 날도 새겨보시고
전사한 영웅가족의 안부도 물으시는분

이 아침 이 짧은 시간에
그 모습들을 다 그려보시고 다 안아보시는 그이
이 땅의 거리와 마을
심산유곡의 마지막집까지
그이는 마음속으로 다 찾아보시고
사랑하는 인민을 다 만나보시여라

아, 수수천년 인류는
곡절많은 력사를 수놓아오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전설로 시로 엮어왔던가

나는 모르노라
우리 장군님처럼
슬하에 천만인민을 아들딸로 거느리고
그렇게 천만품을 들여
영웅으로 혁명가로 운명의 주인으로
훌륭히 키워 내세우고 삶을 빛내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위인이
고금동서의 력사 그 어디에 있었는지

어머니가 되기도 쉽지 않지만
어머니의 본분을 다하기란
백배, 천배로 더 힘든것
장군님 인민 위한 사랑의 길에서
저 하늘에 떠있던 달과 별은 등불이였고
이름없는 산기슭은 숙영지였고 천막이었다

어머니는 곧 사랑
사랑은 곧 어머니라 하였더라
사랑은 그 어떤 대가를 바랍이 없이
심장을 다 주는것이라 하였더라

장군님은 위대한 심장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불태우시는
인간사랑의 어머니
인민사랑의 태양

허나 그이는 그리도 겸허하시여
자신은 인민의 총복이라 하시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더 잘 먹이고
더 멋있게 내세우겠는가
곶곶에도 그 생각에 깊은 잠을 못드시는분

그래서가 아니었던가
어느해 그 어느 전선길가에서 만난
마을의 한 로인이
장군님의 손을 부여잡고
스스럼없이 울린 그 말쑼을
오늘까지 두고두고 잊지 못해하시는데

-저는 해방전에 자식 아홉을 낳았다가
여덟을 죽이고 겨우 하나만 타작하였습니다
한집안 애비구실도 힘든데
장군님께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돌보자니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좀 못먹고 힘들어도
나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장군님은 종시
야전차안의 쪽잠마저 들지 못하시였거니
새겨두라 산천이여 하늘땅이여
그 로인을 잊지 못하시며
우리 장군님 하사던 그 말쑼

-나는 그때 진짜 인민의 인사를 받아보았습니다
남의 집 처마밑에서 구결한 흰쌀밥이
어찌 제집의 보리밥보다 달겠습니까
나는 우리 인민이 망국노가 되지 않도록
사생결단 선군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여
이 나라의 아버지들이여
우리모두는 자신의 운명과 자식들의 미래까지
장군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사람들

생각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얼마나 장군님의 어깨짐 덜어드렸는가를
아, 하염없이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샘솟아 흐르누나

내 눈물젖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어느새 노을이 물들었는가
마치도 저 붉은 당기가 펼쳐놓은듯
이 시각 장군님은 창문을 여시고
그 자애로운 눈길로
이 아들을 굶어보고계시는듯

저분이시다
저분이 우리 붉은기아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자신의 심장의 구호
억척불변의 그 신념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는분

하여 그이는
인간으로서의 희망도 소원도
령도자로서의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그 심장의 구호에 복종시키며
당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고
정권을 이끄시는분

그런분이시기에
현지지도의 분망한 길에서도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을 만나시면
나와 마음도 맞고 뜻도 맞는다고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누고싶어하시더라

그런분이시기에
인민의 리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하고
인민을 존중할줄 모르는 그런 행위는
제일 미워하고 제일 타매하시며
추호의 용서를 모르시여라

그 어느 바다가의 먼 고장에서
소박한 공민들을 호령하고 욱되게 하였다는
그 보고를 심중히 받으신 장군님
그 넓지 않은 방에는
엄엄한 공기가 짙 차흐르고
일군들은 송구히 서있었어라

노하시여 격하시여
찌렁찌렁 울리는 장군님의 목소리
-우리 수령님이 한평생
하늘로 받드신 인민인데
동무가 뭐길래 그우에 군림하여
호령하고 하대하는가

창밖에는 번쩍 번개가 일고

하늘에서도 마음에서도 우뢰치는 소리
억수로 쏟아지는 비소리 비소리...
이제 그 어떤 무거운 책벌이 내릴지
방안에는 침묵만이 천군이런듯

마음을 진정 못하시여
천천히 방안을 오가시던 장군님
-아무래도 내가
그 인민들에게 사죄하러 가야겠소
이렇게는 마음의 안정도 얻을수 없거니와
잠은 더우기 잘수가 없소

일군들은 장군님을 만류하며
우리들이 가겠다고
가시더라도 비뚤은 다음에 가지자고
절절한 간청은 눈물에 젖었는데
말없이 야전차에 오르시는 장군님

야전차는 달렸다
차창에는 줄줄이
억장구름이 무너져내리는 비줄기 비줄기...
잠 못드는 인민의 그 모습 그려보시며
장군님 눈가에 어리는 뜨거운것이어

묻지 말라 오, 묻지 말라
그날 밤새워 가신 길
몇백리인지 몇천리인지
장군님을 맞이한 마을의 집집에선
눈물이 터지고
마음의 하늘에는 천만줄기 해빛이 내리였거니

장군님은 그렇듯 인민에게 마음을 다 주시고
천만인민의 마음을 받으시는분
장군님의 그 모습을 우러르는 내 마음에
회고록의 첫 페이지에 아로새긴 혁명의 금언
수령님의 거룩한 음성이 울려오누나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

아, 수령님 그 지론의 완벽한 계승자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관철자
세월을 이어 대를 이어 완성하고 받들어가시며
백전백승의 우리 당을 이끄시는
김정일동지!

내 달리는 말할수 없구나
당을 어머니라 부르는
그 심원한 의미와 뜻

내 오늘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웨치노라
인민사랑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우리 장군님
그이가 그이가 어머니 우리 당

아, 우리는 하나의 대가정
김정일식솔
하나같은 천만군민의 마음
하나같은 천만군민의 목소리에
내 마음 내 목소리도 합쳐
부르고 또 부르노라
장군님이시여
위대한 어머니당이여

3

오, 당이어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여
그대 이름으로 시작한 이 노래
불러도 불러도 끝이 없구나

하늘을 보면
끝간데 없는 저 하늘에
그대의 손길이 어려있고
땅을 보면
이 땅 그 어디에나
그대의 숨결은
거창한 시대를 안고 호흡하고있어라

그 손길
그 숨결을
한가슴에 다 안아보고싶어
내 다시 숭엄한 마음으로
여기 당중앙청사우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우러르니

우리의 당기에 다 어려있구나
이 땅우에 일떠세운
무수한 창조물들과 기념비들이
한쪽의 저 기발에선
한눈으로 다 바라볼수 없는 그 장엄한 전변들을
다 안아보고 다 들을수 있어라

이 아침
우리 장군님 추억중의 추억은
수령님 물려주신 총대에 대한 추억
그것은 백두산에서부터
총대와 뿔뿔이 뿔수 없는 인연을 맺고
총대를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때문이던가

사람들이여

내 오늘은 이야기하련다
장군님과 총대사이엔
사연도 전설도 많지만
전설아닌 전설을 이야기하련다

그 어느해 깊은 밤
우리 장군님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에서
하나의 부피 큰 문건을 마주하시고
일군들과 함께 계셨어라

벌써 몇번째 보셨는지
문건을 번질 때마다
가슴아픈 사연들이
줄줄이 적혀있었거니

전력과 원료사정으로
그 어느 강철공장이 벗어나고
그 어느 탄전이 침수됐다는것
때아닌 무더기비로
마을과 들이 물에 잠겼다는것...

가슴쓰린 그 정상들을
눈앞에 보시는듯
정적이 깃든 방 안에서
무거운 마음을 안으신채
깊은 사색의 세계를 달리시던 그이

문득 최고사령부 작전도우에
화살표를 그으시던
그 붉은색연필을 드시고
조용히 문건에 그려넣으셨었다
한자루의 총대를

순간
정적이 깃들었던 방안에선
빨찌산장군의 목소리가
백두의 우뢰소리인양 울려퍼나니

-총대를 믿으라
우리의 총대는 끝내 뚫고나갈것이다
고난도 시련도
그 어떤 역경도

그러시고는
사나운 광풍속에서
휘여넘어지려는 혁명의 키를
선군의 억센 팔로 부여잡고
조선혁명에 장엄한 구령을 내리시였어라

-가자

총대를 앞세우고
가자
오직 선군혁명의 한길로!

아, 그날 우리 장군님
문건에 그려넣으신것이
한자루의 총대뿐이었던가
천만심장에 천만자루의 총대
선군의 사상과 신념을 안겨주시지 않았던가

지금은 세월의 언덕너머 멀리 흘러갔어도
그날 우리 장군님 지펴주신 선군의 불길이
우리 가슴속에서 활활 불타올라
우리는 온갖 시련을 과감히 눌러덜고
용약 력사의 승리자로 일떠설수 있었거니

총대아래서 태어난
강계정신과 라남의 봉화
수령결사옹위투사들
우주를 향해 날아간 인공지구위성...

정녕 이 땅우에 펼쳐진
그 모든 기적과 전변과 전설이
바로 다름아닌 총대에서 태어나
총대와 더불어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나니

그래서 우리 장군님
총대만 보면 힘이 난다고
아무리 힘들고 피곤했다가도
총대만 보면
금시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고
신심이 용솟음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우리 장군님
운명으로 틀어쥐신 총대
위대한 선군정치는
천지개벽의 보검
창조만능의 보검
정의와 평화, 인민과 조국수호의 보검

그 고귀한 하나의 진리가
우리 인민을 승리자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우리 군대를 자주적인 근위병으로
혁명의 주력군의 핵심으로
력사앞에 새롭게 등장시켰다

군대이자 당이고
군대이자 인민이며 조국
군대이자 사회주의제도임을
펼 펼 휘날리는 최고사령관기아래서

우리는 스스로 절감했나니

고난도 지나가면 달다 했더라
패배주의자들에게엔 시련이 쓰디쓴 고배이련만
우리는 우리가 화와 역경을 겪고 이겨낸
그 나날을 돌이켜보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거니

이것은
승리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가슴뿌듯한 희열
혁명가의 고상한 삶의 진미

우리는 잊지 않노라
비바람 눈바람 가리지 않고
천리전선길을 걷고걸으며
우리 손을 따듯이 잡아
선군승리자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그 손길을 잊지 않노라
아버이의 그 손길을 잊지 않노라

위대한 그 손길로
우리앞에 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시고
강성대국의 환희를 펼쳐놓으시며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려명을 불러오신
우리 장군님

어느덧 당중앙창가에 비졌던
새벽노을은 사라지고
태양은 솟아
천만가닥 해살을 가득 뿌리여라

이제 그이는
당중앙정문을 나서시여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시며
군대와 인민이 기다리는
환희의 축전장으로 나가시리

축전장으로 나가시여
백두의 근엄한 모습으로
한손을 높이 들어
자신이 품들여 키우신
이 세상 가장 강대한 군대
이 세상 가장 불굴한 인민들의 환호에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리

사열하시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여
축하를 받으시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여
영광을 받으시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여

좋다
우리 당의 붉은 당기여
장군님의 축복을 안고
더 세차게 필력이라
정의롭고 참된 그 모든것을 이 땅에 가득
안아오며
우리 앞길에 영원히 휘날리라

좋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이
전도양양하여 좋다
위대한 선군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어 더욱 좋다

그 어떤 힘도
당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리
설사 하늘에서
무수한 별을 다 떼어놓을수 있다 해도
당의 손길을 목숨처럼 귀고있는
우리 운명의 손을 절대로 떼내지 못하리

저 하늘에 태양이 있는 한
우주세계는 영원하듯이
이 땅우에 당기발이 휘날리고
우리의 총대가 번쩍이는 한
인민의 자주위업은 백전백승하리라

당이여
이것이
그대 60년사의 총화
인류의 하늘가에 금문자로 새긴
그대 60년의 숭고한 진리

감사를 드리노라
반만년 민족사에
우리 조국을 존엄의 대강국으로
력사의 한복판에 우뚝 세우고
우리 인민을 자랑높이 세상에 떨쳐준
조선로동당에 영광을 드리노라

영광이 파도치는 이 강산에
기쁘시여
너무도 만족하시여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그날에 하시던
우리 당의 창건자
아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승엄히 울려퍼지나니

-로동당시대는 오늘도 흥하지만
태일은 더욱더 흥하고 번영할것입니다
조선로동당 만세는
김정일 동지 만세입니다

부러워하라, 세계여
장장 60년을
창건자의 이름으로 높이 불리우며
세기와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부러워하라

60년세월이 다시 오고
600년, 6천년세월이 다시 가도
조선로동당은 우리가 안겨살
우리 인민의 영원한 어머니

조선을 승리로 인도할
우리 혁명의 영원한 향도자

아, 만세가 올린다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른다
10월의 맑은 창공에 필력이는 로동당기발아래
자주적군민이 터치는 환호성이
강산을 진감한다
천지를 뒤흔친다

영원한 **김일성** 동지의 당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김정일** 동지 만세!

주체94. 10. 5

혁명설화

깊이 새겨주신 민족적자존심

주체35(1946)년 3월 하순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 한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수수한 결상에 앉으시어 교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먼저 교원들과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사업실태를 료해하시고 어려운 조건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수고에 대하여 헤아려주신 후 교육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말씀을 주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지금 교육사업에서 나서고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고 하시면서 교육의 민주화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를 하루빨리 가셔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일부 교원들이 자연과학과목교과서 같은것이야 일제때의것을 그대로 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할수 있는데 그 내용을 톡톡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례를 들어 수학의 응용문제 같은데서도 일제놈들이 우리 인민을 깔보는 내용이 들어있을수 있다고, 그러니 새 교과서가 나오기만 기다리고있을것이 아니라 당장은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써가지고 가르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었다.

진정한 자주독립국가의 참된 교육강령을 그것도 가장 명백하면서 알기 쉽게 받아안게 된 교원들의 가슴은 솟구치는 걱정으로 세차게 끓뛰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해방된 새 조선을 주체가 강하고 민족의 향취가 차넘치는

위대한 나라로 빛내일 숭고한 뜻을 안으시고 학교를 찾으신 김정숙동지이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새 조국건설로선을 깊이있게 알려주고 이제부터 조선사람은 일제의 식민지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제 나라를 가진 독립국가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할줄 아는 정신, 자기 힘을 믿는 마음을 굳세게 키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을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그 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문화에 대하여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교원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주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위대한 수령님 따라 손에 무장을 잡고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수령님께서 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그 어려운 때에도 밀령의 우등불가에서 유격대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산천과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슬기로운 우리 인민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어머니 우리 당

류동호

해 빛

해가 솟아
이 땅에 내리는 해빛이던가
나의 마음에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따뜻이 비쳐드는 해빛, 해빛이 있어라

빛이라도
정이 있는 그 해빛
사랑이 있는 그 해빛
당이어 그대 아닌 그 누가
나에게 안겨주라

나의 집 창문을 향해
눈바람 불어오고 불구름 밀려올 때
전선길 달리는 야전차의 그 불빛에 실려
내 마음에 따뜻이 비쳐들던 그 해빛

그 빛이 아니라면
나는 집없는 고아
한지를 헤매이다 눈속에 묻혔으리
그 빛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국을 빼앗긴 노예
어깨우엔 멍에가 지워졌으리
당이어 그대의 빛발이

생명선이였기에
우리는 모진 시련도 웃으며 헤친
신념의 강자로 억세게 자랐고
사나운 역풍도 맞받아 이긴 승리자로
세상을 굽어보며 사나니

하늘이 있으면 해빛이 있던가
땅이 있으면 보금자리가 있던가
당이 있어야 해빛이 있고
당이 있어야 보금자리가 있다는것을
나는 시련의 날에 눈보라를 헤치며
절감했노라, 사무치게 절감했노라

아 해빛, 해빛
우리 운명을 다 말아
꽃피워주고 빛내여주는
김정일장군님은 이 땅의 태양
그 정으로 뜨겁고
그 사랑으로 은혜로운
우리 당의 해빛이여

해빛이 비친다
우리의 희망, 우리와 미래를 축복하며
내 조국의 밝고밝은 앞길에
해빛이 눈부시다

어머니 우리 당이여

내 나이들고 철이 들어
세상을 보는 눈도 마음도 커지니
당이어 우리 어머니당이여
그대를 부르는 내 목소리 작게만 들리고
그대를 우러르는 내 마음 젖어만드누나

내 눈동자에 비친
어머니 우리 당의 모습은
정에 겹고 사랑에 넘친

그 모습만이 아니여라

세월의 사나운 눈비바람 다 막아줄 뎌
그 사랑이 따뜻해서 더 깊이 안겨들던 품
한치라도 길을 헛들가봐 아픈 때를 들적에도
눈물겹게 더 꼭 잡고 따르던 그 손에
총을 잡은 우리 어머니

마치와 낫과 붓으로 받들어올린

인민의 세상에 나의 집을 세워주고
보람찬 행복의 노래를 안겨주었던만
그 사랑으로만은 삶의 요람 지켜줄수 없고
우리 사회주의조국을 빛내줄수 없어
어머니당은 총을 잡아야 했구나

이 땅우의 사랑을 위하여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진 시련 두렵없이 헤쳐나가는
그 헌신을 누구도 대신 못하기에
총을 잡고 풍찬로숙의 전선길에 나선
우리 어머니, 우리 당

천만고생 그 누가 모른다 해도
사생결단의 첩첩준령을
웃음으로 헤쳐 넘고넘으며
끝없이 정을 주는 그 마음
그 진정이 고마와 눈물지으며
인민이 심장을 맡긴 운명의 품이여

내 너무 쉽게 불러왔구나
어머니 우리 당이라고
그 뜻은 참으로 깊고깊어
그렇게 부를수 없으리
이 땅의 전선길에 심장을 대보기 전에는

이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
이 나라 모든 아들딸들의 행복
길이 지켜주고 길이 꽃피워주는
우리 장군님의 총대사랑 알기 전에는
선군령장의 보복에 발걸음을 맞추기 전에는
당을 우리 어머니라 부를수 없으리

그 사랑을 고여 천만의 진심을 받고
그 사랑을 다해 천하를 얻은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선군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어머니이시여
세상에 가장 강대한 조선로동당이여

사랑하노라
그대 휘날리는 필승의 붉은기를
그대 세기우에 높이 쌓은 불멸의 총대위업
그대 가꾸는 선군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심장을 다 바쳐 사랑하노라

아, 어머니
천만운명의 위대한 어머니
우리 당은 총을 놓지 않으리
세월이 흐르고 흘러도
우리 당은 선군의 한길을 끝까지 가고 또 가리
사랑하기에, 인민을 사랑하기에
어머니이기에, 인민의 어머니이기에

나는 선군시대 당원이다

이른새벽 새날의 첫걸음을 땀 때면
저 멀리 해쫓는 전선길로
그리움안고 달려가는 내 마음속에
불덩이처럼 솟구치는 심장의 부름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나의 행복 나의 보람
이 부름에 다 있어
하루를 총화하는
량심의 일기장에서도 울리고
잠결에도 꿈결에도 못잊는
내 삶의 메아리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내 삶의 좌우명과 같다
내 삶의 존재와도 같다
고귀한 그 이름 지녀
우리 당의 뜻으로 숨결은 벽차게 뛰고
심장은 불타올라
선군대오의 선봉에서 내닫게 하거니

우리 당의 빛나는 년대기에는
한별의 노래 높이 부르며
당원의 좌표를 정해준 투사들도 있고
피젖은 당원증으로 말없이
당원의 돌격로를 가리키는 육탄영웅도 있다

오늘도 참된 삶의 향기를 풍겨주며
 내앞에 서있다, 나를 부르고있다
 천리마시대의 화불이 된 그 당원들이
 우리 당의 부름에 심장을 다 바친
 70년대의 열혈충신들이

오, 고귀하다 신성하다
 그 넋 그 신념을 이어받은 세대
 우리 장군님 선군혁명동지라 불러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피줄기로 고통치는 심장을
 결사옹위총대에 불로 재운
 선군시대 조선로동당원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저 하나의 안락과 일신의 공명을
 추호의 용서가 없다
 좋은 날엔 길동무가 되어 한길을 가다가
 준엄한 날엔 갈라지는 그런 배신은

수필

영원히 발동소리 울린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오르면 평양시가 한눈에
 안겨오는데 그 장쾌감이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열은 운무속에 펼쳐진 드넓은 평양시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주체사상탑과 5월1일경기장, 고려호텔과 문수
 거리... 층층 키돋움하며 솟아오른 고층건물들과
 유원지들, 모란봉을 유유히 감돌아 흐르는 정든
 대동강.

볼수록 한쪽의 그림처럼 황홀하고 아름답다.

여기에 서서 평양시를 부감한다면 누구나 다
 《야, 야》 하는 탄성이 터져오른다.

한편 수도에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을 지켜선듯
 말없이 려사릉에 묵묵히 서있는 항일혁명선렬들
 의 동상을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을 금할수 없게
 한다.

며칠전 그날에도 그러했다.

전연초소에서 온듯싶은 인민군군인들이 혁명렬

오직 티없는 량심과 의리만을
 그 이름우에 묵숨같이 엮고 산다

어머니당이어
 그대앞에 내 언제나
 진실하리 열렬하리
 그대의 명령 그대의 부름에
 내 첫번째 탄알이 되어 날아가리
 그대 인도하는 강성대국 승리봉에
 그대의 붉은 기발 휘날릴 첫 기수가 되리

우리 당을 따르는 천만리길에
 오늘처럼 래일도 한목소리로
 땃땃이 금지높이 웨치고 웨칠
 영원한 심장의 선서여
 -나는 선군시대당원이다

김정일장군의 선군혁명전사다!

주체94. 9. 28

김광수

사릉에 올라 꽃다발을 증정하고나서 평양시가를
 바라보며 경탄어린 환호를 연발하였다.

그러던중 한 어린 전사가 주체의 최고성지 금
 수산기념궁전을 우러르며 뜻깊은 말을 하였다

《분대장동지, 저기 금수산기념궁전을 보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시라도 승용차에 오르시여
 현지도도를 떠나실것만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금수산기념궁전을 바라보니 정말
 위대한 수령님께서 금시라도 승용차에 오르시여
 현지도도를 떠나실듯싶은 생각이 들었다.

혁명렬사릉에서 금수산기념궁전쪽을 향해 선
 항일혁명선렬들 또한 경건한 마음안고 아버지
 수령님을 바라워드리는데...

마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깊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한평생이 생각되어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든다.

참말로 돌이켜보면 조국땅 그 어디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의 발자취가 어리지 않은 곳이

있으랴.

조국땅 방방곡곡 그 어디를 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한 현 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 길을 달리는 승용차는 눈이 오는 계절이면 흰눈에, 비가 오는 계절이면 비에 늘 젖어있었다.

민주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나 생을 마치시는 그날 까지도 그랬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 수령님의 승용차의 발동소리 이 강산 그 어디나 깊은 여운으로 새겨져 메아리쳐 온다.

그처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그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아직 력사가 모르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혁명사에 찬란히 기록한 불멸의 한생이였다.

기쁨도 슬픔도 오직 인민들과 함께 나누시였으며 이 길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던 우리 수령님.

북만원정의 어느날, 로야령의 깊은 산속 외로운 귀틀집에서 해빛을 보지 못하고 숨어사는 로인들을 보시고 젊은 조선의 아들들의 죄가 크다고 그리도 가슴아파하신 어버이수령님.

전쟁직후의 어느날, 한 산골마을에 들리시여 그곳 농민들이 강냉이밥을 먹는것을 보시고는 아직 농민들이 흰쌀밥을 먹지 못하는걸 보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

소문없이 로동자가정을 찾으시여 가마뚜껑을 손수 열어보시고 학교가던 아이들의 밥팩을 열어보시던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산도 떠옮기시고 바다도 밀어내시였다. 이 땅의 첫 새벽을 누구보다 먼저 맞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고 봄날의 들길에서 첫 봄비를 맞으신분도 수령님이시였으며 첫눈에 첫 발자국을 내신분도 오직 그이이시였다.

하늘땅도 인민을 위하여 있으랴!

두메의 실개천도 인민을 위하여 흐르랴!

이것이 한평생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투쟁과 창조에 넘친 기나긴 나날 한순간도 쉬임없이 민족의 념원으로부터 개인의 생활과 소망에 이르기까지 다 헤아려주신 위대한 수령님.

하기에 우리는 숭엄한 추억속에 영원히 새겨진

일화들을 잊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숙영지의 밤.

늦도록 주무실줄 모르는 어버이수령님께 전령병은 밤이 깊었다고 말씀올렸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암흑속에 잠긴 조선의 산밭을 그려보시며 조국을 해방한 다음에 꼭 쉬자고 말씀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최고사령부의 밤이였다.

작전지도앞에서 떠나실줄 모르시는 우리 수령님께 부관은 밤이 깊었으니 쉬셔야겠다고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부관을 돌아보시며 원췌 미제를 쳐부신 전승의 그날에 꼭 쉬자고 말씀하시였다.

전승의 그날에는 인민들이 다 잘살게 된 다음에 꼭 쉬자고, 그후에는 조국이 통일된 후에 꼭 쉬자고 간곡히 말씀하시며 휴식을 미루어만 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생각할수록 어버이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한평생이 떠올라 가슴뜨거워지고 목이 메여온다.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민위천》의 한평생 언제나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신 인민중시, 인민존대의 한평생이였다.

하기에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는것이다.

우리 인민의 그 절절한 념원을 헤아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해주시였다.

우리 조국의 력사우에,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은 영생불멸하실것이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금시라도 집앞에서 멈춰설듯싶어 잠결에도 일어나 귀를 기울이는 우리 인민, 이 시각도 산넘고 언덕넘어 그이의 승용차발동소리 금시라도 들려올듯싶어 길을 쫓고 또 쫓며 별무리 흐르는 새벽하늘을 우러르는 우리 인민.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을 영생의 모습.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받들어갈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들려오는 발동소리, 그 발동소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당부로 끝없이, 끝없이 들려온다.

총대우에 날리는 당기

-이 시를 조선로동당창건 60돐에 삼가 드린다-

신병강

주체의 광휘로운 미래가 창창히 열린
10월의 맑은 하늘가에
60성상, 백승의 당사를 아로새긴
우리의 당기가 장엄히 나뭇긴다

이 행성의 여러곳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진지도
어언 10여년-
하지만 기폭이어, 조선로동당기여!
그대 당기만은
그 무엇에 받들렸기에,
세기의 언덕을 넘어
변색도 탈색도 없이
더 붉게 더 기세차게 펄럭이는것인가

정녕 쉬이 말할수 없는
그 불패의 진리를 노래하고자
내 종군길 이어갔노라
우리 당이 태를 묻은 백두산
붉은기 날리는 항일의 친구들을 지나
당중앙청사우에 승엄히 나뭇기는
그대 성스런 당기를 바라보며...

총대의 이 심장
당기와 함께 불태우며
내 가슴터쳐 노래하노라
장장 반세기를 넘는 60년세월
백승의 한길로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백두산위인들의 그 거룩한 업적
그 한돌기, 한돌기에 새겨진 천만로고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1

당기여!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새겨안고
세기의 창공높이 휘날리는 주체의 당기
바라볼수록 승엄한 마음안고
10월의 뜻깊은 이날에
내 그대와 조용히 속삭이나니

감회도 추억도 새로와라
우리 수령님 높이 추켜드신
《ㄷ. ㄷ》의 기발아래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이름으로 태어나

그 얼마나 준엄한 력사의 폭풍을 헤쳐왔더냐
그 얼마나 승리로 빛나는 년륜을 새겨왔더냐

총대로 개척된 혁명
총대로 완수해야겠기에
총대를 력사의 축으로
총대를 앞세워 력사의 난국을 헤쳐온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총대정치사
총대장군사
총대승리사

나는 저 멀리 흘러간 병사시절
그대 붉은 당기폭아래서
수령님의 존귀한 영상이 빛나는
붉은 당원증 소중히 받아안고
궁지높이 나의 당원증번호를 외우며
그대 당기앞에 엄숙히 충성의 선서를 다진
한 당원

그대 기폭은 이 가슴에 소용돌이치는
시의 용암의 분화구를 터쳐주며
그대 거세인 펄럭임소리로 다 말해주는가
총대로 빛나는 그대 당 력사를

여기에 있다
우리 장군님 전선시찰길에서 돌아오시다
저 당중앙청사우에 나뭇기는
그대 당기를 바라보시며 하신
우리 당 승리의 력사가 함축된
고귀한 그 말씀

-우리 당기발은 총대승리의 기발이다
수령님께서는 장구한 기간 총대를 앞세워
우리 당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며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편향도 없었다

그렇더라
세계혁명운동사를 돌이켜보면
한다 하는 력대정치가들도
실책과 오류없이 정치를 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그것이 몇해 몇달이라도
집권기간 때로 실책을 범하여

혁명앞에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준
정치가들은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이 세상에 없다
우리 수령님처럼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총대중시로선으로
당을 승리로 령도해오신분

없다
그처럼 복잡다단한
세계정치과동속에서도
당의 혁명적성격과 본분을 잃지 않고
단 한번 실수도 우여곡절도 없이
조선혁명의 참모부, 향도적기치로
주체의 당의 리념을 고수하고
총대로 그 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만방에 펼쳐오신분

이야기하라
백두의 천고밀림이여!
붉은기 나뭇기던 너 항일의 전구마다에서
우리 수령님 당창건의 기반을 마련하시며
잠 못 드신 그 허구한 밤과 밤들
혈전만리에 찍어가신 그 피어린 자욱을
너 어느 밀림속 귀틀집에 고이 간직했느냐
너 어느 밀림의 광야에 새겨져있느냐

이야기하라
조국해방후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의 로고가 깃든
당창건사적관 옛 2층집이여!
항일의 20성상 쌓이신 피로푸실새없이
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안으시고
투사들과 책상을 마주하시고
밤길도록 토의를 거듭하시며
지새우신 밤은 또 얼마이더냐

찾아오는 수많은 정계인사들과 대표들
소탈하게 의논도 해주시고 풀어도 주시는
수령님의 하해같은 덕망과 인품앞에
한뼉 반공으로 머리흰 백발의 인사도 눈물을
쏟던
그 못잊을 감격의 순간들은
너 어느 휴계실,
너 어느 복도의 붉은 주단에 깃들어있느냐

귀기울이면
그처럼 기다리던 창당의 날이 와서
우리 당 창건을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던
30대 젊으신 우리 수령님의
그 힘있고 우렁우렁한 음성

저 회의실 연탁의 마이크로
저 햇빛넘치는 창가로
오늘도 찌렁찌렁 울려나오는듯

아,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력사에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위인중의 위인
장군중의 장군이시다!
그날의 젊으신 수령님 초상을 우러러
내 눈물을 머금고 터치는 뜨거운 격정이어!

한낮 뚫던 사람들도 다 가고
귀뚜라미 울던 10월의 그 가을밤
당창건의 기쁨 누를길 없으시여
우리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조용히 정원길을 거닐고계시었다
마치 백두산시절 달밝은 밀림속을 거니시듯
끝없는 담소를 나누시며...

-얼마나 좋은 밤이요
이렇게 당을 창건하고보니
이날을 보지 못하고 간 전우들 생각에
또 잠이 오지 않누만
김혁이, 차광수, 리광, 오중홉...
산에서 술한 고생들을 하고
너무나 일찍 잤단 말이야...

-장군님, 저도 역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백설광야에서 희생된 전우들의 시신우에
붉은기를 얹어주며 울리던 그 조총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찢으며 들려오는것 같습니다

아, 우리 수령님
더 말씀 잊지 못하고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저 멀리 백두산쪽을 향해 바라보실 때
반짝이던 못별들도
이 순간엔 목매여 빛을 흐리는가

물노니, 혁명은 이렇게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만 이루어지던가!
붉은기는 이렇게 피로써만 물들어지는가!
한없는 동지애의 세계로 충만된
위대한 두분의 고결한 의리앞에 눈굽을 적시며
내 오늘 우리 수령님 또다시 헤쳐가신
준엄한 전화의 그날에로 마음달리노니

말하라, 복변의 자강땅이여!
우리 당 력사의 갈피에
잊을수 없는 추억의 지점으로 새겨진
너 고산진과 연풍, 향하리여!

우리 장군님 전선시찰길에 들리셨던
너의 추억은 얼마나 뜨거웠고

남기신 말씀은 또 얼마나 가슴을 치는가

사연많은 향하리의 처마낮은 동기와집
저 작은 두리반을 앞에 놓으시고
타래치는 내굴연기에 쓰린 눈을 비비시며
우리 당 제3차전원회의의 보고문을 쓰시던
그날의 수령님 생각에
장군님 오래도록 말씀 없으시고

그날에 당전원회의가 열렸던
회덕골의 습기찬 강도속 회의장과 침실...
수령님 리용하시던 차거운 철침대를
조용히 끌어만지시며 눈시를 적시시던
장군님 마음이어!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당의 강화를 위하여
전화의 그날에도 종파놈들과 싸우시며
얼마나 큰 로고를 바치셨는가를
아마 새 세대 군지휘성원들은 다 모를거야
그들모두가 수령님의 전시로정을 밝게 하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가슴아픈
전시로정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말이요

그렇다, 우리 혁명앞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종파!
너는 육체의 악성종양과도 같이
아스팔트짚을 뚫고나오는 독초와도 같이
그 얼마나 우리 수령님의 마음을 괴롭혔고
우리 당 활동과 전진을 제동했던가

만경대가문에 머리흰 사람이 없었는데
나만은 희여졌다고
그것은 바로 종파놈들때문이라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말씀
일찌기 장군님 가슴에 아프게 서려들어
유년시절부터 종파란 말만 들으시여도
분노에 치를 떠시던 그이이시여서
앞으로 우리 당을 종파없는 당,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피만이 흐르는
일심단결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불변역칙의 신념을 간직하셨던가

내 세월을 거슬러
그이 한몸 성새, 방패되시여
우리 당을 옹위한 력사의 그 지점들을
마음속으로 걸어보나니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정면으로 당을 도전해나서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행군로를
잡초속에 묻어보려 책동할 때
그이 붉은기 높이 개척하신
백두산에로의 혁명전적지답사행군로여!

오, 그날의 그 업적
오늘도 장병들 목청합쳐 부르는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말하고
혁명의 성지에 높이 솟아오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말한다

그날의 그 업적
근위 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의 정문가에 솟은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힘찬 구호가 다 말하고
신념의 산악으로 솟은
최전연 대덕산 천연바위에 새겨진
《일당백》 구호가 다 말해주다

-나는 그때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 수령님을 보위하고
우리 당의 일심단결을 지켜야겠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에서였습니다

오, 숭고한 그 뜻으로
그이는 력사상 처음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셨거니
그날을 위해 1970년대
꺼질줄 모르던 백두밀림의 불빛이어!

그이 위대한 사색의 심혼이 비끼었던
무포의 님시터여!
그이 매일같이 찾고 찾으시던 항일의 친구들과
그이 더 자주 오르내리시던
백두산해돋이길이어!

누구보다 인민군대일군들은
당중앙의 지도에 성실해야 한다고
당중앙에서 방아쇠를 당기면
인민군대일군들은
세상을 들었다놓을수 있게
요란한 총성을 울려야 한다고
총대의 본분과 사명을 명시해주신분

당의 위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는것을 믿는다고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선포도
바로 인민군대를 믿고 하려 한다는
뜨거운 심중의 진정을 터치신분

정녕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백두산빨찌산의 결출한 아들이신 그이
더 높이 추켜드신 총대가 있어

우리 당 력사에 일대 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와 1980년대여!
고립압살의 포위환을 쳐갈기며
치열한 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펼친
1990년대와 2000년대여!

하기에 그이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그날에
수백만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인민군 한 지휘성원은
그이께 삼가 제의를 드리였다
가장 뜻깊은 이날에
우리 장병들이 대동강반에서
경축의 축포를 쏘울릴 준비를 하였다고

그러자 크게 놀라시는 장군님
저으기 격하신 음성으로
-축포를 쏘다니?!...
동무들이 지금 내가 모르게
무슨 일을 벌여놓고있소
당장 취소하도록 하시오

한동안 침묵속에 계시던 그이
생각깊은 어조로
다시 천천히 말씀을 이으신다

-축하를 받으셔야 할분은
오직 한분 수령님뿐이십니다
이날에 쏘 축포란이 있다면
아껴두었다가 래년 4월 15일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더 많이 쏘올리도록 합시다

나는 10월 10일
우리 당 창건절을 맞으며
수령님의 건군령도업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공군부대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대의 첫 현지도도
공군으로부터 시작하시였고
마지막현지도도 공군부대로 끝마치시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의 그 축하를
우리 수령님 이룩하신 당건설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갈것을 부탁하는
간절한 당부로 간직할뿐입니다

아, 뜻깊은 그날
평양의 대동강반은 너무나 조용했다
한번 《쫘!》 구령만 내린다면
저 하늘 만리 불야경을 이루며
장엄히 터져오를 축포였건만

단 한발도 쏘올리지 못하는
축포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인가
강반에 축축히 서려드는 저녁안개여!

그후 사람들은 보았다
그이 공군부대시찰소식과 함께
당보에 크게 실은 《동지애의 노래》를-
아, 그것이, 그것이
그날에 쏘울릴 수천수만발을 대신하는
그이의 《축포》였던가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그이의 가장 숭고한 경례의 표시
가장 깨끗한 충성의 선물
가장 위대한 맹세였던가

그렇다
정녕 그이 계시여
우리 수령님 한평생 쌓으신
주체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장병들과 인민의 마음속에
전인류와 조국청사에 남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금문자로 새겨져
천세만세 길이 빛나는것이여라

2

당기여!
누리에 떨치는 당의 위엄을 두고
세상이 칭송하는 말 많아도
내 오늘 그 모든 말 다 합치여
그대 당을 선군당이라 웨치고싶노라

항일전의 백두밀림에서
선군으로 시작되여
선군으로 승리하는 당
선군으로 제 하고싶은 말 다하고
선군으로, 우리 식대로
강성대국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필승불패의 당

그대 기폭에 총대는 없어도
기발대를 총대처럼 추켜든 당기가 아닌가
마치와 낫과 붓을 틀어쥔
억세인 손들이 높이 추켜든
당창건기념탑에 총대는 없어도
저 원형피는 그대 총대당이 가슴에 두른
일심단결의 띠, 결사옹위의 탄띠가 아닌가

사람들이여!
10월의 푸른 하늘가에
선군승리로 나뭇기는 당기아래서
그대와 나 가슴헤쳐 다 이야기해보자
지난 10년세월

이 땅에서 어떤 피눈물의 대하가 흘렸고
표류하는 고립압살의 난파속에서
어떻게 우리 당의 붉은기가 솟구쳐올랐는가를

파연, 그 뉘가 그 무엇으로
5천년 민족사가 처음으로 당한
대국상의 슬픔의 언덕에서
쓰러지는 천만군민을 산악처럼 일떠세웠는가를

그칠길 없는 비분의 눈물인듯
긋은비 억수로 쏟아지던 그밤에
그이 찾으셔야 할 곳 많으시련만
제일먼저 걸어오신 첫 전화는
인민무력부 한 책임일군을 찾으시는
갈리신 음성

-오진우동지!
판문점에 나갔던 동지를 급히 부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령님 서거를 알려자고...
-예?
-어제 밤 새벽 두시
우리 당 총비서이신 수령님께서
급병으로 세상을 떠나시...
-장군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청천벽력같은 그 말씀
정녕 이것을 사실로 믿어야 한단 말인가
믿기엔 너무나 억이 차
가늠할수 없는 몸을 일으키며
썩-썩- 복받치는 오열을 쏟으며
간신히 송수화기를 받쳐든 로투사

-진정하십시오
수령님의 오랜 전우이며
우리 당의 원로인 무력부장동지까지 그러시면
내 마음은 더 아픕니다

아, 이런 때
그 무슨 말로 위로해드릴수 있단 말인가
저 백두천지를 기울인들
저 만년설을 다 녹인들
그이 안고계신 상실의 아픔을
어이 가셔드릴수 있단 말인가
터져오르는 심장을 부여잡은채
뼈아픈 침묵의 한순간은 흐르는데
다시금 들려오는 근엄한 그이 음성

-이런 때일수록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더 억세게 추켜들어야 할것은
바로 혁명의 총대입니다

세계혁명의 력사적교훈은
수령의 서거를 기화로
머리를 쳐든 적들이
당을 전복하고 령도권을 틀어쥐려
갖은 음모책동을
다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믿을것은 오직 군대밖에 없습니다
군대를 믿고 군대에 의거하여
우리 당의 주체위업을 고수하고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가자!
더 높이 붉은기를 휘날려가자!
이것은 수령님 령전에 다지는
나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며
나의 총대좌우명입니다

아, 불변의 그 신념, 그 좌우명으로
그이는 믿음의 첫 기둥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세우시였다
군대이자 당이고 당이자 군대이라는
백두의 무게가 실린
크나큰 총대민음을 주시였다

하늘같은 그 총대민음
전선시찰의 길에 들리셨던
묘향산에도 뜨겁게 어려있나니
너 산천은 새겨안고있으리
동행하는 한 군지휘성원에게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 사업하시던
그 집무실을 돌아보고 오라고
그동안 자신은 여기서 기다려주겠다고
그이 조용히 등을 떠미시던
사랑의 그 손길이어

바로 저기가 아니었던가!
세계와 호흡하시며 놀뛰던
수령님의 크나큰 심장이
마지막고동을 멈추신 곳
저기서 겹쌓이신 정신육체적과로속에
경제부문일군 마지막협회의회도 지도하시고
저기서 우리 당 력사에 길이 남을
조국통일문건에 민족최대의 숙원을 담아
마지막수표도 남기지 않으셨던가

자신께서 결론하실 문제도
언제나 평당원의 자세로 겸허히
당에 제기하여 심의를 받아 하시겠다고
김정일 동지가 비준하여주면
나는 그대로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시며
가시는 마지막날까지
당생활의 위대한 수범을 보여주신 수령님

아, 자신을 낮추실수록
수백만 당원들 더 높이 우러른
우리 당 총비서동지!

그 위대한 품모속에
우리 당은 당생활의 격차가 없는 당
관료와 권세를 모르는 인민의 당
어머니당으로 그 이름 빛을 뿌리고있지 않는가

돌이켜보면
한평생 로고를 다 바쳐 이룩하신
주체위업계승문제가 해결된것이
그리도 기쁘고 만족하시여
우리 당 제6차대회 높은 연단에서
세계를 향하여 높이 올리시던
수령님의 그 우렁우렁한 음성
다시금 가슴찌릿이 울려나오는듯

화창한 건군절의 그 봄날
항일의 백전로장들과 함께
새 세대 군지휘성원들을 부르시여
만경대생가앞에서 사진을 찍으시며
우리 당의 영원한 총대동지로
김정일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라시던
수령님의 간곡한 그 당부 잊지 말라고
오늘도 묘향산의 폭포수는
저리도 황-황- 산천을 울려주는듯

바로 그렇게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일 다하시고
주실수 있는것 다 주시고
인생의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가신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미소가
저 푸른 산천에 다 비껴흐르는가

생각할수록 가슴터져오는
통분함을 금치 못하며
어버이수령님 체취어린 산천길을 걷는
한 군지휘성원을 기다리시며
그이 굶은비내리는 길가에 서시여
오래도록 움직일줄 모르시었다
5분, 10분, 20분...

하많은 수령님 추억으로
축축히 젖어든 눈길 드시여
그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시던 산천이여!
너 그날에 남긴 장군님 그 말씀
오늘도 뜨겁게 전하여주고있구나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살았는가를
우리는 수령님을 잃고서야
더욱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철두철미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언제나 수령님의 유훈을 잊지 말고
조선로동당의 기발, 붉은 기발을
더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오, 그것이였다!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
그 붉은기를 높이 들고나가는 길에
인민군대가 첫 기수가 되여
우리 당의 승리의 력사를
선군의 총대로 계속 펼쳐나가기를 바라시는
우리 장군님의 깊은 심중의 뜻

그 뜻으로 그이는 몽상의 3년
그 어떤 최고의 공직도 당직도 바라심없이
당건설과 당활동도
오직 수령님식대로라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세계앞에 엄숙히 표명하시였고
련속적인 위대한 저술로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

수령님 《백두산》권총과 더불어
이 땅에 유산으로 남기신
우리의 당기를 더 힘차게 날려야겠기에
그이 전선길에 더 세차게 나뭇기시던
백두의 야전복자락이여!
고난을 겪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더 역세게 틀어쥐여야 할 총대이기에
병사들을 찾아가시는 초소, 중대마다
그이 엄숙히 수여하시던
기관총과 쌍안경이여!

내 오늘도
백두의 야전복자락을 기폭처럼 날리며
장군님 엄동설한을 헤쳐가신
무봉의 10리길을 걸어보노라
령하 사오십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
총대의 신념과 의지를 버리시며
백두산상에 오르신
그이 승엄한 영상을 우러르노라

천만산악도 통채로 날려보낼듯
우-우- 지동치며 태질하는 백두의 광풍으로
우리 당의 《봉괴》설을 떠드는
제국주의 온갖 악설을 쓸어내치시며
정일봉의 퇴성인양 장엄히 메아리쳐가던

백두령장의 그 목소리를 듣노라

백두산아

너는 언제 봐도 장엄하구나!

너는 나의 신념의 산, 배짱의 산

기치창검인양 솟아오른

저 총대봉은

너 백두산의 당이 높이 추켜든 총대가 아닌가

백암봉을 넘어 하늘중천 타래쳐오르는

향도봉의 저 눈보라폭풍은

날뛰는 제국주의아성을 향해

너 백두가 터치는

방사포의 《일제사격》이 아닌가

백두산아 믿어다오

너의 아들 **김정일**이 있는 한

우리 당은 굳건할것이다!

수령님 《**ㄷ. ㄷ**》로 높이 추켜드신

우리 당의 붉은기를 내리올자

이 세상에 없다!

백두의 주체위업

붉은기의 최후승리를 믿기에

나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앞에,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의 어길수 없는 혁명의 언약으로

백두산 너의 가슴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 **김정일**》

나의 이름을 엄숙히 서명하였다!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함께 한

나의 병사들, 나의 총대동지들이여!

더 굳게 틀어잡으라, 백두의 총대를

선군, 선군만이 우리 당이 나갈 길

그대 잡은 총대우에 우리 당의 운명이 있고

그대 잡은 총대우에 우리 당의 최후승리가 있다

아, 주체의 붉은 노을 누리를 덮으리라!

그이 다지신 룡남산의 그 맹세

여기 백두의 웅자로 솟아오르는가

《높이 들자 붉은기》를

1990년대 적기가로 지정하신

그이 심원한 뜻이

여기 백두의 장엄한 퇴성이 되어

광야에 지동치며 울려가는가

세계는 보았다

더 높이 더 세차게 펄럭이는 주체의 당기!

황포무도한 《1극세계》를 떠드는

오만한 미제의 목덜미를

발밑에 지리밟고 서신

또 한분의 걸출한 백두산태양장군을

인류는 경탄하고있었다

그처럼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수령위업계승의 명저들을

런이어 짱-짱- 내놓으며

선군총대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천상천하유일무이한 백두선군령장의

특출한 정치실력을

오, 그렇게 솟아올랐다

우리의 당, 우리의 붉은기!

주체의 항로를 가리키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의 위대한 손길따라

우리는 붉은기승리의 한길을 왔다!

그렇다, 정녕 그이는

최경각에 올랐던 조선을

두번다시 세계의 한복판에

백두산처럼 우뚝 세우셨고

선군총대당의 위력을 만방에 펼치셨다!

우리의 당기를 총대우에

더 높이 휘날리셨다!

* *

그이는 오늘도 자주 추억하신다

우리 당의 기초축성시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든 일군들

그들의 앞장에 서있던 항일투사들

보기는 과묵하고 무뚝뚝해도

가슴엔 진심의 대돌을 묻고

장군님을 우리 당의 지도자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받든

진짜배기충신들

오, 과연 그들은 누구였는가

우리 당 역사를 추억하는 여기서

정녕 잊어서는 아니될

1970년대 그날의 충신들을 돌이켜보며

아직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한 항일투사의 이야기 시에 담으며

내 뜨거움에 붓을 적시노라

어느해 겨울밤

뿐안 눈보라의 장막을 뚫고

쏟알같이 청사정문으로 들어서는

승용차 한대

-아니 투사동지가?! 이 밤에 어떻게...

마중나온 일군들

영문물라 서성거리는데

애써 격한 감정을 누르는듯

조용하나 엄하게 울리는 투사의 목소리

-내 방금 우리 장군님의

실무지도를 보좌해드리고 오는 길ियो
헌데 말ियो
그 자리에 응당 있어야 할 동무들이 없기에
이렇게 왔소

-예?

-요즘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을 비롯해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실무지도를
자주 하시는데
그것을 화면으로 수록해둬니까?...

-저, 그 몇번 말씀드렸지만
나도 동무들과 다름없는
수령님의 전사라시며
그이께서 너무 만류하시기에...

-뭐라구,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아무려면 그이께서 그것을 승인하실분ियो?
목대가 부러진대도 찍으란 말ियो, 무조건...
아무려면 그이께서 동무들의 촬영기를
빼앗기야 하시겠소
지난날 김혁동지가 한별동지의 승인을 받고
《조선의 별》노래를 보급하였소?
혁명시인 조기천이 수령님의 승인을 받고
《백두산》시를 창작하였는가...

아, 격노한 그 목소리
온 청사를 떠나갈듯 울리고
일군들 죄책으로 머리를 떨구는데
가슴이 아픈듯 눈내리는 먼 하늘을
오랜 침묵속에 바라보던 투사

-생각해보시오
그이께서 언제 한번
자신을 위한 일을 승인하신적 있었는가
처음으로 제정된
《김일성훈장》을 수여하실 때에도 그렇고
그이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맞이하러 할 때에도 그렇고...

아,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져온다
우리가 저 만주광야에서
맨주먹으로 일제와 싸울 때는
너무나 부족한것이 많아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사진 한장도 똑똑히 남기지 못했다고
그리도 통분해하는 투사

전쟁시기에도
그 육실거리는 종파무리들속에서
우리 당 전원회의
보고문을 집필하시고 회의를 지도하시는

수령님의 그 력사적인 모습을 다 찍지 못한
큰 죄를 짓고있는 우리들이
현대적촬영수단을 갖춘 오늘에야
왜 불멸의 그이 영상을
화면으로 수록할수 없겠는가
그리도 안타까와 말하는 투사

-동무들!
파연 그분이 어떤분이시오
수령님의 대를 이으실
또 한분의 태양이시고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시오
우리가 지금 그이를 받드는 일을
소홀히 하다간 장차 우리 당의 운명을 망치고
우린 다시 망국노신세가 되여
감자도장을 만들어 국제당을 찾아다니던
가련한 신세가 된다는걸
똑똑히 알아야 해
알겠는가?...

-알겠습니다. 최현동지!
아, 총대로 빛나는
우리 당의 력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길에서
한목숨 내대고 수령과 당을 보위한 군대
자욱자욱 수령결사옹위로 빛나는 력사를
그 어느 나라 군대가 창조했던가
총대로 개척된 우리 당의 주체위업
총대로 끝까지 받들어가야 함을
천만장병들의 가슴에 깨우쳐주며
오늘도 그들은 영생의 주작봉마루
수령결사옹위의 전렬에 서있거니

사람들이여!
조선혁명박물관
《수령님과 전우관》을 찾아가보시라
정녕 비워둘수 없는
수령옹위의 제1선위치가 있어
김책, 오중흠동지들
랍상의 모습으로 다시 왔는가

그리고 전시된 사진들을 보시라
어찌하여 백전로장의 로투사들
외국방문의 길에서 오시는 장군님을 마중하러
불편한 몸 지팡이에 의지하여
오랜 시간 역두에 나와 기다려 섰던가
한평생 벗지 않은 군복을
어찌하여 그날만은 흰 사복으로 갈아입고
로투사는 장군님과 나란히 섰던가

그것이여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으로
30대, 40대 나이의 투사들
20대 청년장군을 받들어모시였던

백두산 그 시절처럼
단순한 겹혀성이 아닌
장군님을 수령의 후계자로 높이 모시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감정으로 승화된
충신의 마음, 충신의 자세였거니

오, 백두의 혈통은
그렇게 굽이쳐왔구나!
그렇게 이어지고있구나!
수령님을 잃고 붉은기높이
백두산에 오른 인민군답사행군대
꼭우쏘아지는 장군봉마루에서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노래를 부르며
그이께 올리는 맹세문에
피더운 수표를 남기던 이름들이여!
항일의 전구마다 나뭇기는 붉은기
영원히 탈색없이 나뭇기라고
인민군장병들의 이름으로 백두산에 기증하던
수백메터 붉은 천이여!

그래서 우리 장군님
오늘도 전선길에서 돌아오실 때면
당중앙청사우에 날리는 당기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뜨거운 말씀 남기시는가

-우리 당의 붉은 기폭엔
시련의 시기마다 총대로 우리 당을 옹위한
인민군장병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다
참으로 우리 당처럼
충신들을 많이 가지고있는 당은 없다
이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재부이며 더없는
자랑이다
우리 당은 그들의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겹혀하시여라, 우리 장군님
수령님 백두산에서 안고오신 붉은기
수령님 가시면서도 덮고가신 붉은기
총대로 백두산의 당을 사수하고
총대로 백두산의 당풍이 흘러넘치는
백두산총대의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한몸 깡그리 불태우신분 그 뉘신데
그 모든 공적 다 전사들에게 안겨주시는가

엄혹한 투쟁의 나날
백전백승 우리 당의 위업에 바친
충신들의 공로를 못잊으시여
백두산1세들뿐아닌
해방후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수령님을 따라 당을 따라
준엄한 시련을 헤쳐온 일군들도
마땅히 혁명가라는 값높은 성분으로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우리의 당기와 더불어

그들의 충신의 삶을 영원히 빛내주시는
우리 장군님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며
때로 엄한 매를 들며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처럼
슬하의 천만자식을 품으신 우리 장군님
오늘도 남모르게 속을 태우시며
일군 한사람한사람을 키워가시는
그 대양같은 어버이심중의 세계를
우리 무엇으로 다 헤아릴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의 해임자료를 놓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당의 신임과 사랑을 받다보니
그렇게 교만해진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투사들을 그처럼 사랑하시면서도
일단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엄격히 처벌하였습니다
책벌, 그것은 곧
우리 당의 믿음이며 사랑입니다

-동무들은 그 동무가
한 부대의 큰 광주리를 안기엔
너무 팔이 짧다고 하는데
난 그의 팔을 더 길게 하여
더 큰 광주리를 안게 하기 위하여
그를 공부시킬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젠 동무들이 나이가 많다고
군복을 벗을 생각을 하는데
나는 수령님께서 손때묻혀 키우신
우리 인민군지휘성원들을
절대로 나의 손에서 놓지 않을것이며
한생 끝까지 군복을 벗기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그이는 어머니이시다!
열혈의 동지애의 화신이시다!
우리 당은 말그대로 어머니당
동지애의 당이다!

말해보자, 사람들이여!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했거늘
지극히 어려운것이 있다면
그것은 민심을 얻는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한 인간에 대한 숭배심이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 생겨나던가
권력이나 폭력으로 길들일수 있던가
돈이나 황금으로 마음을 살수 있던가

오, 가슴속에 치솟는
뜨거움의 불덩이를 안고
우리는 격정에 웨치나니
이런 인간령장의 위대한 품에 안긴 삶이라면

그대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그 무엇을 한하랴

걸어온 천만리도 동지의 믿음
걸어갈 천만리도 동지의 믿음
용암인양 타끓는 그 믿음 가슴에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군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자고
2005년 2월의 전선길에서
우리 장군님 총대동지들과 함께
세번씩이나 선창하신
《동지애의 노래》여!

아, 선군태양
동지애의 태양을 우러러
황황히 불타는 저 백두의 노을을
붉은 기폭인양 총대봉에 걸고
백두산은 무변광대한 천고밀림을
총대로 정렬시켰거니

세계여, 인류여!
눈길들어 우러르라
우리 장군님 총대로 다져주신
억척불변의 동지애의 반석
일편단심, 일심단결의 성새로
이 지구우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군총대당의 총대탑을
백두산에 높이 세웠도다!

3

당이어!
장장 60년 세월
승리와 영광으로 나뉘어온 붉은 기폭이어!
그대는 이 행성에서 무엇을 보았고
그 장엄한 펄럭임소리로
그대 세계앞에 무엇을 선언하는가

당의 령도는
혁명무력의 생명선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
우리의 당기는 **김정일**동지의 기치!

그대 기폭은 웨친다
불구름 타래치던 혈전의 년대기를 넘어
1990년대 총포성없는 격전을 벌리는
우리의 하늘엔
언제나 붉은 당기와 함께
혁명의 군기가 나뉘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강력한 당과 무적의 군대를 함께 건설해온
당의 영광스러운 60년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치렬한 반미대결전의 승리를 말할수 있으며
어떻게 **김일성**조국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을 생각할수 있으랴

그렇다, 당은
준엄한 력사의 년대기마다
위대한 시대를 펼쳤거니
수령님의 령도밑에
1950년대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시대를 열었듯이
장군님의 령도밑에
1990년대 강성대국건설의
선군시대가 열리었다

세계는 찬양한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일**선군정치로
선군의 새 세기를 향도한다
-**김정일**선군정치로
미제의 《세계제왕》행세가
완전히 풍지박산되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동지이시여!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라!

세계도처에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과연 무엇을 생각하는가
지구의 절반땅을 덮으며
70년이상 힘차게 나뉘었던 붉은기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내리워지고
제2차 세계대전의 광활한 전선에서
그처럼 강성을 펼치던 군대가
어찌하여 총 한방도 못쏘고
사분오열되었던가

우리는 보았다
한때 국가지도부사수를 떠들던
군지휘성원들이
미제의 무차별공습을 받고있는
수도를 뒤에 두고
꿈무니를 빼는 추악한 물골을
승리의 군가높이 광장을 활보하며
최고사령관의 사열을 받으며 나가던 군대가
당과 정부를 전복하는 배신의 앞장에서
서슴없이 총부리를 들이대는 망동을

오, 오- 치가 떨린다
군대의 비사상화, 비정치화!
당의 수중에 자라난 혁명군대에서
파연 상상이나 할 일인가
총잡은 우리의 후손만대가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될
력사가 남긴 피의 교훈!

그렇다

당의 정도는 우리 총대의 생명
당의 정도를 거세할 때
그것은 넋이 없는 한갓 쇠붙이
그것은 군복입은 허수아비
선군도 당의 정도속에 있고
강성대국건설도 당의 정도속에 있기에
우리의 총대는 모른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앞에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밖에는

당의 정도에 끝까지 충실하라고
우리 군기엔 당마크가 새겨져있거니
우리는 단 한치도
제멋대로 생각할 권리가 없노라
그이께서 사랑하시는것
우리는 다 사랑하고
그이께서 증오하시는것
우리는 다 증오한다

설사 최고사령부와 련계가 끊어진
준엄한 적구, 원쑤의 총구앞에 선다 하라
매혹과 숭배로 불타는 심장을 수류탄마냥
뽑아들고
장엄한 폭음속에 메아리치는
《**김정일**장군 만세!》소리를
온 세계가 들으리라!

최고사령관의 사상으로 만장약되고
최고사령관의 피만이 맥맥히 흘러넘치는
김정일자폭육탄용사들
붉은 당원증 심장값이 간직한
김정일제일결사옹위군이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총대높이 맹세한다
백두산3대장군의 슬하에서 잔뼈가 굵고
당의 정도따라 무적강군으로 자란 군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그 이름 빛나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더욱 빛내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정도를
충성의 총대로 받들어나가리라!

우리 총대의 영원한 구호는
어제도 오늘도 오직 하나
세대를 이어 년대를 이어 웨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보시라

성스러운 군기호위속에
아버이수령님 초상기를 진두에 모시고
당창건 60돐-대축전광장으로 들어서는
최고사령관의 제일결사대
총폭탄근위병들의 저 장엄한 대오

보시라
최악의 고난과 시련의 언덕을 넘어
최고사령관동지와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총포성없는 제국주의와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세계사적 《전승》을 안아온
21세기의 최강의 군대
백두산혁명강군의 저 불패의 위용을

승리의 단상에 높이 오르신
우리 당의 총비서이시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이시여, 우리를 사열하시라!
백두의 총대로 우리 당의 위용을 만방에
펼치시고
선군의 새 세기를 열어놓으신
민족의 영웅, 위대한 정의의 수호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르며
《받들어총》높이 쩡-쩡- 나아가는
조국과 장병들이 드리는
최대의 영광, 영광을 받으시라!

장병들이여!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터치라
비껴든 총창마다 번개를 날리라
오늘도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총대우에 날리는 당기를 바라보시며
영원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세계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으로
천만년 길이 빛날 미래를 축복하실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 경의를 삼가 드리자!

그렇다
백두산이 받들어올린 혁명의 붉은기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주체의 당기
장군님의 선군장정어린 총대의 당기는
김정일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우에 받들려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높이 휘날리리라!

주체94. 9. 28

해뜨는 계곡

단편소설 (3)



리 명

《그러니 본인 스스로 해임해줄것을 제기했다는 거겠소?》 김석천은 부부장한테 아연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재삼 물었다.

《예.》

부부장은 그 외마디 대답을 하기가 참으로 힘겨운듯 손수건을 꺼내 이마와 목덜미에 내뺨 땀을 찍어냈다.

김석천의 입에서는 《음.》하는 웅근소리가 새어나올뿐 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책상우에 맞잡고있던 그의 손이 으스스하게 틀어쥐는 주먹으로 변하고 일순 부드러운 눈빛에선 서늘한 광채가 언뜻 스쳤다. 평양출장을 마치고 방금 사무실에 들어선 발전소련합기업소책임비서인 그한테는 실로 천만뜻밖의 소식이었다.

부부장은 평시에 너그럽고 선량한 김석천의 성품을 빌어 중언부언하였다.

《사실 그 동무가 그렇게 된데는 우리 당조직에서...》

《수치요!》 김석천은 부부장의 군말을 짧고 격하게 잘라버렸다. 그 어조에는 본인과 련합당책임일군인 자신에 대한 타매도 한데 엉켜있었다. 평범한 당원도 아닌 일군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임을 스스로 포기한 폐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그 불미한 《일군》이 다름아닌 자기의 단위에서 생겼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박동혁?... 후리후리한 키꼴에 민첩한 몸가짐, 짙은 눈썹에 표표한 눈빛과 각진 턱으로 하여 날카롭고 예리해보이는 사나이, 발전소물길굴의 돌파구를 담당한 지휘관... 문득 김석천은 초기 발전소건설을 이끌 지휘력량을 꾸릴 때 있을 일들이 떠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두고 김

석천은 도당위원회에 로동현장경험이 있고 쇠리나는 젊은 일군들을 보내줄것을 제기했다. 그때 파견된 일군들속에 용해공출신경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박동혁이었다. 나이는 서른에닐곱, 야금공학기사였다.

용광로는 어떤 의미에서 김석천의 두번째 고향이었다. 로동생활의 첫걸음을 용해장에서부터 시작한 그는 그곳에서 당파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쇠물과도 같은 뜨겁고 열정적인 심장과 쇠물처럼 터없이 깨끗한 로동계급의 량심을 익혔다. 용광로야말로 인간을 가장 억세고 깨끗하게 키우는 일터임을 믿어마지 않는 그로서는 박동혁의 로동경력에 정이 끝리지 않을수 없었다. 김석천은 용광로앞에서 단련되고 수양되었을 인간됨과 헌신성을 믿고싶어 그를 발전소건설의 기본전선의 하나인 22호물길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22호물길갱은 발전소건설 전 수로구간에서 제일 애를 먹이는 골치거리대상이었다. 대대로력구성은 도안의 시, 군 지원자로 무어졌으나 말은 구역은 지질조건이 말이 아니었다. 예측할수 없는 단층과 석수가 빈번하고 이따금 갱붕락현상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이길수 있는 힘은 지휘관의 사업능력과 일숨씨, 난관에 주저를 모르는 불굴의 의지에 달려있었다. 김석천은 박동혁이를 믿었다. 그가 당의 신임에 훌륭히 보답할줄 아는 지휘일군으로 자랄수 있게 이따금 그를 불러 빈구석도 일깨워주고 갱의 걸린 고리를 술선 나서 도와주기도 하였다. 오죽했으면 지난밤 평양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도 22호갱돌파구를 부리나케 제껴가고있을 박동혁의 미더운 모습부터 그려봤겠는가.

《그래 그 사람이 요즘 뭘하고있소?》

《사임서를 내고 22호갱에서 착암을 했었는데

지금은 봉락버력을 운반하고있습니다.》

《봉락버력이라니?》 김석천은 흠칫 놀랐다. 부 부장은 고개를 짓속인채 힘들게 입을 열었다.

《머칠전에 갱이 봉락되어 전진을 멈추었습니다. 탐측공들의 추산에 의하면 70여미터구간이나 매 물침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봉락버력운반에 대 대가 총 령량을 집중하고있습니다.》

《뭐요?》 김석천은 또 다른 타격에 낮빛이 굳 어졌다. 봉락버력운반에 아무리 령량을 들이민다 해도 그 비좁은 갱도에서 일을 축내기 힘들다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가뜰이나 22호갱이 300미터 를 아직 돌파못하여 전 물길굴관통을 미루고있는 이때 70미터라는 엄청난 봉락까지 덮쳐온다면 1 단계조업은 어찌된단 말인가.

김석천은 이 엄청난 현실앞에서 눈앞이 캄캄했 다. 어떻게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연방 생 길수 있단 말인가. 갱의 봉락과 박동혁의 지휘권 포기... 모든것이 명백해졌다. 박동혁이 어째서 이 엄혹한 시각에 자리를 내놓았는지... 우리 혁 명의 시련기에는 드문히 배신자들이 나타나더니 ... 갱이 봉락되자 그 책임이 두려워 꼬리를 사리 려 한단 말인가.... 김석천은 속에서 열물같은 쓰거운것이 치밀었다. 그는 자리에서 움쭉 일어 났다.

《내 22호갱현장에 나가볼테니... 상급당조직에 실태보고를 하시오. 아니, 그만두오. 오후에 도당 회의가 소집되니 내가 올라가 직접 보고하겠 소.》

김석천은 밖에 나섰다. 22호갱봉락현장을 향한 그의 머리속에는 박동혁이라는 인간이 지워지지 않았다. 발전소건설이 1단계조업을 앞두고 그 어 느때보다도 양양되었어야 할 이 시각 그의 배신 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크던작던 좌절감을 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행위였다.

22호갱은 말그대로 엉망이었다. 갱도는 온통 석수에 죽탕이 된 버력들로 반나마 메워졌다. 광 차들이 그물탕같은 버력을 담아내고 씹없이 빠져 나왔다.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버력은 좀 처럼 자리가 나지 않았다.

김석천은 점심시간도 잊고 현장에서 일군들과 함께 갱복구문제를 의논한 다음 오후에 있게 될 도당회의때문에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그때 승용차앞으로 누군가 뛰어왔다. 노란 안 전모에 뿌연 버력물이 뺨 작업복차림의 청년이었 다. 키는 작달막하나 코날이 살아올라 성깔스럽 고 당돌해보였다. 김석천은 웬일인가싶어 차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청년은 달려오던 걸음을 흠칫 세우더니 군인식으로 두손을 바지훈술에 딱 붙이 고 가슴을 짝 폈다.

《책임비서동지, 22호갱착암공 오천복 만날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요?》

청년은 재빨리 작업복앞설표를 헤쳐 밤색뚜껑의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오랜지거나 된것처럼 김석천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이 수첩엔 우리 대대장동지의 <막장수기>가 적혀있습니다. 지난밤 그가 잠든틈에 가만히 훑 쳤지요. 읽어보니 어쩐지... 책임비서동지한테 보 여드리고싶더군요....》

청년은 제풀에 점직해서인지 잠시 머뭇거렸다. 김석천의 뇌리에는 언뜻 박동혁의 얼굴이 떠오르 자 쓰거운것을 씹은듯 불쾌감이 치밀었다. 허지 만 청년의 눈빛에는 초조하면서도 그 무슨 간절 한 기대가 어려있었다. 김석천은 그 진정어린 표 정이 의아쩍어 저도몰래 머리를 끄덕이였다.

《고맙습니다, 책임비서동지!》

청년은 김석천에게 수첩을 내주고는 머리를 꾸 벅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 꾸밈새없는 거동은 박동혁의 《막장수기》에 대한 야릇한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승용차의 뒤좌석등반이에 몸을 실은 김석천은 차가 건설장구내길을 벗어나면서부터 수기의 첫 장을 읽기 시작하였다. ...

명령(1)

오늘 우리 대대에 또 김석천책임비서가 찾아왔 다. 수십리로 뻗어갈 발전소물길굴에서 지질조건 이 제일 한심한 구간인 우리 22호갱이 걱정되어 서일것이다. 허지만 최근 우리 22호갱은 내내 굴 진계획을 돌파하여 순회우수기를 독차지하고있지 않는가. 전투원들 기세도 그 어느때보다 높고있 다. 그러니 오늘 나는 뭔가 칭찬을 들을것만 같 다. 제발 모임장소나 일군들앞에서 삼가해줬으면 ... 나는 사람들앞에서 받는 평가가 질색이다.

그런데 이진 또 뭐란 말인가. 낮교대착암공들 과 한것을 보내고 막장에서 나오던 나는 김석천 책임비서와 마주쳤다. 그는 나의 인사는 건승해 버리고 첫마디부터 따지고들었다.

《동문 용해공출신이 맞긴 맞아?》

야밤의 홍두깨같은 이 물음, 질책인지 뭔지 알 수 없다. 좀처럼 감정을 곁에 나타내지 않는 그 였다. 난 어정쩡하여 눈알만 머뭇거렸다.

《왜 로동자들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았나?》

(아하, 참 날째기란. 어느새 누가 고자질했군.)

김석천비서의 꾸중보다 그에 더 신경이 갔다. 그런 일이 있었다. 월계획을 넘쳐한 날 저녁 나 는 로동보호물자들을 아예 현장에서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그때 중대들마다 나한테 술 한잔 들고 와 권하는걸 받지 않았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나사가 풀릴가봐 겁이 났나? 하하... 걸작인걸.》

김석천책임비서는 어치구니 없는지 껄껄 웃었 다. 피땀 용해공시절 쇠물을 한차지 뽑은 뒤끝이 면 일군들과 함께 시원한 탄산수를 마시던 광경

이 스쳤다. 그러니 노동자들과 한데 어울릴 줄 아는 일군이 되라는 사랑의 매질이었다. 허지만 나는 그때 마음속에 실지로 술잔을 받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내가 만약 받았더라면 그것은 한갓 받는 동작을 나타내는 연극이었을것이다. 나는 그런 거짓동작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식으로 전투원들과 마음을 섞고싶지 않았다. 대체로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이라는 계선을 따로 정하고 생활에 들어가서는 군중과 동고동락할줄 알아야 군중의 호감을 사게 되고 그들의 심리와 요구에 맞게 일을 전개할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사업과 생활계선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나는 너그럽고 아량있는 일군이 아니다. 책임비서가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듯 빙긋이 웃었다.

《동문 지시나 명령을 주는데 습관되기보다 자기를 복종시키는데 습관돼야 하지 않을까?》

의미심장한 말이다. 군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습관되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의 사업방식은 달랐다. 군중의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에 복종하는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나의것으로 만들어 명령과 지시로 펼친다. 군중이 나를 무자비한 칼날이라고 해도 그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엄한가장이 없는 집안은 깨끗한 대도 가풍도 세울수 없지 않는다.

내가 대대에 처음 파견되었을 당시만 해도 우리 대오는 말그대로 켜여있지 못했다. 그때 있는 하나의 일화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초기 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대대장이라는 생소한 직무앞에서 몹시 당황했다. 당의 신임은 컸지만 난 어느모로 보나 채 준비못된 작은 인간이라고 믿었다. 이제 나는 분명 전선의 한구역을 차지한 대오에 첫 명령을 주는것부터 일을 벌려야겠는데 그 명령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할지 난감했다. 고지탈환전투를 앞둔 대오에 주는 지휘관의 첫 명령이야말로 전투승패에 결정적역할을 놀수 있었다. 또한 신임지휘관을 맞이한 대대는 그 첫 명령을 통하여 자기 지휘관의 일잡도리와 성격, 지어는 그 무슨 몸가짐이나 맵시에 이르기까지 저울질해볼것이였다.

나는 첫 명령을 주기 앞서 여러 중대현장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연합지휘부를 통하여 대충 료해는 하였지만 내 눈으로 직접 각 중대의 작업대상과 조건, 전투원들의 정신심리상태, 막장과 난장의 공기와 분위기를 보고싶었다. 연합당일군이 나를 대대에 인사시키려고 따라 나서는것을 극구 마다했다.

그날 나는 여러 작업장들을 돌아보고 오후무렵에야 대대의 제1선이라 부르는 22호갱에 들어섰다. 광차레루가 바닥가운데로 뻗은 갱도는 들어갈수록 습윤한 공기가 떠돌고 물기가 즐럭한 동발목들에서는 곰팡내가 풍겼다. 밖에서 열었던 몸이 어느새 풀리고 더워났다. 날카로운 바위들이 울룩불룩한 도갱벽, 금시 무너져내릴것 같은

천정암반들, 소름이 돋았다. 발목을 적시던 갱바닥물이 어느결에 장판지를 쳤다. 장화속에 물이 차 절벽거렸다. 그때도록 인적기를 들을수 없었다. 나는 반시간나마 더 물을 걸어차며 갱속으로 달려들어갔다. 그제야 약간 둔덕진 곳이 나타나면서 바닥이 드러났다. 뒤이어 침침한 어둠으로 덮였던 갱도안에 불빛이 새어나왔다. 칠칠야밤 무인지경에서 한점의 불빛을 찾은 기분이랄가. 나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너댓명의 사나이들이 버럭무지우에 앉아 웃으며 떠들어댔다. 누구인가 내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누구야?》

갱뿔한 얼굴에 코잔등만 잔뜩 살아올라 부러진 칼등처럼 보이는 사내가 목청을 돋구자 여러쌍의 눈길이 일시에 나한테로 날아왔다.

《새로 배치받았소.》

《어느 소대? 오 노란 모자!》

《우리 <확장>조로군.》

《알고 지냈세. 난 삼해광산채굴공 오천복이라 하네. 저 몸집 좋은 친구 어대진수산어로공이구. 이 좀상스런 친구... 에익, 차차 알게 되겠지.》

칼등코가 수선을 떨다 그만두었다. 나는 그때에야 내가 쓴 안전모가 이들과 마찬가지로 노란 색깔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모자색갈로 소속을 구분하는것 같다. 나는 이곳 22호갱에 세개의 소대가 배치되어있는줄을 이미 알고있었다. 도갱소대가 먼저 평단면을 뚫고나가면 그뒤로 갱을 넓히는것은 확장소대가 맡고 그 전면을 피복소대가 콘크리트로 포장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 이들은 확장소대원들이었다.

《일들은 하지 않소?》

내가 물었다. 몸이 거방진 어로공이 씨물씨물 웃었다.

《우리가 하루 굴진과제를 벌써 끝냈지. 더 하려고해도 정알이 떨어졌거던.》

《그렇다고 이러고있으면 정알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소.》

《허, 이 친구 제법 흰소리. 공구보장을 맡은 조는 꽃보자기에 싸두겠나...》

어로공이 눈에눈섭을 쭈긋거리며 너스레를 떨려다 그만두었다.

나는 잡쳐드는 기분을 겨우 다잡으며 그냥 앞으로 나갔다. 앞에 있을 도갱소대막장까지 봐야 했다. 얼마 못미처 도갱막장에 닿은 나는 또 다른 형색들과 마주쳤다.

천공을 한 구멍에서 뿔건 석수가 소방호수에서처럼 내뿔었다. 물에 흠뻑 젖은 착암공들이 한켠 구석에 몰켜서 잡담을 벌리고있었다. 이럴 땐 석수가 밀창날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땅수라고 했다.

무질서... 무풍지대... 심사가 뒤틀릴대로 뒤틀린 나는 돌파섰다. 확장소대 《노란모자》들은 내가 곁에 지나칠 때에도 이야기바람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있었다.

《허, 저 친구 바람처럼 사라지려나.》

《내버려두게. 막장길과 산보길을 헛갈렸겠지.》

칼등코와 어로공이 찡고받는 시가스러움에 부아가 났다. 나는 애써 참았다. 그들을 다볼러떨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내가 다시 물에 잠긴 갯바닥에 들어섰을 때였다. 네댓걸음앞에서 누군가 허리를 구부리고 합마질을 해댔다. 안전등을 그쪽에 비쳐 찬찬히 살펴보니 물속에 잠긴 레루뚱을 박고있었다.

《선로수리공이요?》

이번에도 노란 안전모가 쳐들렸다. 나는 무릅놀랐다. 해말쑥한 처녀, 까만 눈동자가 뻥히 쳐다본다. 유난히 반짝이는 그 쌍꺼풀진 눈에는 밝은 빛이 가득차있었다. 코끝이 살짝 쳐들려 무척 발랄하고 귀인성스럽다. 몇오리의 젖은 머리카락이 안전모밑으로 흘러내렸다.

《압축기운전공이예요.》

《운광공들은 뭘하게 동무가 한단 말이요.》

《누가 하던 뭘래요. 광차들이 여기서 자꾸 탈선되는데...》

낯선 사람이 꽤나 싱겁다는 투다. 처녀는 다시 함마를 들고 일에 달라붙었다.

(막장에 주인이 전혀 없는건 아니군.)

침침하던 심기가 약간 들렸다. 누가 보지도 않는 곳에서 홀로 땀흘리는 처녀의 미쁜 소행이 잡초숲에서 한송이의 꽃을 본것만치 기뻐다. 나는 그냥 지나칠수 없었다.

《동무 이름이 뭐요?》

《호호... 참 싱겁네. 내 이름이 왜 필요한가요?》

처녀는 비웃음을 입에 물고 다시 뻥히 쳐다봤다. 내가 정색해 서있자 룡이 아닌줄 여겼던지 그 앙증한 코끝을 발딱 쳐들었다.

《정 알고프면요... <월미도>영화 있잖아요. 그 해병처녀, 통신병이름과 같지요 뭐. 호호...》

속눈썹밑에서 찰랑거려던 미소가 눈귀로 구울러 가르르한 웃음을 터쳤다. 그 명랑한 웃음소리는 막장안을 기분 좋게 공명시켰다. 무겁던 나의 가슴은 그 유쾌한 울림에 저속 가벼워졌다. 나는 처녀의 깨끗한 뚱이 흘러나오는 그 웃음속에서 《월미도》의 영옥이를 다시 보는것 같았다.

(고맙다, 처녀야.)

나는 그길로 대대지휘부를 찾아 함께 일하게 될 지휘성원들과 수인사를 나누었다. 인사뒤끝에 참모장을 불러 래일 아침 정각 7시에 전 대오를 22호갱구앞에 집합시킬 과업을 주었다. 나는 첫 명령을 대대앞에서 할 결심이였다.

이튿날 이른 새벽 비상경보를 받은 대대는 각 중대별로 렬을 지어 22호갱구앞 넓은 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둠이 채 가셔지지 않은 미명속에서 구령소리, 발걸음소리, 대렬합창으로 벽적끓었다. 나는 약속대로 정각 7시에 대오앞에 나섰다. 바람한점 없는 차디찬 대기가 폐부를 찔렀

다. 겨울의 살풍경에 휩싸인 어랑천계곡의 한귀통이에 자리잡은 22호갱구마당에는 전 대대가 속연한 침묵속에 정렬해섰다. 나는 전테없이 들뛰는 흥분을 안고 대오를 쪽 훑었다. 호기심과 기대어린 눈빛들로 빛나는 림름한 대오는 나의 온몸에 용솟음치는 활력과 새로운 결의로 들먹이게 하였다. 나는 가슴속에 쇠물처럼 끓는 첫 명령의 구절들을 곱씹으며 대렬보고를 하려는 참모장한테 시선을 주었다. 그때 나의 시야에는 희푸르스름한 대기속에 잠긴 갯구앞으로 누구인가 달려나오는 거동이 띄었다. 그는 갯구에서 곧바로 어느 한 대렬의 후미쪽으로 반달음쳐 가고있었다. 분명 지각자였다. 돌연 긴장해있던 대오의 시선이 그쪽으로 흩어지면서 형클어졌다. 나의 눈에서는 불꽃이 평국 튀었다. 참모장도 같은 생각이였는지 지각자를 멈춰세우고 대오앞으로 불렀다. 나는 이 엄숙한 분위기를 망가뜨린 그를 날카로운 시선속에 몰아넣으며 대오앞에 나서도록 내쳐두었다.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눈시울이 푸들쩍 뛰었다. 지각자의 자태가 무척 낮익다는 느낌과 함께 이제 그를 멈춰세우지 않으면 매우 딱한 사태가 빚어지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순수 감각이였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내가 그 감각을 음미할새없이 지각자는 내 앞에 바투 다가왔다.

《?!...》

나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어제 막장에서 보았던 처녀! 잡초숲에서 피어난 한송이의 꽃처럼 그 아릿다운 숨은 자태와 명쾌한 향기로 나를 기쁘게 맞아주던 영옥이였다. 처녀의 얼굴은 수치심에 새빨갳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한순간 아래로 떨구고있던 처녀의 눈이 얼핏 치어들렸다 속어졌다. 그 무슨 간청과 애원의 눈빛같은 그림자가 떨리는 속눈썹아래로 지나갔다. 한줄기의 동정이 나의 가슴을 꿰질렀다. 이 아침 갯구길을 나선걸 보면 분명 어제 닳을 이어 교대근무로 밤을 새웠을것이다. 그래서 늦어졌을수도 있다. 있을수있는 일이다. 그냥 들여보내야 한다. 심장은 그렇게 가만히 속삭이였다. 그런데 별안간 그 속삭임을 채찍처럼 후려치는 다른 목소리가 흉벽을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초조한 눈빛들이 수없이 날아왔다. 나는 그 눈길들을 어렵꽃이 의식하며 자못 엄하고 시퍼렇게 날이 선 목청으로 웨쳤다.

《동무들, 대대는 이 아침 출발계선을 차지했습니다. 출발시간은 정각 7시, 허지만 우리의 대오에는 락오자가 생겨 출발시간은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나는 대대의 첫 규률위반자인 이 동무에게 책벌을 적용합니다. 김영옥동무를 압축기운전공에서 해임하고 운광공으로 배치할것!》

이것이 대대에 내린 나의 첫 명령이였다. 혹자들은 만약 영옥이가 그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명령이 달리 될수 있지 않았겠는가고 물을수도 있다. 천만에! 나는 그 아침 대대에 강

철같은 규률을 선포하려 했다. 군대와 같은 군률과 질서가 없다면 대대는 살아숨쉬는 생명체로, 결사관철의 대오로 준비될수 없었다. 승리의 전제는 규률이다. 영욕은 내가 세우려는 군률의 첫도전자이자 희생자였다. 그는 억울하고 분할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후에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 누구든 규률밖에서 존재할수 없으며 규률을 떠나 자기의 존엄과 긍지를 빛내일수 없음을 확신시키고싶었다.

그날밤, 퍼그나 늦어서야 침실에 든 나는 대대가 해야 할 수많은 일감들이 자꾸만 서물거려 잠들수 없었다. 그런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나는 미심쩍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대충 걸치고 문을 열었다. 짜늘한 달빛이 비치는 숙소뜨락에는 네댓명의 남자들이 서성대고있었다.

《무슨 일어요?》

《대대장동지, 만날수 있습니까?》

작듯한 그 억양은 나의 동의보다도 자기들의 요구를 강요하는듯 싶었다. 나는 의아쩍었다. 급한 사정이 아니고서야 이 깊은 밤 나를 찾으리 없었다.

《들어오시오.》

나는 그들을 방으로 불렀다. 하나하나 들어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던 나는 자못 놀랐다. 막장에 노라리관을 벌렸던 그 《노란 모자》들이었다. 이상한것은 그들이 쓴 안전모들이 죄다 까만색으로 변했다. 아마 대대장과 동색의 모자를 쓰고있는것이 격에 맞지 않아서인지... 자리가 정돈되자 그 인상적인 오천복이 눈살을 꺾듯이 세우고 직방 들이댔다.

《우린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

《뿔 때문에 애꿎은 영육동무를 그렇게 납작하게 망신줍니까. 대대장동지가 그 동무를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런 가혹한 벌을 준단 말입니까. 그 동문 전 러단에 소문난 우리 막장의 자랑... 분하단 말입니다, 분해요! 그 동무대신 차라리 우릴 처벌하란 말입니다!...》

나는 그의 울분을 끝까지 듣고싶었다. 가슴이 뻘근해났다. 나의 첫 명령으로 날린 화살에 또 다른 난사거리였던 과녁이 명중되었다는 안도감보다도 이들이 동지의 아픔을 참을수 없어 마구다지로 부리는 행악이 더 가슴을 찼다. 이밤 이들의 마음속에서 진주알같은 량심을 보는것 같아 감복을 금할수가 없었다. 꼭 희한한 꿈을 꾸는것 같았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거친 소리가 나갔다.

《알아두오. 막장에 노라리관을 벌리고있는 동무네 파오는 백번 죽어 마땅하오. 그러나 나는 용서하기로 했소. 어째서? 그것은 새 규률밖에서 있었던것들이었소. 지난날은 령으로 치기로 했단 말ियो. 우리의 새 군률은 오늘 아침 7시부터였소. 여기엔 대대장인 나도 례외가 될수 없소. 알겠소? 내 말은 다요.》

《...》

나의 고압적인 론리에 위압된 오천복은 더 짝소리 못했다. 억울한 분통이 단칼에 부서진듯 한 참이나 머리를 구겨박고있던 그가 일어서자 다들 주섬주섬 자리를 일었다. 그 사품에 나는 그들의 바지주머니마다 빼죽이 내민 병모가지들을 눈치챘다.

아마 그밤 내가 그들의 울분을 곱다랗게 받아들였더라면 술판이 벌어졌을것이다. 이튿날이면 소문이 돌것이다. 전사들과 허물없이 술잔을 나누는 사람좋은 지휘관이라고 나는 그런식의 인심을 끌고싶잖다. 예나 지금이나 전투원들속에 추호도 흐지부지할수 없는 독하고 뺨뺨한 지휘관이라는 자각을 주고싶다. 그 자각이야말로 나의 명령과 지시가 고스란히 스며들수 있는 바탕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대대구역에는 차츰 질서가 잡히게 되면서 대대는 제 구실을 할수 있는 대오로 추של수 있었다. 이즈음와서 종종 나는 배짱이 있고 손탁이 센 일꾼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나는 단 하나의 명령을 몰랐기때문에 파멸의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있을줄은 알리 없었다....

김석천은 여기서 수기를 멈췄다. 모든 일을 결패있고 명백하게 해치우는 박동혁의 모습이 방불히 안겨왔다. 기실 김석천은 박동혁의 그 단호하고 강쇠같은 성미가 마음에 들면서도 우려도 없지 않아 자주 신칙하기도 하였다. 굳은 강쇠일수록 부서지기 쉬운 법이다. 현대 무엇보다에 그가 파멸되었는지 자못 궁금하였다. 김석천은 다시 눈빛을 밝히며 수첩장을 넘겼다....

명령 (2)

얼어붙은 재빛구름밑으로 눈발이 설레발을 치며 흩날리었다. 실오리같이 까마득하게 보이던 장덕고개길은 뻗은 눈의 장막속에 묻혀 이제는 그 형체조차 아리송해졌다. 나는 동발목을 실은 자동차가 나타나게 될 그 고개길을 눈썹리빠지게 더듬기만 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건만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속이 까맣게 타들었다. 그 동발목에 대대의 명줄과 발전소 1단계조업운명이 걸려있었다.

어저께 물길도갱전투로 들끓던 22호막장에서 뜻하지 않은 정황이 발생하였다. 낮교대착암공들이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여 두차례의 발파를 성공시켰다. 그런데 마지막발파를 터뜨렸을 때 것처럼 우려했던 파쇄대충이 나지면서 물이 쏟아나왔다.

나는 막장에서 착암공들을 철수시키고 직접 현장을 료해하려고 나섰다. 파쇄대충구간에 들어섰을 때였다. 석수는 몇초 간격을 두고 바깥으로 퍼붓듯이 막장천정과 벽뺨으로 쏟아져내렸다. 시간이 흘러도 별반 줄어들지 않는 석수량을 봐서

는 파쇄대충중심을 대중할수 없었다. 수문지질탐사대에 세부지질조사를 의뢰해야 할것 같았다. 그런데 불현듯 나의 안전모정수리를 무엇인가 두드렸다. 천정에서 흘러내리는 물기벤 흙덩이와 돌가루였다. 내가 안전모를 벗어 털려는데 급기야 로동안전원의 새된 소리를 짓뭇개며 눈앞으로 바위돌들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갱안을 울리는 세찬 파렬음과 화염같은 먼지폭풍이 나를 확 떠박질러 나는 갱벽에 몸을 짓조으며 나뒹굴었다. 아찔한 의식속에서 더럽게는 끝장이구나 하는 절망감이 얼핏 지나갔다. 귀머거리가 된듯 고요했다. 조금 지나 자욱한 먼지속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누군가 달려와 나를 안아일으키려 했다. 그때야 정신이 든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 육체의 기능이 꿈같이 벌떡 일어났다.

《이 사람, 대대장. 죽자구 그래! 왜 자꾸 막장에 들어오지 못해 몸살을 피우는가 말이야. 이걸 보란 말이우다.》

로동안전원아버이가 성나서 고아쳤다. 몇걸음 앞에는 바위돌무지가 무드기 쌓여있었다. 등골로 식은땀이 쭉 누뻤다.

나는 묵묵히 안전등을 비쳐 무너져내린 천반을 살폈다. 미궁속같이 컴컴한 천정에는 뽕죽뽕죽 날이 선 바위들이 마치도 먹이를 노리는 사자마냥 눈을 부릅뜨고있는것 같았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리에는 방금 지나간 봉락소음으로 가득찼다. 정신적압박감이 나의 뇌리를 꼭 죄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굴진을 내밀수야 없지 않는가. 나는 그들의 생명도 책임진 지휘관이 아닌가. 우리 대대앞에 나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전에는 나도 그들도 죽을 권리가 없다. 나는 전진이나, 주저나 하는 갈림길에서 《죽을 권리가 없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 더 움뻘었다.

《아바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굴진작업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겠소. 이젠 명령이요!》

나는 로동안전원아버이한테 단단히 파업을 주고 막장에서 나와버렸다. 나는 이를 타개할 비상협의회를 소집하였다. 협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막장에 밀집동발을 세워 봉락위험을 제거하면서 굵은 굴진이나마 보장하는것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나왔다. 나는 나의 최후의 돌격명령을 좌절시킨 이 방법이 도무지 성차지 않았지만 어쩔수 없다고 결론했다. 어느때같으면 좀 더 혁신적인 타개책을 강구했을 내가 웬일인지 그와 같은 안전한 방법에 매달리는 까닭이 무엇때문인지 이상스러웠다.

나는 즉시로 대대자재참모를 화물자동차에 태워 련합지휘부가 깔고앉아 배정하는 동발목을 접수하러 산판에 띄웠다. 현대 중무소식이였다. 눈은 더 세차게 퍼붓기만 하였다. 별의별 억측이다 든다. 눈덮인 가파로운 산경길에서 차가 혹시... 아니면 필요한 동발량을 채 받지 못했을까?...젠장, 자재참모지 느렁뱅인지 일을 다 망치잖아.

나는 무턱대고 된육을 퍼붓다가 밖에 뛰쳐나왔다. 침체된 막장길이라도 걸으며 탄생각을 하기전에는 견딜수 없었다. 나의 걸음은 부리나케 22호갱구를 향했다.

22호갱구 길목에 세운 대형직관판앞에는 몇사람들이 모여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들의 뒤모습을 보고도 《노란 모자》들이라는것이 확인했다. 그들은 지난해부터 다시 빼젓이 노란 안전모를 쓰기 시작했다. 누가 물었더니 이제는 대대장(나는 노상 노란 안전모만 썼다.)과 한모습이 될 자격이 있다는것이다. 하긴 그들은 확장소대에서 하나같이 핵심력량으로 자랐을뿐만아니라 최근에는 도갱소대에 배속시켰더니 게서도 두각을 내는 굴진명수들이였다. 지금 그들은 직관판 첫 머리에 나붙은 유화판을 마주하고있었다. 굴진전투에 나선 착암공의 영웅적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였다. 나는 거기에서 ...전투원들이여, 물길굴판통을 위한 총돌격전은 걸음걸음 영웅적위훈을 기다린다...는 호소문까지 써놓도록 하였다.

누가 첫 시발을 뺏는지는 알수 없어도 22호갱 전투원들은 그 그림판앞에서 교대별로 결의들을 다지고야 입갱하였다. 아마 이들도 방금 모임을 가진 모양이였다. 현대 왕청같은 말들이 들려와 나는 걸음을 세웠다.

《우리 직관원이 틀려먹었어. 낮모를 착암공을 그려넣었거든.》

오천복의 핀잔이였다. 모두들 의아한속에 누군가 묻는다.

《그게 어쨌다는거야?》

《우리들중 누군가를 저 자리에 세우면 더 좋겠어.》

《오, 그럼 누구를 그려넣는다? 이 영민이? 천복이 너?》

《천복인 안돼. 잔뜩 빼여진 코가 잡칠테니까.》

《뭘, 어찌고 어찌!》

《으하하...》

폭소가 터졌다. 몸을 제끼고 눈발속에 웃음을 널리던 그들은 등뒤에 서있는 나를 띄여보고는 그쳤다. 나의 어두운 낮빛이 이들의 기분을 싸잡어삼킨듯 싶다. 그들의 유쾌한 룬은 실없는 객담들이 아니였다. 영웅적위훈에 대한 갈망이 숨배여있었다. 오천복은 저으기 상기된 눈빛을 나한테 쳐들었다.

《대대장동지, 동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발목만 있으면 와닥닥 달라붙어 막장을 보수하고 착암을 들이댈수 있겠는데...》

《무슨 감투끈인지 아직 기별이 없소.》

《우리가 막장에 들어가 동발준비작업을 할테니 동발만 밀어주십시오. 말하자면 탄약만 공급해달란 말입니다. 대대장동지?》

오천복의 담찬 음성은 절절했다. 그 부탁은 나를 또 한방 두드렸다. 나는 비로소 내가 지금 서있어야 할 위치를 탈선했음을 직감했다. 그래, 지

금은 뭐니뭐니해도 동발이 급선무다. 동발만이 우리의 전진을 담보하는 탄약이다. 나는 동발 수송차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 신경질들에 화를 내며 방향을 다른쪽으로 꺾었다. 이제라도 운수대에 알아봐야 했다. 눈발도 좀 성글어지는것 같다.

운수대가 위치한 곳을 질러가려는데 줄지어선 빈 광차들이 막아섰다. 그 아래 버럭더미에서는 운광공들이 버럭에 묻힌 동발목을 바줄에 매여 잡아끌었다. 동발회수사업은 대대가 오늘 아침 취한 조치였다. 두툼한 솜옷에 감싸여 눈사람같이 뚱뚱한 처녀가 작업을 지휘했다. 운광소대장이 된 영옥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 잊었던 생각이 불쑥 떠올라 제창 그를 불렀다. 영옥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급보로 달려왔다. 그 모양은 흡사 하얀 눈덩이가 굴러오는것 같았다. 그의 발밑에서는 눈발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나는 그가 내앞에 와 제식동작으로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럴 경향이 없었다.

《동무넌 지금 대기중이요?》

《그렇습니다, 대대장동지. 우리 운광소대는 동발목이 도착하는 즉시로 막장까지 운반할 광차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좋소 그건 내가 조직할테니... 동문 이제 말이에요. 막장에 가야겠소. 먼저 내 사무실에 들리면 책상아래서랍에 사과구렁이 있을거요. 경리부동무들이 도갱소대원들을 지원하겠다고 이 겨울에 우야 구입한 파일이요. 좀전에 오천복이네 조가 입갱했소. 갖다주시오.》

《알았습니다.》

영옥은 야무지게 대답하고는 주춤거렸다. 땀에 익어 발깃한 볼에 밤알을 물고 까박을 불었다.

《대대장동지, 경리부동무들은 너무 하군요. 자기들이 직접 공급할것이지 왜 자꾸 대대장동지한테 심부름을 시킨답니다까?》

《거야... 내가... 막장에 자주 드나드니 그러겠지.》

나는 궁색스레 얼버무렸다. 때늦게야 경리부일군들의 이름을 빌어 영옥이한테 현장파일공급을 자주 시킨 일들이 기억되었다. 현장파일공급은 누구도 몰라야 하는 나의 뒤공작이었다. 겨울에 막장안에서 착암공들의 갈증을 더는데는 신선한 사과이상 없었다. 나는 련합지휘부후방과장을 구슬려 얼마간씩 얻곤 하였다. 허지만 나는 그것이 생색으로 될가봐 몹시 조심했다. 왜냐하면 착암공들은 지휘관의 자그마한 선행도 크게 떠들어서였다. 나는 다만 그들에게 필요하고 구입할 길이 있어 얻어들이는것뿐이었다. 그렇잖아도 그간것을 갖고 뒤에서 인심쓰는 대대장이라고 오인할가봐 은근히 마음을 썼는데 영옥이한테 들킨것 같았다. 반짝이는 영옥의 눈빛이 뻔드림히 지켜본다. 그의 작은 입술에는 미묘한 미소가 그어졌다.

《걱정 쩡 놓으십시오. 대대장동지의 이름은 팔

지 않을테니까요. 대대장동진 여전히 인정마른 팽담한 지휘관으로 남아있으면 될게 아니예요. 호호...》

영옥은 그 발랄한 코끝을 쳐들고 알곳은 웃음을 터뜨리면서 쟁싸게 달아뻘었다. 나의 속심을 발가놓은것이 꽤나 통쾌한 모양이었다. 일은 참 맹랑하게 되었다. 하필이면 오늘같은 날에 파일생각을 할건 뉘람. 동발목준비작업을 하게 될 오천복이네를 돕고싶던차에 영옥이가 눈에 띄우자 얼핏 사과가 생각났지?... 오늘은 전탕 뒤죽박죽이다. 어느 한곳에도 마음이 집착되지 않는다. 이 모든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것인지?...

나는 운수대에 들렀다. 운수대에서는 이미 동발수송차의 행각을 알고있었다. 장덕고개 눈길에 빠져 역사질한다고 하였다. 나는 더 지체할새없이 화물자동차에 인원들을 싣고 장덕고개로 떠났다. 눈구덩이에 빠진 차를 뽑아내는데 반나절품이나 걸렸다. 늦은 오후에야 동발차를 끌고 들어닥친 나는 막장에서 전화로 급히 찾는다는 전갈을 받게 되었다. 사무실로 뛰어가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목갈린 석싹한 목소리가 다급히 공명판을 울렸다.

《대대장인가?... 막장굴진을 승인했수다?...》

로동안전원아바이의 밀도끝도 없는 전화였다. 도대체 물음인지 제가 승인했다는 소린지 종잡을 수 없다.

《그건 무슨 소리요?》

《동발준비를 하겠다고 하여 내가 잠간 자리를 드렸지요. 그새에 대대장이 승인했다구 우기잖겠수.》

《누가?》

《천복이네들이지요. 지금 막 착암을 들이대고 있수다. 대대장이 허락했다구...》

《바람은 누가 넣소?》

《영옥이지. 그 애야 한다하는 압축기운전공이 아니요. 내 대대장한테 알아보겠다고 하니... 너석들이 썰썰 휘우다.》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는 일진 광풍이 일고 눈앞에서는 번개불이 번쩍했다.

《당장 중지하십시오!》

나는 송수화기를 내동댕이치다싶이 하고는 걸림에 막장으로 달음쳤다. 불덩이같은 분노가 가슴에 불끈거려 온몸이 핫핫 달아올랐다. 내가 현장검증을 통해 일체 착암을 중지하기로 결심한 곳에... 저들이 뭐라고 나를 초월하여 달려든단 말인가. 나의 분노는 위험천만한 막장에 뛰어든 그들의 생명보다도 함부로 내 직권을 걸고 나의 명령을 제멋대로 거역한 거기에 있었다.

막장까지의 갱도길은 거의 10여리길이다. 정신없이 달리던 처음엔 분노가 나를 떠밀었다면 시간이 얼마간 지나서부터는 그사이 막장이 잘못되었을것만 같은 위구가 더 조바심을 치게 했다. 그러나 막장어름에 접어들자 의외의 광경이 나를

잡아휘둘렀다. 전혀 예상못한것은 아니였어도 너무도 상상밖의 비장한 모습이 나의 본격은 물론 위구마저도 얼어붙었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불빛이 흰한 막장을 기관총런발사격소리로 뒤흔드는 착암기소리... 암반에 날창같은 정대를 틀어박고 사수마냥 착암기를 랑손에 억세게 틀어잡은 오천복이와 보조공들, 그들의 머리우에 쏟아지는 석수를 막아주려 우산을 쳐들며 발돋움하고 있는 영육이, 그의 안전모와 어깨로는 도랑물같은 석수가 흘러내렸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들었다. 그 흐르드는 망막에 돌연히 어른거리는 작열하는 포탄... 번뜩이는 섬광... 충천하는 화광... 그 처절한 불길속으로 총탄을 휘두르며 돌격전을 벌리는 기관총수들... 허지만 그 불사의 환영들은 인츰 안개속에 잠긴듯 흐리마리해진다. 그때 별안간 막장이 흔들거렸다. 천정우에 드리운 바위가 움썩 아래로 빠져졌다. 또다시 움썩... 흙부스레기와 돌가루가 부실부실 떨어진다. 점점 아래로 늘리우며 물속에 잠기는 막장... 딥고선 땅이 통채로 기우뚱거리 아래도리가 부르르 떨었다. 몸서리치는 전률속에서 어렴풋이 기관총런발사격소리같은것이 마쳐왔다. 그제야 나는 무시무시한 환각에서 깨어났다.

그러자 나의 가슴속에서는 여태 나를 지탱해 주고있던 피임돌같은것이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장승처럼 한자리에 버티고서있는 나는 순식간에 속이 빈 허울로 되어버렸다.

착암기소리가 똑 멎었다. 귀청이 멍멍한 적막이 깃들었다. 불시에 외로움이, 끝없이 외진 무인도에 홀로 서있는듯 한 불안한 고독이 휩쌌다.

《대대장동지...》

누군가 내앞으로 걸어왔다. 여럿의 발자국소리도 저벅저벅 이어졌다.

《대대장동지, 용서하십시오. 실은 로동안전원아바이를 다른데 유인하고는 막장을 조사했지요. 우린 이달안에 무조건 300미터굴진을 돌파해야 하니까요. 마침 방도를 찾게 됐지요. 큰바위 몇놈만 떨어뜨리면 별일없을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바위들을 죄다 떨구고 착암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이가 복잡하게...》

《그건 죄 사실이이지우. 그러나 이 사람들아. 대대장의 명령이 없이...》

《아하, 또또... 아바이, 자요. 사과 한알 시원히 드시라는데.》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나는 돌아서 기계적으로 한걸음한걸음 짚었다. 빈 껌데기만 남아 걸음이 허청거렸다. 무기력, 허탈, 치욕...

그들은 착암을 중지한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막장인 자기의 참호를 지켰었다. 그러나 지휘관인 나는 그 참호에 포탄이 파렬할가봐 먼저 도망치려 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은 나의 명령을 무시

했는가.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싶어 내린 명령이 아니던가? 아니, 아니었다. 그 명령에는 나자신의 안전과 보신이 더 짙게 깔려있었다. 인간에 대한 진정어린 사랑이 없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우리 당의 높은 뜻을 결사관철하는 꺾이지 않는 신념과 의지가 없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하기에 그들은 나의 《퇴각》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내린 결사관철의 《진격》 명령에 복종한것이다. 그렇다! 나는 자신에게는 결사관철의 명령을 주지 않았다. 나만이 명령밖에 세웠다. 구태여 지휘관인 나자신한테는 명령을 필요로 여기지 않던 나... 나를 외진섬에 떠밀어버린것도, 최후돌격선에서 주저앉게 한것도 나였다...

나는 한갓 빈껌데기, 허울이었다. 지금까지 대오앞에서 명령을 웨치던 나는 우리 시대 선군지휘관들의 흉내를 낸 그림자이고 허상일뿐이다. 그 그림자와 허상이 이제 어떻게 다시 대오앞에서 명령을 할수 있단 말인가!...

저으기 흥분되어 수기와 마무리를 지은 김석천은 저고리웃단추를 끌러놓았다. 가슴속에서는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시원한 숨결이 흘러나왔다. 박동혁의 파오는 이번 대봉락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문제였다.

김석천은 도당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마음은 내내 발전소건설장에 가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난후 도당책임일군들을 찾아 발전소건설형편과 박동혁의 문제를 상론한 뒤에야 승용차로 되돌아왔다. 날은 저물어 어스름이 덮였다.

김석천의 가슴은 이튿날수 없는 감개로 끓었다. 고난과 시련은 중첩되여도 그속에서 자라는 인간들을 볼 때마다 선군시대의 아름다움과 함께 투쟁의 보람을 사무치게 느끼곤 하였다. 오늘의 인간들의 리념과 긍지, 피로움과 고민, 억센 호흡들이 새삼스레 심장을 울렸다. 발전소언제보다 사람들이 더 커가고있었다.

김석천은 승용차가 발전소건설장초입에 들어서자 운전사한테 곧바로 22호갱에 가자고 일렸다.

투광등을 켜놓아 대낮처럼 밝은 22호갱구앞은 온 대대가 버럭운반에 떨쳐나선듯 와와 끓었다. 광차소리, 삽질소리, 웨침소리, 호각소리...

책임비서차가 갱구앞에 멈춰서자 부부장이 삽을 든채 마주왔다. 차에서 내린 김석천은 부부장의 어깨너머로 작업장을 일별하다 그 누군가의 눈길과 마주쳤다. 오천복이 당황한 눈길을 인츰 떨구더니 하던 일을 계속했다.

김석천은 광차들에 버력을 퍼담고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수고들 하는구만.》

그는 모두거리로 인사를 하고는 부부장한테 물었다.

《박동혁동무가 어데 있소?》

부부장이 잠시 사람들속을 살피더니 한곳을 가리켰다. 광차그림자가 길게 비낀 곳에서 박동혁

이 허리를 굽히고 정신없이 삽질을 하고있었다. 김석천이 그앞에 다가가자 동혁은 흠칫 놀라 허리를 폈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속눈썹밑으로는 쇠조박같은 눈빛이 한순간 떨어지 꺼져버렸다. 그를 지켜보는 김석천의 눈굽은 축축해났다. 창백한 시선을 쳐들지 못하고 후줄근해진 키를 구부정하고 서있던 동혁은 돌연 머리를 앞으로 꺾었다.

《책임비서동지... 전...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갑자기 김석천의 질은 눈썹이 미간을 좁혔다. 물기에 젖어있던 눈빛은 서리발로 번뜩이였다. 격한 분노가 쏟아졌다.

《웁소! 동문 위대한 장군님의 신임과 믿음을 배반했소. 돌격선에서 도망친 지휘관, 동문 지휘관의 자격을 상실했소. 우리 연합당위원회는 동무의 제의를 접수할것ियो...》

김석천은 심장을 저미는 날카로운 아픔에 잠간 숨을 돌렸다. 믿었던만큼 더 분하고 가슴이 쓰렸다. 그처럼 소중히 싸안아 키워주고싶던 인간에게서 목숨보다 귀중한 정치적인임을 놓고 결심하기보다 더 피로운 일은 없었다.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곡절많은 인간들과 간혹 만나게 되는 그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였다.

《그래,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결심ियो?》

《그냥... 막장에 있게 해주십시오. 명령집행에 습관되는 그 길에서 단련하고싶습...》

박동혁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삼켰다. 커다란 눈이 숯불처럼 타오르고 삽날같이 각을 진 억센 턱이 강인한 결단에 떨어졌다.

《음.》

김석천은 용기를 잃지 않은 담대한 동혁을 이윽도록 직시하고는 시선을 사람들한테 옮겼다. 긴장한 눈빛들이 그한테로 모아졌다. 김석천은 조용하면서도 진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동무들, 나는 오늘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식지 않고 끓는 쇠물을 보았습니다. 쇠물처럼 깨

끗하고 쇠처럼 강한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만이 자기의 잘못을 갖고도 가장 최악의 경지에서 자신을 무자비하게 타매할줄도 알고 반성도 할수 있습니다. ... 동무들, 우리 연합당위원회는 상급당조직과 의논하여 22호물길쟁대대 대대장이었던 박동혁동무를 자기 직책에서 해임하고 착암공 박동혁동무를 대대장으로 새로 임명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순간 납덩이처럼 무겁게 드리웠던 침묵을 깨치며 폭풍같은 기쁨이 터졌다. 건설자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몸을 결박하고있던 동아줄이라도 풀어내치듯 가슴들을 후련히 열어제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동지에 대한 보증임과 동지에 인간을 옹호하고 값높이 내세워주는 어머니 당조직에 드리는 뜨거운 감사이기도 하였다.

오천복이 사람들속을 비집고나와 김석천에게 목메인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김석천은 그의 손을 확 잡았다.

《천복동무가 오늘 나를 크게 도와주었소. 동무가 아니었다면... 역시 선군시대 로동계급이야!》

김석천은 천복의 잔등을 철썩 두드리고는 다시 물기어린 눈으로 동혁을 건너다봤다.

박동혁은 별안간 신음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휘친했다. 그는 넘어질듯 비칠하더니 반사적으로 팔차모서리를 잡았다. 김석천은 그를 부축하여 얼른 그의 양어깨를 틀어잡고 힘주어 말했다.

《동무는 이 시각부터 대대지휘를 맡으시오. 대대는 22호갱봉락복구는 물론 300미터 굴진을 돌파하여 제기일까지 물길굴관통을 보장하시오... 대대장동무, 어서 자신한테 먼저 명령을 주시오...》

김석천은 심중에 가득차 끓는 정에 목이 메여 잠시동안을 두었다 이었다.

《동혁동무- 오늘은 참 기쁘오.》

박동혁의 각진 턱이 부르르 떨었다. 억센 사나이의 가슴에서는 오열이 터져나왔다.

가사

내 고향의 버드나무숲

최충웅

맑은 물 흐르는 내가를 따라
버드나무 푸른숲 펼쳐져있네
어린 시절 동무들과 책을 읽으며
고운 꿈 안고서 뛰어놀던 곳
아 내 고향의 버드나무숲

피플새 우짚던 그 여름날에
그대와도 여기서 처음 만났네
맑은 내가 잔디위에 나란히 앉아

첫사랑 뜨겁게 속삭이던 곳
아 내 고향의 버드나무숲

가슴속 고운 꿈도 참된 사랑도
푸른숲 여기서 꽃으로 폈네
내 조국의 귀중함을 새기여주며
몸바쳐 지킬 마음 불타게 하는
아 내 고향의 버드나무숲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을 지니고 조국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

-공동구호에서-

련시

이해를 보내는 노래

박세옥

이 해는... 이 해는

못잊을 해, 잊지 못할 해
2005년이여
너는 이 땅에 남아있으리
오면 한번 오고
가면 다시 못오는것
가고오는 해라더라
하지만 너는... 너는
우리 당의 력사에 우리 조국의 력사에
다시는 없는
경사로운 60돐과 더불어 남아있으리
이 땅에... 이 땅에
해가 바뀔수록 더 빛나게
세월이 갈수록 더 찬란하게
오고가는 해들은 너를 부러워하리라
잊지 못할 2005년이여

우리는 흙냄새를 자랑한다

들 한끝우에 뜨는 해
들 한끝너머 지는 해
너와 나 온 한해
우리는 들에 있었다
철길 건늌길과 도로교차점에서
자주 우리는 오래 멈춰서도 좋았다
이 땅의 모든 바퀴들은
농촌으로 기본전선으로
쌀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우리네 목숨
걸어진 기쁨진 땅에
한해에도 두벌농사
밀보리가을에 벼가을이여
우리는 땀을 씻어도

흙물은 손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우리는 발을 씻어도
흐르는 논도랑물에 씻었다
전선병사들에게서
화약내가 제격이듯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풍기는
흙냄새, 흙냄새를
이해의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노라

후대들이여 잊지 말라

녕원, 어랑천, 삼수...
돌아보는 발전소건설장
그때 너는 나에게 말했더라
호수가 많아지는 나라
때로 평범한 한마디의 말이
한 시대를 담을 때가 있노라
나의 조국은 산이 많은 나라
어릴적부터 나는 배웠노라
하지만 너의 그 말에 가슴설레임은
조국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 조국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은
아름다운 호수의 이름들을 외우리라
이제 그 호수들을 바라볼 그들에게
나는 말하고싶다 그 아름다운 호수는
미체의 봉쇄와 제재를 뚫고
조국의 어려운 날에 세워진것임을 후대여 말라
그리고 용감한 우리 시대의 건설자들을 잊지
말라

그날은 비가 내려도 좋았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려도 좋구나
축전개막식장으로 흐르는
민족통일대축전 대행진
내리는 비속에서도
두 젊은이의 유쾌한 이야기
-부쉬가 이 흐름을 불가요
-눈감고있겠지
-통일의 발걸음소리를 들을가요
-귀를 막고있겠지
-통일의 웃음소리를 들을가요
-이를 갈고있겠지
비는 쏟아져도
즐겁게 우리는 걸었다
서로 손을 잡은
북과 남 해외동포들
통일을 원하는 우리 민족의 발걸음앞에
뒤걸음치는... 뒤걸음치는
부쉬의 이그러진 상통을 보며
목이 쉬도록 힘차게 구호를 불렀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만났다

조국의 자랑스런 아들들이여
딸들이여
우리는 만났다
당의 부름에 심장을 불태우며
10월을 안고살며
10월의 광장으로 온
영웅들을 우리는 만났다
뜨거운 인사 그리고 뜨거운 포옹
그렇듯 넓고 커보이던 큰 광장이
이제는 좁아보이는구나
대홍단과 연백벌 그리고 금당벌
성강과 라남, 녕원과 삼수
대안과 백마-철산...

자랑에 자랑을 안고
조국의 곳곳에서 영웅들이 왔거니
광장이 좁을수밖에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해 산 사람들
자기 고장의 이름을 빛내인 사람들
이 땅에 영원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
조국을 빛내인 아들들에게
조국을 빛내인 딸들에게
조국은 축복한다
축포가 오른다 조국의 하늘에
영광이 있으라 영웅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잘 가거라 2005년이여

잘 가거라 온 한해
어깨도 나란히 같이 달려온
2005년이여
먼길을 떠날 때면
다시 오지 못할 때면
남는이, 가는이 당부가 많더라
하나 필요하랴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는 오래동안 나누었거니
이 땅에 비길 먼 앞날까지
미래는 우리의것
미제의 봉쇄따위를 겁내라
미제의 핵위협따위가 두려우랴
백두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의 선군장검을
그이의 전사들인
우리모두 억센 손에 틀어쥐고있거니
우리는 장수, 우리는 무적
기쁨의 해들이여 이 땅에 어서 오라
은은한 새해의 종소리 울려온다
헤여지기 아쉬운 벼를 바래우듯
우리는 너를 바래운다
2005년이여 잘 가거라
...하지만 너는 남아있으리
빛나는 우리 당의 력사속에
네가 세운 창조물들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 영원히

장엄하고 격동적인 시대와 함께 전진해온 한해

-잡지 《조선문학》(2005년)에 발표된 작품들을 돌이켜보며-

최길상

뜻깊은 역사적사변들로 충만된 올해에 우리 작가들은 장엄하고 격동적인 시대의 격류속에서 잡지 《조선문학》과 함께 자랑스러운 한해의 창작년륜을 새겼다.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작품들을 일괄해보며 가슴흐뭇이 되새겨보게 되는것은 우리 문학이 위대한 현실과 호흡을 같이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위업수행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였다는것이다.

이해에 우리는 위대한 우리 당 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우리 문학은 이 거창한 역사적사변들과 맥박을 같이하며 시대와 생활과 인간을 격정적인 화폭으로 형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냅니다.》

올해에도 우리 문학작품은 혁명투쟁의 강력한 추동력이 되어 그 감화력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잡지 《조선문학》지면에 실린 수백여편의 문학작품들이 그 뚜렷한 실증으로 되고있다.

올해 우리의 작가들은 새해 정초부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양양된 투쟁기세를 더욱더 북돋아주는 힘있는 호소가 담긴 문학작품창작에 일시에 진입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단위들을 비롯한 공장과 농촌, 초소들과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현실체험을 진지하게 하면서 시대의 전형적성격들을 찾아내어 자기들의 작품에 담아내기 위한 피타는 창작전투를 벌려왔으며 잡지 《조선문학》의 편집집단도 이에 발맞추어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편집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올해 잡지 《조선문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명작으로 자기의 지면을 장식함으로써 선군혁명문학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형상한 여러편의 수령형상단편소설들과 수십편의 서사시, 서정시들을 편집함으로써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왔다.

잡지 《조선문학》1호에 실린 수령형상단편소설 《병사들을 위한 날》로부터 수령형상단편소설들인 《류성이 없는 세계》, 《파스한 바다》, 《불타는 백설》, 《떼가 흐른다》, 《뜨거운 석양》 그리고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한 수십여편의 서정시들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주신 서사시 《조선로동당 만세!》, 《총대우에 날리는 당기》, 시뭇음 《어머니 우리 당》, 시초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였는가》를 실음으로써 우리 문학의 사상예술성을 널리 시위하였다.

올해 우리 작가들은 당창건 60돐과 조국해방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소리높이 구가한 수많은 시작품들과 가사작품들을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발표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진군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올해 강성대국건설의 기본전선인 농업부문에 현실체험의 발을 꼭 잠근 우리 소설가들과 시인들은 올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을 잘 반영한 여러편의 우수한 단편소설들과 짙은 서정으로 충만된 20여편의 서정시들을 창작하여 우리 문단에 이채로운 향기를 더해주었다.

더우기 주목할만한것은 올해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 선군시대의 전형적성격들을 많이 찾아내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개성적인 인간형상, 산인간의 모습으로 잘 그려냄으로써 생활의 선도자로서의 문학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한것이다.

선군시대 새로운 인간형상, 이것이 올해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수백여편의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본 새로운 발전의 한 면모이며 선군혁명문학건설에서 올해 우리 작가들이 이룩한 성과중의 성과이다.

1. 선군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상을!

문학과 현실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체문학은 언제나 현실의 의의를 첫자리에 놓는다. 현실을 떠난 문학이란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그리는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

다.

우리 문학창작에서 당연한 이 진리를 창작실천에서는 가끔 망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론계에서도 이 문제를 언제나 중시해왔다. 리치가 뻔하면서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 는 현상을 두고 현실에 대한 작가적체험의 부족과 뜨거운 열정문제를 그 중요한 원인으로 들어왔다. 현실에 대한 체험과 열정, 확실히 여기에 위대한 우리의 선군현실을 형상으로 옮겨 재현할 수 있는 근본고리가 있음을 이해의 단편소설들을 읽고 더욱 확신하게 된다.

잡지 《조선문학》에는 현실에 대한 체험과 열정문제를 두고 많은 시사를 주는 좋은 소설들이 여러편 발표되었다. 뿐더러 작품의 형상수준이 일정한 높이에 올라 독자들을 기쁘게 했다. 잡지에 발표된 여러편의 작품들을 골고루 평균주의적으로 라렬하느니보다는 선군시대가 배출하는 새로운 인간문제가 새로운 인간형상을 통하여 어떻게 형상적으로 해명되고있으며 여기에서 현실에 대한 작가의 미학적파악의 심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보기로 한다.

작가는 항상 선군시대의 새 생활, 새 인간의 탄생과 장성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따라서 작가는 다양한 생활현상중에서 의의있는 주제에 관심을 돌려야 하며 선군시대에 대한 신념과 락관을 가진 새로운 전형을 옮겨 파악하여야 한다. 원래 주체사실주의 전형화는 항상 전진하는 생활에 대한 긍정과 그 과정에서 새 인간의 발견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곧 끝없이 다양한 선군시대의 생활현상들중에서 어떤것들을 선택하며 어떻게 일반화하는가 하는 작가의 사상미학적립장과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단편소설들인 《백로페 날아든다》(김명익작), 《금대봉마루》(류정옥작) 등은 선군시대가 낳은 인간들의 아름다운 룰리와 그것이 발휘하는 거대한 영향력과 감화력으로 중요한 창작적관심을 돌리고있다. 이 작품들은 우리의 자랑찬 선군현실이 어떠한 새로운 룰리를 형성하는가 하는것을 사회주의조국과 선군시대와 인간에 대한 깊은 미학적파악에 기초하여 새로운 성격을 창조하여 해명하였다.

단편소설 《백로페 날아든다》에서 작가는 주인공 정연순의 개성적인 성격적면모를 감동깊게 그리었으며 차덕준관리위원장의 감심과 성장과정을 합리적인 계기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상하였다. 이 작품의 좋은점은 무엇보다도 주인공 연순의 개성적인 면모가 잘 나타났다는데 있다. 그는 선군현실이 배출한 생동한 개성이다. 그는 생활속에서 항상 우리 당이 바라는 절실한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체질화한 새세대이며 생활과 인간에 대한 강한 애정과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고있다. 작가는 이 인물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대한 높은 자각성으로 특징지으고있을뿐아니라 진취적이며 미래에 대한 락관적인 강한 지향과 독특한

개성적인 품모에서 그리었다. 작품에서 정연순의 행동과 마음씨의 매혹성은 비단 그가 나아린 처녀로서 벌방에서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관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 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있는 아버지 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겠다는 신념이 그의 온넛으로 되었다는것을 자연스럽고도 생활적으로 안받침하여 효과적으로 그리고있다는데 있다. 그가 《백로소녀》로 불리우게 된 뜻깊은 사연, 농장분조장으로부터 작업반장으로 되기까지의 성장과정, 사랑하는 고향과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 아버지의 뜻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기존상식으로는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논벼농사의 전작으로 감자농사를 실현해가는 피타는 노력 등이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생활의 풍만한 토양우에서 그의 개성적형상의 뚜렷한 면모를 돋구어주며 그것이 곧 차덕준의 감심과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살아나게 하고있다. 특히 초기복무사관 순철이와의 류다른 계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랑의 곡절 등이 연순의 개성적면모를 부각하는데로 지향시키고있는것은 이 작품의 형상적우점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관리위원장 차덕준과 기사장 한공식에 대해서는 그의 인간적특성,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그려주지 못하였다. 다만 어린 처녀의 이악한 노력에 어쩔수 없는 공색한 처지에서 주인공이 하는 일에 관망하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생활적인 설득력을 충분히 깔아주지 못하고있다. 이런탓으로 하여 새세대들의 진취적인 성격에 반작용하는 이들의 행위가 논에서의 전작 감자농사실현에 어떤 모순적인것으로 되는가 하는것을 생활적으로 밝힐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 결합의 세계를 우리는 종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만다. 작품은 《건실에서 공법을 어기면 다 지어놓은 건물이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농사에서 경작법을 어기면 한해 농사를 망쳐버리게》된다는 한공식의 주장에 차덕준도 묵묵히 머리를 끄덕이는 정도로 보여주고말았다. 이런 사정은 필연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좀더 심화하여 보여주어야 할 심리세계를 스쳐버리고 안일하게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부족점은 생활의 룰리에 철저히 의거하고 인간성격발현의 구체적인 계기들을 타당성있게 깔아주려는 깊이있는 탐구보다도 의도를 앞세워 인물형상을 개념적으로 한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선군시대의 인간성격탐구에서 현실속에서 발양되고있는 새로운 생활관, 도덕룰리관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형상하고있는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단편소설 《금대봉마루에서》(류정옥작), 《보통사람들의 이야기》(김교섭작), 《발걸음》(김순룡작) 등은 선군시대인간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혁신적으로 형성되고있으며 선군시대의 새

로운 도덕률이 어떻게 발양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려는데 창작적지향을 두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작품의 주인공들을 얼마만 한 정도로 그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 도덕률적정신세계에서 성격상특징을 천명하고 있으나 하는 예술적일반화의 힘, 형상적능력에 있어서는 각이한 모습들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면서도 이 주제의 단편소설들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삶의 가치관, 새로운 룰리의 문제를 선군시대의 요구와 정신에 맞게 생활과 인간을 탐구하고 형상하였다. 우리 선군시대에 있어 자랑스러운 룰리는 다름아닌 우리 당의 선군로선을 받들고 관철해나가는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사회주의붉은기를 지켜 헌신하는 인간들의 자각적인 투쟁속에 있다.

단편소설 《금대봉마루》는 일정하게 성공한 작품이다. 작품은 선군시대 사람들속에서 표현되고있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룰리문제를 특징적인 생활계기들과 설득력있는 인간관계와 생활모사를 통하여 흥미있게 엮어나갔다. 선군시대의 새로운 룰리에서 청춘들의 애정룰리는 매우 특징적이면서도 이채롭게 발현되고있다. 작품에서 영예군인인 주인공 서정님과 제대군인인 위순길의 사랑은 선군시대에 새롭게 꽃피난 숭고한 룰리의 표현이다. 이들의 사랑은 그 어떤 일방적인 동정이나 의무감으로써가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가장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지향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결한것이며 공고한것이다. 작품에서 서정님이 위순길의 사랑을 인차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너자의 행복이란것이 남편의 사랑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선군시대앞에 지닌 청춘의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데 있다는 높은 리상에 의한것이며 위순길이 그의 참뜻을 리해하는 과정은 곧 이들의 사랑이 가장 고상한 시대적룰리의 발현과정 다시말하여 선군시대 청춘들의 애정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공고하게 형성되는가 하는 형상적반증으로 된다. 더우기 서정님이 군사복무기간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정황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귀중한 두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이라는것을 녀두에 둘 때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하면서도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인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특히 영예군인 처녀와 제대군인 총각의 사랑을 량만적으로 채색하여 밝고 환희롭게 그린것은 선군시대 청춘들의 참다운 삶의 가치관, 애정룰리에 대한 열렬한 칭송으로 된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삶의 참다운 가치관을 보여줌에 있어서 그 구체적정형과 수준은 각이하다. 일부 작품들의 경우를 놓고볼 때 작품의 예술적진실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결함의 하나로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성격의 불명료성, 정신적빈약성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술적진실성은 생활 그자체에 뿌리박으면서도 그것의 단순한 기록적라렬이나 복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형적인 성격의 창조를 통하여 구현된다. 여기에는 높은 미학적견지에서 생활사실의 올바른 선택과 평가, 새로운 성격의 탐구, 예술적일반화의 훌륭한 기능 등이 통일적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작품의 매력을 단지 그리여지는 사건의 비범성에서만 구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사건의 의의, 행동의 위훈과 함께 그 위훈의 주인공인 새로운 인간의 정신적풍모에 대한 작가의 심오하고도 매혹적인 추구력이 살아나와야 한다. 작가는 성격들을 그것이 관계하고있는 사건들의 형태라거나 외부적표징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의 내부적특징과의 통일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작품들에서 성격의 본질적추구가 약하고 이러저러한 생활사실이 있었다는 식으로 긍정기사식의 보도적서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일련의 치명적인 형상적약점을 발로시키고있다. 단편소설 《발걸음》은 이러한 면에서 심중한 결함을 가지고있다. 긍정인물인 연구소 부소장 준식과 부정인물인 연구사 학철을 인위적으로 대치시켜놓고 갈등을 조성해놓음으로써 형상적결과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게 하였다. 두 인물은 군사복무를 함께 한 전우이며 학철은 분대장으로서 준식의 전사생활을 이끌어준 상관이였고 그에게 혁명적군인정신이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실천적 모범으로 가르쳐준 전우이다. 제대후 대학시절에는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졸업후에는 연구소에 배치되어 몇해어간에 놀랄만 한 연구성과를 내어 학계에서도 소문이 났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까닭도 없이 자기 공명과 안일에 빠진 부정인물이 되고말며 후에 부소장으로 부임해온 준식의 교양개조대상이 되고만다.

물론 여기에는 예술적기교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실을 깊이 알지 못하며 성격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약점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선군시대의 현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군대생활기간에는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높이 발휘되어 대중을 감화시키고 이끌어어나가는것이 본질적인 생활로 되어있다. 이러한 시대의 기본정신을 떠나서 아무런 생활적계기와 타당성도 없이 학철을 부정화하고 준식을 긍정화하여 대치시켜놓은것은 선군시대의 본성적요구와도 배치되는것이며 생활의 룰리, 성격의 룰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단편소설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도 우에서 언급한 작품과 류사한 약점을 드러내고있다. 물론 작품의 꾸밈새와 묘사에서 작가의 재기가 엿보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 성격발전의 룰리를 무시함으로써 형상의 비진실성을 가져왔다. 주인공 김석이가 제대된 후 고향인 평양으로 가지 않고 홀로 사는 전사한 전우의 어머니를 모시려고 립산마울로 갔다는 설정자체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거니와 화가가 되려는 자기의 희망을 그곳에서 성취해보겠다는 그의 지향도 매우 어정쩡하며 게다가 미술대학 동창생이며 애인인 최정옥이마저

김석이의 소행에 감심하여 립산마을로 내려왔다는 것도 생활의 론리를 무시한 형성이다. 이러한 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에 발양되는 새로운 생활관, 료리관을 추구하고 있지만 작품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러한 약점도 역시 작가가 우리의 선군현실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새롭게 발양되고 형성되는 료리의 세계에 대한 작가적인 숙고와 심도있는 체험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선군현실을 재현함에 있어서 현지 취재수첩을 옆에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작품을 엮어내서는 결코 새롭게 형성발전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료리를 옹계 밝힐수도 없으며 우수한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작가의 생활연구, 현실체험이 충분히 무르익어 새로운 성격을 발견하는 형상적사색, 정열속에서 주인공이 하나의 뚜렷한 영상으로 새겨져 작가의 붓대를 밀어나갈 때 그 작품은 독자들의 심장을 후덥게 해줄 것이며 넋을 고무해줄 것이다.

우리의 선군시대의 생활을 알라. 현실에 깊이 침투하라. 어느때나 선군문학창조에서 좌우명이 되어야 할 이 신호가 오늘처럼 우리의 붉은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장엄하고 격동적인 시대에 간절한 요구로 나서는 때는 없었다. 우리의 선군현실을 끝없이 사랑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는 때 선군시대를 떠밀어나가는 담당자인 생동한 인간성격을 부각할수 있을 것이다.

2. 발견과 느낌

이해의 서정시들을 읽고 먼저 생각되는것이 우리 시들에 발견과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것이다.

시는 느낌이다. 느낌이 없을 때 그것은 시로서 가치를 상실한다.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다. 다시말해서 서정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은 재미있고 실감있는 이야기로, 극작품은 극적견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끌지만 시는 풍부한 서정미로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우리가 시작품에 대하여 가장 초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요구로 제기하는것이 바로 서정미이다. 물론 서정미는 문학의 어느 형태에서나 다 구현되어야 하지만 시문학인 경우에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은것이다. 풍부한 서정미는 시문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비결이다.

시문학의 서정미는 창작실천적견지에서 놓고볼 때 시적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적발견은 끝없이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현실에서 새로운 느낌을 받을 때 생겨난다. 새로운 느낌이 없는 발견은 참다운 의미에서 시적발견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미 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노래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느낌으로 현실을 대할 때 시적발견을 하게 된다.

잡지 《조선문학》 1호에는 우리 당의 선군령도가 전면적으로 꽃피난 력사적인 시기에 대한 시들이 특집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시적대상에서 새로운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선군정치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실시되는 위대한 력사적계기점이라고 할수 있는 뜻깊은 다박술초소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이 감동깊은 사연이야말로 우리 시인들의 심장을 끓게 하고 시적충동을 끊임없이 촉발시키는 창작의 원천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시인들의 사색은 여기으로 집중되었고 새로운 발견적인 시적계기를 잡고 시상을 펼쳐나갔다. 시 《다박술의 눈송이》(박세옥작)는 사연깊은 력사의 그날에 다박술초소에 내리는 흰눈송이에서 새로운 시적발견을 하고 그것을 선군시대의 서정으로 깊이 승화시켜 노래하고있다. 이 시가 정서깊게 안겨오는것은 이제는 세월이 멀리 흘렀지만 그 엄혹하던 력사의 그날을 못잊어 그날처럼 내리는 흰눈송이에 미학적미를 담아 서정을 일반화했기때문이다. 하기에 시에서 《흰눈이 어찌 무겁다 하랴/흰눈이 어찌 뜨겁다 하랴/너는 그날에 벌써 오늘을 안았거니/너보다 뜨겁고 무거운것 있으랴》라는 의미깊은 시구가 생경하지 않고 느낌으로 안겨오는것이다. 생각컨대 다박술초소의 흰눈에 대해서는 여러 시가작품들에서 다양하게 노래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시적대상이 시 《다박술의 눈송이》에서 새로운 뜻으로 느껴지는 것은 대상에 대한 느낌이 준엄한 세월의 갈피를 안은 눈송이로 감수하고 여기에 시적계기를 두고 시대의 높이에서 서정을 펴나갔기때문이라고 본다.

서정시에서 시적발견과 느낌의 새맛은 시인의 깊은 창조적사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가지 다양한 계기에서 발현되게 된다. 문학작품창작의 모든 과정이 시대와 생활, 인간에 대한 부단한 탐구와 사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지만 특히 시가창작에서 이 문제는 더욱 예민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볼수 있다. 시인은 우리 시대의 숨결과 생활의 흐름에 대하여 그리고 선군현실속에서 숨쉬며 삶을 창조해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깊이 관찰하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기발한 시적계기를 찾을줄 알아야 한다.

시 《우리 수령님 이야기》(박경심작)는 이에 있어서 좋은 시사를 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그 어디를 가나 일터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꽃피나고있다.

그것은 곧 우리 인민들의 너무나도 생활화된 삶의 보람과 기쁨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되어있다. 우리모두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항상 체험하는 이 생활속에서 시인은 바로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이야기, 가장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 가장 시련에 찬 투쟁과 창조의 이야기, 가

장 위대한 사상과 령도의 이야기》로 감수하였으며 **김일성**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주는 영원한 유산으로 노래하였다. 누구나 체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생활에서 시인은 새로운 시적발견을 하였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우리는 시에서는 비록 로출시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수령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 은정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어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는 초소와 일터와 가정들을 생각하게 되며 그것으로 하여 수령과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혈육으로 되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현실과 선군조선의 밝은 미래를 가슴뿌듯이 전망하는것이다. 이것은 결코 론리도 아니고 해설도 아니다. 그것은 시적발견이며 느낌으로 정화된 서정의 힘이다.

서정시는 기지가 번득이여야 한다. 참신한 시적발견도 생신한 느낌도 기지가 비김으로써만이 참으로 시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시 《어쩌면 좋아》(강옥녀작)는 기지가 있다. 서정적주인공인 처녀트락포르운전수는 잠든 식구들이 깨여날세라 살그머니 문을 닫고 나와 작업반 마당가에 세워둔 트락포르에 발동을 걸었는데 이 일을 어쩌나 통통대는 그 소리가 밤정적을 깨치는것이 아닌가. 모내기에 성수났던 사람들이 한껏 단꿈에 든 때 인데 트락톨 발동소리에 마음맞춰 일어나던 사람들이 이밤에 새벽인줄 알고 깨어나면 어쩌나 해서였다. 시는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에 비친 정서를 기지있는 감각으로 서정적으로 채색하여 마치 한쪽의 산뜻한 수채화를 련상시키는 시적화폭을 창조하였다. 특히 트락포르 발동소리와 의인화적교감으로 서정의 물결을 정답게 여울치게 한것은 시의 생كم한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그것이 단순한 인정적인 감정에 머문것이 아니라 올해는 농사에 총집중, 총동원하는 뜻깊은 해라는 시대정신이 뜨겁게 젖어있는 정서로 일관된것으로 하여 더욱 깊은 감명을 받게 한다.

사 《불타는 해야》(오정로작)도 기지있는 시적발견과 느낌으로 시작에서 끝까지 한생토록 불타는 해처럼 우리 장군님 받들어가리라는 사상정서적주장을 비교적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좀더 참신한 감정의 승화로 시를 꾸려했더라면 시의 정서에 더 뜨거운 느낌으로 공감했을것이라는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이 시 역시 기지가 보이는것으로서 긍정적인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에서 분석고찰한 시들의 일반적경향을 놓고 보면 선군시대현실에서 시적발견을 하고 깊은 정서로 일반화하여 보여주려는 우리 시인들의 탐구와 사색이 진지하며 시의 본도를 살려 참신한 서정을 펴내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의미에서의 대비적고찰이지 결코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독자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아직도 우리 시작품들은 정서의 빈곤으로 하여 서정

이 뜨겁게 무르익지 못하고 참신하고 생동한 맛이 없으며 구미가 당기지 않아 매력을 잃고있는 경우가 드문하다. 그것은 높은 미학적안목으로 현실을 투시해보는 시인적시야의 불투명성과 생활에 대한 정서적파악이 부족한데로부터 새로운것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개념과 상식으로 시를 고안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것에서는 시적대상에 대한 해설과 설명은 있으나 느낌과 정서가 없고 새로운 맛이 나지 않아 작품을 음미해보고싶은 생각이 없는것이다.

시 《심장의 대화》(리영철작)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의 대화를 통해 조국의 력사가 계속되고 위대한 선군시대가 흐른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주장을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방식이 이미 여러 시들에서 리용된것이기도 하거니와 새로운 발견을 하지 못한것으로서 상식이상의 느낌이 없으며 시 《11월의 관문점》(신문경작) 역시 기지있는 발견으로 서정을 무르익히지 못한 부족점으로 하여 사상이 로출되고 정서적공감이 덜한것으로 되었다. 자기의 체험된 감정과 생활속에서 시를 발견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한식술이 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소박한 감정으로 노래한 시 《행복한 인민》(김영옥작)이 뜨지 않고 차분한 정서로 《장군님 두리에 선군으로 뭉쳐진, 사회주의 크나큰 한지붕밑에, 진정으로 형제들이 많이도 태여》나는 현실을 노래한 좋은점이 인정되면서도 좀더 기지있는 발견으로 시의 서정을 펴나갔더라면 그 공감력이 더욱 강화되었을것이라고 본다.

우리 시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올해 시작품에서 나타난 치명적인 약점을 꼭 언급해야겠다. 일부 시들은 아직도 계기가 명확치 않고 무엇을 느끼고 시를 썼는지 가늠하기 힘든 처지에 있다. 이런 시일수록 필요없이 길어지고 수더구많은 설명으로 시행들을 채워나가는것으로서 서정에 대하여 말하기 힘든 지경에 있다. 시 《노래하노라, 오직 한마디》(김휘조작), 《우리는 이 별의 주인이다》(리진협작)는 정서라기보다 론리이며 심장의 울림이라기보다 상식의 라렬이다. 전자는 《이 땅은 선군의 조국》이라는 한마디로 우리 조국의 위대함을 노래한다는것인데 체험된 감정의 분출이라기보다 총대의 의미에 대한 시적인 해설의 라렬로 되였고 후자는 우리는 이 별의 주인이라는것을 력사적고찰로 확인하는 정도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였다.

시문학의 본도를 어기지 말고 서정을 뜨겁게 뿜어올리는것, 이것이 올해 시문학을 고찰하며 재삼 강조하고싶은 말이다.

한해의 《조선문학》잡지를 더듬어보며 반가움도 있고 서운함도 있다.

우리모두 문학의 형상수준을 높이기 위해 함께 사색하고 탐구하고 지혜를 모아 혁신해나가자. 하여 새세기 선군문학의 년륜을 빛나게 장식하자.

흰눈의 축복

리명옥

흰눈이 펄펄
내 고향 들에 내리는 12월의 첫 눈
반갑구나
온 한해 땀흘려 지은 낱알이
어쩌면 흰 꽃보라되어 내리는것은 아닌지...

나는 두팔 벌리고
흰눈 송이송이를 보물처럼 맞이하고싶구나
이 가없는 들 끝에서 끝까지
흰눈을 온몸에 함뱌 맞으며
아이들 마음되어 한달음에 달음박질하고싶구나

봄부터 여름까지
여름부터 가을까지...
온 한해 종다리처럼
들에 살며 아낌없이 바쳐온 그 구슬땀이
10월의 대축전장에 낱알산을 쌓아올렸다고
흰눈아 너도 눈꽃을 뿌려 축복해주는것이나

기쁘구나 흰눈의 축복아
류다르게 시작된 이해 이른봄
잊을수 없는 그 봄날에도 너 내려다오
겨우내 푸근푸근 잘 익은 거름무지들에서
들이 미여지게 뿜어나던 그 봄김-
일 잘하는 분이와 구 봄날에 인연맺은
앞집 제대군인총각에게도 내려다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풍요함이 철철 무르녹던

명절같은 가을날의 그 하루하루-
가을없이야 농민의 기쁨 어디 말기랴
번쩍이는 낮으로
벼이삭도 단숨에 휘여잡아 넘기던
배나무집 할아버지 건드려진 타령에도 내려다오

아 땀에 절고 비에 젖으며 다 바친 정
알찬 열매로 익혀 받들어 올려준
꾸준한 이 들판에도 내려다오
나라의 쌀독을 위해 그토록 성실했던
근면하고 깨끗한 내 고향 사람들의 마음에도 내려다오

이 땅에서 쌀은
운명이고 행복이란 말이였기에
민들레 곱게 피고 종다리 우짖는 푸른 들을
전선이라 부르며 달려온 이 한해
힘겨워도
주저않은 낮과 밤은 없었던 열정의 이 한해에
축복의 꽃보라되어 내려다오

그리고 전해다오
영광의 대축전장에
농민을 높이 세워주어
이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빛내준
고마운 조국, 어머니 우리 당에
이 나라 농민이 드리는 인사를 전해다오
불타는 맹세를 전해다오

유모아

백만장자의 몸값

어느날 영국시인 바이론이 템스강변을 거닐고 있었다.

이때 한 백만장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지나가던 청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에 뛰어 들어 그를 기슭으로 건져냈다.

백만장자는 자그마한 엽전 하나를 청년에게 쥐

여주면서 고맙다고 하였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저마다 린색한 그 신사를 욱하면서 도로 강물에 처넣으라고 떠들었다.

바이론이 그들을 만류하였다.

《그만들 하시오. 저 사람은 자기의 몸값을 너무나 잘 알고있구만요!》

들에 물어보라

신문경

풍요한 들의 사연
나에게 묻지 말라
알알이 영근 이삭들에 물어보라
두렁너머 파도치는 저 물결에 물어보라

봄내 여름내 긴긴 밤의 이야기
나에게 묻지 말고 들에 물어보라
논물에 흐른정 함빡이 안고 자란
탐스런 벼알들에 불을 비비며 물어보라

속이기 힘든것이 땅이라지만
그보다 힘든것은 농민의 량심
쌀로써 지켜갈 사회주의 큰길을
땀으로 넓혀온 자옥 들에 력력하거니

말없는 땅이라 해도
그 누가 너의 소리 듣지 못하랴
무심한 산천이라도
누가 너와 마음이 통하지 않으랴
겨울부터 가을까지
눈비속에 피약별아래
우리 나눈 그 이야기 들이여 말해주라
사랑
운명
미래 ...

땅이여 너에게 머리숙이고
후더운 숨결 쏘아부으며
바라고 듣고싶던 앞날의 모든것에 대해
들려주라
네 흙밑에 깊이 묻은
이 나라 공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행복만을 줄 때도 너를 사랑했고
고난에 터갈라질 때엔
더 으스스하게 너를 그러안았거니
머리우에 추켜안아 빛내고싶은
내 삶의 터전이어

땀을 아꼈더라면
너의 말을 들을수 없으리
미래와 나눌 이야기도
우리에게 없으리니

아, 물어보라 들에 물어보라
아낀것 없이 땀을 뿌린 대지
남긴것 없이 정을 쏟은 이 땅이
어떻게 강해지고 존엄높아지는가를
승리자의 미소같이 눈부신 저 들판에
가슴 적서 물어보라
얼굴 묻고 물어보라

막장길 걸으며

한광춘

여기선 시간이
뜨고지는 해와 달로 가지 않는다
해빛도 달빛도 비쳐들지 못하는
깊은 땅속의 막장길

여기선 계절이
내리는 눈과 비로 바뀌지 않는다
눈보라도 봄바람도
갱입구에서 머물다 마는 지하막장의 이 길

이 길에서 또 한해 흘렀구나
탄과 한생의 인연을 맺은
탄부, 우리의 삶과 생활이
열을 뿜으며 빛을 번쩍이며

전진하는 조국의 그 거창한 시간이
소중한 한해의 추억 이 길에 다 담노라
이 막장길을 걸어
이 길에 진한 땀을 쏟으며
8월의 그 뜻깊은 날을 맞이했고
10월의 경축광장도 궁지높이 지나왔거니

말하라 길이여
진군의 아침 첫 발과심지에 불을 달며
높뛰던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를
더 캐내야 할 석탄을 두고
잠 못들던 그밤의 뜨거운 사연들을

꽃들은 여기에 피지 않는다
머리들면 석수 흐르는 충암천정이
푸른 하늘을 대신하는 여기서 온 한해
우리는 땅우의 생활을 더 아름답게 꽃피웠노라
더 높은 석탄산으로 조국의 하늘을 건듯 들었
노라

이 길은 넓지 않다
거리와 마을길처럼 그렇게 보이는것도 아니다
하나 이 길에 정을 묻고 영예를 두고

우리는 행복의 대통로를 더 넓게 다졌노라
이 길을 걸으며
굽이굽이 철령을 넘어 장군님께로 달려갔노라

오 비약하라 어머니조국이여
이제 새날 오면 그대 진격로의 첫 서렬에
또다시 우리를 불러달라
우리 그대의 부름
어느때나 이 막장길에서 받으리라

외무성은 성명한다

김송남

찌렁찌렁
온 세계를 울리며
우리의 외무성은 성명한다
-우리는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어이하어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우리 장군님과 군민의 일심단결
이 하나만도
그 누구의 핵탄보다 더 위력해
세상 다시 없는 최강의 힘이건만

《악의 축》이라고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우리를 걸고들어 잣을새 없는
그 미친개 짖는 소리가
우리더러 새 용단을 내리게 했다

6자회담탁 앞뒤에서 요술을 퍼며
속심으로는 《제도전복》을 노리는 놈들
저 남쪽의 하늘로 바다로 땅으로
핵전쟁의 불구름 몰아오는 미제가
우리의 실천에 불을 달아주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놀라지 말라
핵무기- 이름은 같아도
그 본질은 달라, 우리것은 핵억제력

그 사명도 달라, 우리것은 침략이 아니라
철저한 자위

미제놈들 본성을 버리고
정말로 압전해질수만 있다면
우리것은 놈들의 정수리에 터지는 일 없으리라
이것은 아직 그 무자비한 폭발이 아니라
그 폭발과 같이 힘있는 우리의 경고다

천만 생명들의
천만 불꽃들을 순간에 꺼버리는
그 미친 광선의 살기된 번쩍임과
그 버섯구름의 독기찬 재가루를 막자고 태어난
이는 자주수호의 눈부신 광원
이는 인간사랑의 무한한 열원

그때문에
우리 핵탄의 진정한 이름은
비핵이고 반핵이고
정의이고 평화다
온 누리의 봄썩과 꽃잎들을 위하는
따뜻하고 향긋한 햇빛이다, 바람이다

아, 주체의 새 세기 궤도를 지켜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지켜
선군이 또 하나의 큰 힘을 틀어잡았다고
우리의 외무성은 온 세계에 성명한다
-우리는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시조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었는데

김성욱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었는데

젖먹여 나를 안아키워
한걸음 한걸음 손잡아
첫 걸음마 떼여준 어머니

내 고향 재령강의 갈계잡이로
해종일 뛰놀다 돌아온 저녁에도
밤새도록 옷을 빨아 나를 내세워주던
그 어머니

때로 내 저지른 잘못을 두고
회초리 들어 종아리를 치고는
그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남몰래 눈물흘리며 잠 못이룬
나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직분이
오늘은 내 어깨우에 놓여
어제날 재령강마을의 장난꾸러기아이
오늘은 한집단의 어머니로

내가 나섰단 말인가

아, 천만사람을 바른길로
하나하나 손잡아 이끌어주며
위대한 장군님만을 따르는
충신들로 키워가는
어머니당의 당일군

내 언제면
이 세상 가장 신성한 이 직분을
어머니되어 다할수 있을가
자나깨나 이 한생각...

결어도 한생각...
일하면서도 한생각...
재령강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마음에 나를 세워본다
나는 진정 어머니가 되었는데

밤길을 걸으며

발목이 넘는 숲눈길에
첫 발자욱 찍으며
나는 밤길을 걷는다

전쟁참가자 로병부부의 밝은 웃음
뒤에 두고
가슴 흐뭇이 걷는 이 밤길

부뚜막도 손질해주고
메워졌던 구들재도 파내어
불의 왕왕 잘 들게 도와주고
떠나는 길

이제 저 굽이를 돌아서면
불빛 흐르는 문화주택
특류영예군인의 집에도 들러
새로 나온 책도 안겨주고...

아들딸 6남매를 군대에 보낸 후방가족

그 어머니의 집을 찾아서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초소의 아들소식도 나누고...

좋은 밤이다
장군님의 사랑을 안고
집집마다 뜨거운 정을 부어주며
걸고걸는 당일군의 이 밤길

휘영청 둥근달도
나를 따라서며 웃는가
숲눈길 밝는 소리조차
가슴에 정차다

오, 이 밤에
밝아지는 내 마음
웁기는 걸음걸음이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
노래가락 맞추어간다

좌우명

나 하나를 위한 발걸음이라면
백리를 간들 천리를 간들
그 걸음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나 하나를 위한 손으로
궁궐같은 큰 집을 세운들
그 무슨 값이 있으랴

안타까이 뛰고 또 뛰며
내 바쳐가는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면
열밤 백밤을 패며
억만 구슬땀을 흘린다 한들
그 무슨 뜻이 있으랴

나 하나 위한 길은
그 걸음걸음에 치욕이 마주서리

나 하나 위한 인생은
버림받는 버력이 되고말리

오 한걸음 걸어도 천리를 가도
웁기는 자욱자욱
마지막 한걸음까지
그 하나로 고동치는 나의 좌우명

그때문에 사랑의 맥박이 뛴다
그때문에 헌신의 숨결이 높다
그때문에 그때문에
인생이 빛나는것

아 당일군의 좌우명은
짧은 한마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물과 기름

수정같은 맑은 물은
꽃을 피우는 대지에
깊이깊이 흘러들어
뿌리를 적시며
줄기줄기 즙이 되노라

물이 되리
물이 되리
태양을 따르며 피고피는
아름다운 꽃의 바다
《인민》이라는 비옥한 토양우에
스며드는 물

되지 않으리
되지 않으리
물에 뜬 기름방울
번들거리며 가벼이 떠다니는
기름방울

오 물이 되리
물이라도 생명수
소리없이 조용히 스며서
뿌리를 적시고 줄기를 자래워
싱싱한 꽃망울 터뜨리는
생명수가 되리

훈 장

명절날 거리에 나서서
앞가슴 가득 훈장을 단 사람들 바라보면
왜 이리도 마음 흐뭇해질까
저도 모르게 병글병글
웃음집이 흔들리는것은...

누구라없이 부여잡고
무슨 위훈으로 탄 훈장인가고
묻고도 싫어집니다
정말 장하다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싶습니다

가슴가슴들에 훈장이 번쩍이니

훈장이 뽐는 빛에
거리가 환해지고
그래서 밝아지는 내 마음일가

아 당일군 나는
저 훈장단 가슴가슴들을
어머니의 눈으로 봅니다

누가 더 기쁜가
훈장단 아들딸보다도
바라보는 어머니의 기쁨이
더 큰것이 아닙니까

영웅은 모교에 서있다

허수산

내 피끓던 청춘시절로부터
오늘은 머리에 흰서리내린
장장 수십년세월
교단에 서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오늘 나의 교정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또다른 모습으로 서있는
한 스승이 있나니

동지애의 영웅 김광철이여!
세월을 두고보는 모습이고
매일 몇번이고 보는 모습이어도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불러내는
그대의 모습

물어보자!
학창시절 소박한 탄광마을 학교에서
학교의 최우등생으로 사랑받던 그대
그대는 오늘 이 영광의 높이에 올랐다

그대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해
터지는 수류탄 몸으로 덮어
선군력사에 자그마한 자욱 남겼을 때
그대의 위훈
제일 먼저 크게 헤아려보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는 막지 않았어도
자기희생으로
동지들을 구원한 모습에서
선군시대 병사의 세계를 보셨나니

상하간의 그 일심단결
그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로 보셨기에
위대한 장군님은 높이 세워주셨구나

그대를 동지애영웅의 상징으로

하여 처음에는
그대 살던 병실곁에
그대의 묘비를 세워주셨더라
늘 병사들과 함께 있으라고
중대와 함께 있으라고

그리고도 모자라시였던가
돌사진이 나왔을 때는
묘비에 돌사진을 넣어주시어
병사들이 늘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하시었고

아, 그것으로 끝나는줄 알았던 따뜻한 손길
그 어느해였던가
애국렬사릉을 돌아보시던 장군님!
시대를 대표할 선군영웅들을 골라
애국렬사릉에 안치해주라고-

하여 이름없던 탄부의 아들
평범한 한 부대의 소대장 그대
리수복, 안영애들과 함께
불멸의 모습으로 서있나니

사랑은 그것으로도 모자라신듯
그대의 모교를
그대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은 그대의 릉 릉한 모습
모교의 교정에 세워주셨나니

이 땅에 숲처럼 일떠선
영웅중학교들이여
말하라
매 학교의 영웅마다에 돌려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사실 이 땅우에
처음으로 일떠선 영웅학교는
리수복영웅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학교였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처럼 잊지 못해하시는

전후
리수복영웅의 집을
남먼저 찾아주신
아버이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어머니의 손목을 잡으며
우리가 수복이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하신
아버이장군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아, 리수복영웅학교의 모습이여!
조군실영웅의 모교여!

그뒤를 이어
오늘 저 북방의 작은 학교로부터
이 땅에 일떠선
영웅학교
영웅의 반신상들은 얼마이더냐

키우시기는 장군님께서 키우시고도
우리 교원들의 수고를 헤아려
영웅을 키운 모교선생들의 회의
그런 회의까지 마련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높은 뜻

모교란 어머니학교라는 말
어머니란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의 마지막피방울까지
자식을 위해 다 바치는
사랑의 대명사!

그렇더라!
이 땅의 학교들은
그대들을 위해
창가의 불은 꺼질줄 몰랐고
교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었더라

우리 수령님
개학날마다 축복해주신

그 학교 그 책상에서
가가지겨... 우리 말 배웠고
《김일성대원수님》
《김정일원수님》
그 말을 처음 쓰고 익혔나니

안되는 글씨를 두고
작은 손을 감아쥐고
몇번이고 글씨련습을 시키던
그 나어린 처녀선생의
사랑의 손길도 거기 있고

때로는 넘지 못하는 조마를 두고
그것도 못넘는 담을 가지고
이담 무슨 큰 일 치겠느냐고 하던
선생님의 엄한 질책도
소소리높이 솟은 저 백양나무에 어려있다

장군님 보내주신 새 교복 받아안고
아버이수령님 축복속에
사진을 찍던
그 못잊을 추억도 있다

《백두산》의 서사시 구절 들으며
눈물흘리던 그 교실
아동단원 금순이의 투쟁이야기 들으며
남모른 꿈을 꾸던 그 시절도
저 교정의 뜨락에 숨새여있다

선생님과 함께
교재원과 산밭에서
애기나무심던
그 애국의 작은 발자욱도
교정은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아침저녁 달라지는 꿈을 놓고
선생님과 함께
별빛내리는 동구길을 걸던
그 잊지 못할 밤길도 있어라

아, 한학급에서
공부하던 동창생처녀들
군대에 입대하던 날
역전까지 따라나와 꽃다발주며

《영웅되어 돌아오세요》하던
그 감격어린 목소리도 있다

우리 글을 익혀주고
우리 수령님과 조국을 알게 하고
앞날의 큰 꿈을 안겨준 모교
한생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오늘도 교단에 서있는 모교

《고난의 행군》 그날에도
콩우유차만은 꼭꼭 와닿던 모교
우리 장군님 백두마울의
작은 소학교까지 찾아주시어
수업참관을 해주신 모교여

강계, 장자산 학교를 찾으시어
지덕체가 기본이라 하시며
더 많은 영웅들을 키우라고
신신당부하고 떠나신 모교여!

아, 청춘시절의 아름다운 꿈 길러주고
애국의 첫 발자욱 떼여준 모교
뿌리없는 나무를 생각할수 없듯이
모교는 위훈의 뿌리가 내린
조국애의 터전이였다

영웅은 모교에서 자랐다
오늘도 모교에 서있거니

하기에 우리 장군님
그대들 영웅들의 모습을
굳이 모교에 세워주셨나니

그대들과 같은 영웅들을 키우라고
모교의 교정에서
빛나는 삶을 이어가라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나니

그대들을 키워내고
그대들과 함께 어깨 나란히
교정에서 조국의 영웅들을 키우는
우리의 보람과 영예
그 어디에 비기랴!

그대들의 모습을
모교에 세워주심은
우리 교육자들에 대한
아버이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영웅이 많은 내 나라에
영웅의 금별은 천만으로 더 빛나리
이 땅에 울려퍼지는
하늘땅을 메우는 영웅찬가여!

영웅은 모교에서 자란다
영웅은 오늘도 모교에 서있어라

가사

한해의 시작도 끝도

김충기

눈내리는 설날 아침 부르던 노래
12월의 이 저녁에 다시 부르네
그 언제면 장군님 만나뵈올가
자나깨나 그 영상 그리는 마음
아 한해의 시작도 끝도
나의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

명절날도 초소의 병사들 찾아
바람세찬 전선길 가고가셨네
그 언제면 장군님 편히 쉬실가

자나깨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아 한해의 시작도 끝도
나의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

온 한해를 노래하고 노래했어도
간절한 그 마음은 하늘에 담아
그 언제면 장군님께 기쁨드릴가
자나깨나 가슴속에 불타는 마음
아 한해의 시작도 끝도
나의 노래는 그리움의 노래

류사한 주제영역에서의 개성적인 성격형상

-장편소설 《조국과 인생》을 두고-

림창덕

조국을 위해 바친 인생은 후회가 없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장편소설 《조국과 인생》(김덕철, 김중석작)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조국과 인생.

작품의 제목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소설에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의 혁명적인생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체로 이 주제의 소설들에서는 0.75평의 독감방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이 발휘한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사상정신적원천문제를 제기하였다. 류사한 주제 즉 비전향의 사상정신적원천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해내는 문제이다. 류사한 주제,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하는데서 독특한 종자의 발견, 독창적인 구성조직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60여명중에서 그 누구와도 류사하지 않은 개성적인 인간성격을 창조해내는데 이 주제의 소설들이 잘 읽히우는 비결이 있다고 본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성적인 성격을 통하여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혀내는데 진정한 창조의 세계가 있다.》

최근년간에 왕성하게 창작된 비전향장기수형상 주제의 소설들이 거둔 성과의 비결의 하나가 개성적인 성격창조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 형상의 초점과 개성적인 성격

장편소설 《조국과 인생》이 개성적인 성격창조에서 거둔 성과는 우선 형상의 초점을 바로정하고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한것이다.

문학은 인간을 인간답게 그려야 한다. 인간은 사상과 감정에서, 의지와 행동에서 언제나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문학에 그려지는 인간은 현실에서 보는 산 인간처럼 구체적이며 생동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상의 초점을 바로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인간의 사상감정, 의지, 기호와 취미, 습관 등 성격을 이루는 제 요소들가운데서 어디에 모를

박고 형상하는가 하는것은 개성적인 성격형상의 전제로 된다.

소설에서는 성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상의 지적측면을 부각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두고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형상하는데로 초점을 돌리고있다.

작품은 응당하게도 종자의 요구에 맞게 주인공이 지닌 신념과 의지의 사상정신적바탕을 해명하였다.

후회없는 인생이란 과연 어떤것이며 주인공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긍지높이 자부할수 있는 그 바탕은 무엇인가.

소설에서는 이에 대하여 주인공의 혁명적인생관과 결부시켜 형상하고있다.

주인공 신학수는 17살에 배움의 뜻을 품고 탈가하여 서울에서 막벌이, 냉월탄광에서 로동, 《징용》의 마수에 걸려 조국땅 북변에까지 흘러가 고역에 시달린 사람이다. 해방전 유격대지하공작원의 지시로 《인조석유회사》의 내부를 촬영한것이 탄로나서 형무소에서 감옥생활도 하였다. 해방후 출옥한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얼마간 미루고 국경경비대 소대장으로 일본패잔병들을 숙청하는 일에 참가하였다. 그후 군인민위원회 서기장, 김책시 지구건설책임자를 력임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품,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소설은 이러한 주인공의 일대기를 순차적으로 라렬한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을 특징적으로 드러낼수 있는 계기들을 설정하고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였다.

그 첫 계기는 국경경비대시절에 조국으로 돌아온 혁명가유자녀들과 유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받아안은 귀중한 체험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해방직후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중구동북지방에 널려있는 항일렬사유자녀들과 유가족들을 모두 찾아 조국에 데려오도록 하시였다.

주인공은 아버지수령님의 이 사랑을 통하여 자기가 안긴 품이 위대한 사랑의 품, 영생의 품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 품을 지켜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진다. 이날에 다진 맹세는 후날 철창속에서 주인공이 안고싸운 신념과 의지의 사상정신적바탕으로 되었다. 주인공 신학수는 자기에게 모진 악형이 가해지고 독감방에서 무서운 고독을 체험할 때에도 이 맹세를 안고 싸워 신념과 의지

의 강자로 될 수 있었다.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이 집중적으로 발현되게 한 두번째 생활계기는 전후에 아버지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직접 받아안은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당안에 기여들어 쓸라닥질을 하던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해 직무에서 해임된 신학수를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자기보다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작품을 지닌 일군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라고 고무해주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의 고향이 남조선이라는것을 아시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조국통일을 선사해주지 않는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제를 남녘땅에서 몰아낼 때만이 조국통일이 이룩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신학수에게 조국통일을 위해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리라는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그날 신학수는 아버지수령님의 말씀대로만 살결심을 굳게 가다듬었다.

이러한 생활적계기들을 준 전제밑에서 소설은 주인공이 어떻게 신념을 지켜 싸웠는가를 감동깊이 형상하였다.

심한 백내장으로 눈이 멀고 병마가 겹쳐들 때 죽기를 결심했던 주인공은 자기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의지를 가다듬는다.

죽는것은 어렵지 않다, 자기가 죽으면 좋아할것은 적들뿐이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된다, 심장이 고동치는 한, 마지막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반통일분자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것이 통일애국투사 신학수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비록 눈은 멀어도 아버지수령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눌수 있는것을 참된 혁명가의 삶으로, 통일애국투사의 빛나는 생애, 최후의 영광으로 간주하는 여기에 주인공이 지닌 불굴의 신념의 사상정신적원천이 있다.

주인공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싸웠기에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될수 있었다.

《나는 기나긴 세월을 비좁은 독감방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지고 피비린 전향공작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결코 그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신념과 량심을 지켜 부끄럼없이 산 자랑찬 인생이기때문이다.》

후회없는 인생을 산 신학수, 그가 통일애국의 길에서 보낸 30년은 실로 고난과 시련의 나날의련속이었다. 그 기나긴 나날이 혈육과 가정, 이웃과 친지들과 격폐된 감방에서 흘러갔지만 결코 그 인생은 헛된것이 아니였다. 그것은 주인공이 몸은 비록 철쇄에 묶이였어도 불굴의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한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기때문이다. 비전향투쟁은 신념과 지조를 지키는 투쟁인 동시

에 반통일분렬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애국투쟁이었던것이다.

소설에서는 이처럼 주인공의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사상정신적원천을 해명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굴함없이 싸운 통일애국투사의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였다.

2. 생활의 철학을 구현한 성격형상

장편소설 《조국과 인생》의 성격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생활의 철학을 구현한 인물의 성격을 창조한것이다.

형상의 철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문학의 본성적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문학은 예술적화목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인간의 운명문제를 다루는데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조국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응당 해명되고 형상되어야 할 문제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의 부모에 대한 생각문제는 류리학적범주에 속하는것인 동시에 문학이 형상해야 할 주되는 대상으로도 된다. 부모를 떠난 자식이 없듯이 사랑은 언제나 함께 존재하고 련관되어있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혁명적신념의 세계를 형상함에 있어서 신념과 부모에 대한 효성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해명을 주었다.

진정한 효성이란 어떤것인가.

이 문제를 주인공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문학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한데 이 소설의 철학세계, 성격의 철학성이 있다고 본다.

주인공 신학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였고 동시에 《불효》로 인한 자책을 안겨주는 대상이기도 하였다.

남편없이 사는 어려운 살림에도 푼푼이 월사금을 모아 자기를 공부시켜준 어머니, 학교에서 쫓겨난 후에는 서당에 보내여 공부하도록 해준 어머니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리해 못하고 17살에 집을 떠나 서울에 갔던 신학수였다. 23년만에 고향 가까이에 와서 통일애국운동을 하면서 더우기는 체포되어 옥중투쟁을 벌리면서 그는 한시도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 80리 지척에 있는 어머니의 존재에 대하여서도 적들에게 일체 내비치지 않고 침묵을 지켜온 주인공이었다.

그러던 그가 뜻밖에도 감옥에 찾아온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 놀라움은 얼마나 컸으랴.

한생을 아들을 기다리며 늙어온 어머니였건만 아들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어머니와의 면회가 놈들이 마련한 전향의
올가미였기때문이었다.

가슴쓰라린 고통의 한순간을 겪고 신념과 의지
를 다지던 때에 어머니와의 두번째 면회가 있었
다.

원썬들은 그의 지조를 꺾어보려고 살인흉기가
갖추어진 고문실에서 면회를 시킨다. 악형에 고
통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이를 악물고 바라보던
어머니는 끝내 절명하였다.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효도 한번 드리지 못하
고 옥중에서 마지막길을 바라워드리지 않으면 안
된 그 절통한 심정을 어디에 비기겠는가.

어머니의 죽음에 뒤이은 동생의 절교선언 역시
주인공의 심장을 아프게 찌서대는 창끝과 같은것
이었다. 가족, 친척들과 가슴아프게 헤어지면서까
지 주인공이 지킨 신념은 과연 어떤것인가.

《아, 어머니! 우리 가정만이 아닌 이 나라 수천
만어머니들과 자식들의 진정한 행복을 마련하기
위해 이 아들은 성스런 통일애국의 길에 나섰습
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수 없듯이 조국도 배
신할수 없는 몸임을 부디 이해해주시옵시오. 온 겨
레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이 아들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한것이 정말로 한스럽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모습을 그려보며 더치는 아들
의 심장의 뻘침을 통해 효성과 신념에 관한 철학
적문제에 해답이 주어지고있다.

통일애국투사의 참다운 효성, 그것은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길에서만 빛날수 있다.

어머니가 있는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립중
을 지키는것만이 효성이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
한 혁명가들이 그려했듯이 비전향장기수들도 피
눈물을 삼키며 보다 큰 효도- 통일을 위해 신념
을 지키고 량심을 고수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혁명가의 신념문제를 제기
하고 뜻깊은 세부형상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킨데 이 소설의 성과가 있다. 소설의 이러
한 성격형상기교는 작가가 발견한 종자에 기초한
것으로서 류사한 주제명역에서 자기식의 독특한
형상을 창조할수 있게 한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3. 대조를 통하여 부각한 성격

장편소설 《조국과 인생》의 개성적인 성격형
상에서 두드러지는것은 또한 대조의 수법으로 주
인공의 성격을 부각한것이다.

대조는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
며 작가의 의도를 힘있게 강조하는 형상수법이다.

대조에 의한 성격형상수법은 소설창작에서 널
리 쓰이는 수법의 하나이다. 성격의 대조를 통하

여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품모가 뚜렷이 부각되고
주제사상이 형상적으로 천명되여나간다.

소설에서는 우선 주인공과 부정인물과의 성격
대조를 통하여 개성적인 성격을 형상화하였다.

주인공과 변절자 리동근의 성격대조가 그러하
다.

소설에서는 이들간의 성격대조를 통하여 후회
없는 인생과 후회많은 인생에 대한 해명을 주고
주인공의 개성적면모를 부각시켰다.

리동근은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나라잃
은 백성의 슬픔을 체험하고 해방후에는 민주화운
동에도 관여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
군대의 남녘해방에 편승하여 정권기관에서도 일
하던자이다. 그러나 이자는 혁명적신념이 투철하
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한데로부터 몇차례의 고문
끝에 쉽게(적들의 표현대로) 변절하였다.

이 변절자는 자기의 변절리유로 부모들을 내대
군 한다.

《늙은 부모가 있어서...》, 《부모님들께 불효
가 될수 없어서...》 등.

그러나 이자가 떠드는 부모에 대한 효성은 서
훈짜리 제목을 위한 《효성》이었다.

소설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
이 규탄하고있다.

《허나 이 순간에도 그는 자신을 기만하고있었
으니 그것은 자기가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서 그렇게 했다는 진실을 외면한것이였다.》

자기자신을 위해 부모에 대한 효성을 꺼들며
변절한 이자에게 차례진것은 행대와 멸시, 증오
뿐이었다. 부모들의 외면, 첫 안해와의 리혼, 두
번째 처의 도망, 외아들 광호의 탈가...

리동근은 자기가 지은 죄로 하여 고민에 시달
리다가 망유병환자가 되며 끝내 감옥면회실에서
비참한 종말을 고히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은 다 못했을지라도 조국통
일위업을 위해 굴함없이 싸워 승리자의 자부심을
안고 조국에 돌아온 주인공 신학수의 인생과 얼
마나 대조적인가.

소설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대조를 통하여 사람
들에게 혁명가의 참된 인생은 어떤것인가를 감명
깊게 새겨주고있다.

소설은 다음으로 주인공에게서 발현되는 상반
되는 내면심리세계를 대조시켜 주인공의 혁명적
인생관과 성격을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문학에서는 혁명가를 그리면서 그의 정치적인
신념과 강요한 의지를 보여주는것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풍부한 정신세계도 훌륭
히 형상해야 한다. 혁명가들의 정치적인신념과 강
요한 의지만이 아니라 그들의 리상과 포부, 구체
적인 심리와 감정까지도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려야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한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옥중투쟁과 출옥이후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상반되는 감정을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주인공의 개성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그 한 실례로 주인공과 변형만사이에 오고가는 상반되는 심리의 교차를 들수 있다. 주인공이 최악의 영양실조에 걸려 이발이 다 빠지고 게다가 백내장까지 겹쳐 눈이 멀게 되었다. 주인공은 동지들에게 폐를 끼치는것이 죄송스러워 자결을 시도한다. 죽음을 앞두고 보잘것 없는 재산이지만 동지들에게 끌고루 가담게 한다. 동지들은 그들대로 주인공의 결심을 알아차리고 그의 치료를 요구하여 단식으로 넘어간다. 그 과정에 변형만이 사경에 처한다. 적들은 적들대로 책임이 두려워 전전긍긍한다. 신학수는 놈들에게 요구하여 변형만의 감방으로 옮겨가 그에게 음식을 들라고, 죽지 말라고 애타게 호소한다.

자기는 죽을 결심을 하고 동지에게는 삶을 요구하는 주인공.

모순된 심리가 아닌가, 결코 아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상반되는 내면심리세계의 대조를 통하여 비전향장기수, 통일애국투사가 지닌 인간사랑의 뜨거운 심리세계를 형상화하였다.

주인공과 대학생 광호의 관계역시 이러한 수법으로 형상되었다.

광호는 변절자 리동근의 아들이다. 자기를 밀고하여 수십년간 옥살이를 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거처를 밀고하여 끝내 죽게 만든 일생의 원쑤인 변절자의 아들이 다름아닌 광호임을 알았을 때 그의 놀라움과 실망은 컸다. 그가 다름아닌 자기를 따르는 노동자의 녀동생의 애인이였기 때문이다. 창식이와 그의 동생 창숙이는 변절자의 아들이라고 광호와 결별하였지만 신학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때 주인공은 미제의 원자탄공갈에 물리어 남쪽으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미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반역자로 만들고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오래오래 맛보게 하기 위하여, 더많은 사람들을 정의의 위업에서 떼어내기 위해 그러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주인공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믿어주고 한품에 안아 충신으로 키운 어버이수령님의 품- 조국을 생각하며 그를 통일투쟁의 선구자로 이끌어준다. 자기 아버지의 더러운 인생에 환멸을 느끼고 집을 뛰쳐나온 광호는 신학수의 영향밑에 《노래로 통일을 여는 모임》의 핵심성원으로 성장한다.

소설의 창작경험은 작가들이 개성적인 인간성격창조에 힘을 넣을 때 류사한 주제령역에 속하는 작품, 류사한 생활소재를 취급하는 작품창작에서 자기의 특색을 원만히 살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청춘의 막장

한승길

우리는
높뛰는 심장의 박동을
가슴에 손을 얹고 헤여보지 않았노라

석수가 흐르는 지하갱도
암반을 까내며 불꽃을 튀기는
쿵-쿵 함마와 진동음으로
청춘의 거세인 맥박을 느꼈노라

너나없이 탄전에 살고있어도
누구나가 다
조국의 열과 빛을 안고사는
탄부가 되는것이 아님을
막장은 우리에게 가르쳤거니

적진을 허무는 기관총마냥
틀어잡고 놓지 않던 착암기끝에
닿아진 정대날을 총창처럼 갈아썰으며
선군혁명대교조의 돌파구를 열어갈
결사의 각오에 날을 세우며

우리는 타끓는 청춘의 열기를
발전소를 향하여 저탄장을 떠나는
꼬리긴 철차의
《검은금》으로 말할줄 알고
화약내풍기는 발파의 메아리로
청춘의 맹세를 웨칠줄 안다

이 한해 열두달 그 어느때나
《련속천공》은
우리의 걸음새였고
《련속발파》는
우리의 목소리였거니

길이 끝난 곳이어서
막장이라 했던가
부강조국 래일이 바라보이는
청년탄부의 길은 막장에서 시작되나니
우리 당이 가리켜준 길을 가는 청춘에겐
앞으로만 앞으로만 열린 길이 있어라



비상정황속에서

장기성

1

저녁녘이었다.

줄대처럼 내려쬐히는 비발을 뚫고 화물자동차 한대가 문대천쪽으로 뻗은 길로 내달리고있었다.

화물역토장에 통나무를 부리우고 귀로에 오른 지경림산작업소의 자동차였다.

운전사 유영훈은 긴장감과 초조감이 짙게 어린 눈매로 앞을 쏘아보며 차의 속도를 한껏 높이고 있었다.

시창비물담개가 부지런히 움직이고있었지만 비발이 하도 드세다나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몇년전에 립산으로부터 역전까지 새로 뚫은 작업도로여서 그리 심하지 않은 구배길도 드문히 있었지만 그쭙한것은 유영훈에게 걱정할바가 아니었다.

근 20년간의 흔치않은 운전사경력을 가진 그는 길상태를 자기손금보다도 더 잘 알고있었다.

그런 그가 긴장감, 초조감에 휩싸여 차의 속력을 높이고있는것은 멀지 않아 건너게 되는 문대천 여울목의 수위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겠는가? 꽤 건널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에서였다.

두시간전에 거기를 통과할 때까지는 수위가 평시보다 좀 높아지긴 했지만 문제될것이 없었었다. 그사이 비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렸지만 무더기 비는 아니어서 흐르는 물량이 급격히 높아졌을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한 20분전부터 쏟아지는 이 비는 폭우였다. 문대천 상류지방에 이런 무더기비가 이미전부터 내리었다면 강물은 급격히 불어날것이였다. 그는 물이 어지간히 불어났을 때 도 강을 건널수 있게 배기관에 이을 고압호스를 준비해가지고 다니지만 그것도 수위가 차바퀴우에까지 올라서면 무용지물로 되고마는것이다.

강물이 예상밖으로 불어나 차가 건너가지 못하면 자신은 끼니를 몇끼 건드면서라도 운전칸에서 지낼수 있겠지만 적재함에 타고있는 녀성들과 두 중학생소년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문대천 이쪽

기슭에는 마을이 없다. 차를 되돌려 십여리 되짚어 거기서 20여리 아래에 있는 기본도로다리를 건너 작업소까지 가자면 80여리 길이 되는데 그럴만 한 휘발유가 없다.

이런 사정이 지금 그를 무척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것이였다.

그는 역토장을 떠날 때 넓은 비닐박막을 적재함우에 올려보내주었다. 달리는 자동차우에서 우산은 비풍을 막기 어려우며 차칫하면 망가지고 만다. 그래서 유영훈은 길손들을 위해 그 비닐박막을 마련하여두었었다.

그가 우선 마음쓰게 되는 대상은 처음 보는 제대군관 처녀였다. 중대장이었다지! 살갗이 감스레하니 타고 균형잡힌 몸매에 정력이 넘쳐나는, 첫눈에 대견하고 미더워보이는 처녀였다. 선바위마을이 고향이라고 했다. 문대천 건너 20여리 가면 나지는 선바위마을에 오래지 않아 경사가 날것이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탄원하여 군대로 나갔던 애어린 처녀가 중대장으로 변모되어 가슴에 락장을 여섯개나 달고 돌아오니 이 아니 경사인가!

다음으로 생각하게 되는것은 평양의 해양체육단에 있다는 커누선수 처녀이다. 커누라는 체육종목이 귀에 선것이여서 처녀가 희한해보이는가? 이 산골에서 그런 선수가 배출되다니! 그가 하는 커누경기를 한번 보았으면...

룩순나이 두 녀인이 적재함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다는데 신경이 썩졌다. 아까 역토장에서 그들이 차를 탈 때 나이많은분은 운전칸에 오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나이가 어슷비슷한 두 녀인은 서로 양보하며 앞다투어 적재함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다보니 지금 운전칸자리는 비어서 가고있다.

감기에 걸리겠는데...

립산에서 역전으로 가는 기본도로로는 농촌배스가 다닌다. 그런데 세계 리를 통과하다나니 지금 가고있는 작업도로보다 멀리 에돌아야 한다.

그래서 립산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종종 차신세를 지곤 하였다.

2

적재함우-

두줄로 놓은 튼튼한 나무결상에 열두명의 녀성과 열살을 갓 넘긴 두 소년이 앉아 머리에 넓은 비닐박막을 펴쓰고있었다.

폭우가 쏟아지고 고속으로 차가 달려 때없이 들추어 댔지만 그들의 기분은 붕 떠있었다.

힘들게 걷지 않고 차를 타고간다는, 오래지 않아 기다리는 가족, 친척들과 만나게 된다는 기쁜 감정들에 싸여서였다.

룩십나이 두 녀인과 두 소년을 가운데 앉히고 비풍치는 윈컨끝에 제대군관 처녀와 해양체육단 커누선수가 앉아가고있었다.

이 자리편성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처녀제대군관에게 의해 마련된것이였다. 모두가 순순히 응했고 누구도 의견이 없었다. 한결같이 처녀제대군관을 칭찬했다. 그런 속에서 자연히 그들 일행의 책임자로 간주하게 되였다.

왼쪽에서는 처녀제대군관과 커누선수가, 오른쪽에서는 다른 두 젊은 녀인이 비닐박막귀를 거머쥐고 일행의 옷이 젖지 않게 하려고 마음들을 썼다.

불과 한시간전에 이 자동차를 타게 되면서 낯을 익힌 이들이였지만 어느새 친숙해져 무렵없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비닐박막밑으로 사랑알, 추리, 복숭아들이 오가며 간간히 웃음이 터지곤 했다.

화제에 길손들을 위해 앉을 긴결상에 비닐박막까지 마련해가지고다니는 고마운 운전사가 올랐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 차 운전사를 <무던이운전사>라고 한다우. 여기로 오가는 차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운전사가 제일 무던하다우. 길을 건다가 태워달라고 손을 드는 나그네는 다 태워주지, 그럼.》

이미 이 자동차신세를 여러번 졌다는 룽순나이의 체격이 큰 녀인의 말이였다.

그는 말꼬리를 《그럼》하는 소리로 맺군 했다. 인생체험을 오래 한 자신의 주장과 견해, 평가가 언제나 옳고 정확하고 공정하다는것을 확신하는데 습관된 늙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투였다.

《그런 무던한 운전사인걸 모르고 난 아까 토장에서 과일구력을 내밀며 <아저씨, 도화동까지 차 좀 타고 갑시다.>했다가 <안되오!>하고 단마디로 자르는 바람에 속이 덜경 했댔어요.

그래서 올상이 되었는데 운전사아저씨가 똑똑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동무같은 사람은 안태우오.>하고 돌아서는거겠지요. 처음에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연해서있다가 차츰 깨도가 되니 가슴이 후터워났어요. 호호호...》

작은 키에 오동보동하게 생긴 젊은 아낙네가

한 말이였다.

《아주머니는 여기 사람이 아니구만.》

《예. 성천에 살아요. 이곳으로 시집온 동생네 집에 가보려고...》

《그렇겠지, 여기 운전사들은 다 그렇다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룽순나이의 체격 큰 녀인의 어조에는 제 고장 사람들의 깨끗하고 어진 성격에 대한 긍지와 폐찬의 감정이 깔려있었다.

《이 차 운전사가 <무던이운전사>로 칭찬받는데는 우리 김근정보안원의 신칙때문이기도 해요.》

문대천너머 첫 동네에 산다는 중년녀인의 말참네였다.

《한번은 이 운전사가 적재함에 사람을 여럿 태우고오다가 그 보안원에게 단속되었어요. 적재함우에 탄 남자들은 무릎마디가 쏘니 다 일어서있었는데 차가 들출 때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걸 그 보안원이 봤거든요. 그때 나도 차신세를 지냈는데 난 쪼그리고 앉아 적재함을 꼭 잡고 있었지요.

<동무,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누가 사람들을 태우라고 했소?>

보안원이 따지고 들었지요.

<사람들이 걸느라 힘들어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나무결상이라도 한두개 만들고 싣고다니면 되지 않겠소. 그러면 타고다니는 사람들도 편하고 떨어질 위험도 없고. 동무네 립산작업소에 그런 걸상쯤 만들 나무야 얼마든지 있지 않소. 다음번에 또 오늘처럼 적재함에 서있는 사람이 있을 땐 면허증을 회수하겠소.>

이렇게 다불러댔어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가는 이 결상은 그렇게 되어 생긴거예요. 그러니 <무던이운전사>로 될수밖에요.》

녀인은 해군출신의 그 보안원에 대한 칭찬의 말을 한동안 계속했다.

다음번 화제는 커누선수처녀에게로 돌려졌다.

《선수누나, 커누조종은 어떻게 해요?》

소년중에 나이가 한두살 우인듯 한 애가 물어서 시작된 이야기는 커누란 어느 나라 말인가? 커누경기는 어떻게 하는가? 커누도 다른 체육종목처럼 볼 재미가 있는가? 등등 커누종목에 대한 상식으로 번져져 그런 경기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던 녀인들의 귀맛을 돋구어주었다.

하염없이 쏟아져내려 머리에 들뜬 비닐박막을 짓조기는 비소리와 내달리는 자동차의 발동기 소리로 주위는 소란했지만 일행은 청높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

이들중 그 누구도 미구에 자기들의 신상에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될지 알수 없었다....

3

땅거미가 내리고있었다.

어지간히 불어난 강물을 헤가르며 조심조심 여울목을 뚫아나가던 자동차는 문대천 한가운데 이르러 불시에 발동이 꺼지며 멈춰서버렸다. 좁전에 강가에 도착하여 차를 멈춘 운전사가 옷을 입은채로 물에 들어서 얼마간 나가면서 물높이를 가늠해볼 때부터 그리고 운전사가 되짚어나와 자동차 배기관에 고무이음관을 끼워 적재함 밑에 매다는것을 보면서 다소 긴장해있던 길손들의 표정은 삽시에 굳어지었다.

운전사가 강물에 뛰어내려 차 뒤쪽에 가보고(배기관 이음관이 빠져 물이 들어가 발동이 꺼지지 않았는가를 확인했다.)돌아와 기관실윗뚜껑을 열 때 적재함에 탄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 그를 주시하였다.

《누구한테 손전지가 없소?》

이렇게 소리쳐 묻는 운전사의 어조에는 당황함이 어려있었다.

《예, 제게 있습니다.》

제대군관처녀가 제격 대답하더니 메고있던 가방에서 손전지를 뽑아들고 차에서 내려 서슴없이 물속에 들어섰다. 그는 차앞 보호가름대에 날렵한 동작으로 올라서더니 기관부에 전지불을 비치었다.

운전사가 여기저기에 손더듬질을 해보고 운전실에 올라 시동을 해보았으나 발동은 걸리지 않았다.

다시 내린 운전사는 이번에는 손전지를 받아들고 기관부를 낱낱이 살펴보았으나 고장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아, 이거 야단났구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탄식이였다.

《제가 시동돌리개를 돌려볼가요?》

《어서 그래 주오.》

운전사가 운전칸에서 시동돌리개를 꺼내어 처녀제대군관에게 내밀었다.

처녀제대군관 라연심은 어느새 허리를 치는 물을 헤가르며 자동차앞으로 다가갔다.

물속에 두손을 넣어 시동돌리개를 쫓고 휘둘렀다. 쏟아져내리는 비와 시동돌리개에서 튀어오르는 물에 그의 옷은 물론 얼굴까지도 흠뻑 젖어버렸다.

그가 있는 힘을 다 내어 시동돌리개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발동은 걸리지 않았다.

《그만 하오.》

운전사의 목소리는 기가 죽어 울렸다.

물에 내려선 운전사는 락심하여 망연히 서고만 있었다.

강물은 급격히 불어나고 류속이 드세졌다. 마치 우에서 만수졌던 저수지의 언제를 터쳐놓은것같은 굉장한 량의 물사태가 밀려내려 자동차를 휘감아 버리였다. 강상류지역에 이미부터 내린 무더기비가 흘러내리며 합쳐져 지금 여기를 휩쓸고있는것이였다.

적재함우에서 비명소리가 울리였다.

《아이쿠! 이게 웬 일이요.》

《이젠 움짱달짝 못하고...》

《어머니이-》 제일 나이 어린 소년의 울음섞인 웨침이 애간장을 끊는다.

캄캄한 밤.

대줄기로 쏟아지는 비, 비, 비...

소란한 강물소리...

《운전사동지, 우리도 적재함에 오릅시다.》

라연심은 물결을 타고 내려온 그 무엇이 가슴노리를 세차게 스쳐지나치자 기겁하여 소리쳤다.

《...》

《어서요.》

《내가 무슨 낮으로 거기에 오르겠소. 아, 내가 이거 무슨 일을 저질렀나. 후유-》

운전사는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고는 이제는 물에 완전히 잠겨 고쳐볼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기관부으로 다시 올라갔다.

운전칸 발판에 올라선 라연심은 전지로 다시 수면을 비쳐보았다.

홍수가 이 이상 더 불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지금도 무더기비가 계속 내리니 물은 더 불어날 것이다. 무슨 수를 찾아내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적재함우에서 불안에 떨고있는 녀인들과 두 소년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자각이 그의 심중에 솟구쳤다.

그는 적재함우로 솟구쳐 올라갔다.

그는 운전실뒤 쇠란간을 부어잡고 공포심에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을 전지불로 비쳐보았다. 그들을 진정시킬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쉬이 입이 열리지 않았다.

강물이 어느새 적재함바닥을 핏고있었다.

상상을 초월하여 급증하는 그 물량이 라연심의 가슴을 다시금 서늘하게 했다.

그는 적재함 뒤쪽 물면을 전지불로 비치였다.

무섭게 사뭇쳐내리는 거센 랑수, 언뜻 뿌리뿔혀 떠내려오는 나무가 눈뿌리를 찔렀다. 저 물속으로 돌도굴고있을것이다. 아, 여기서 생이 끝나는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 저절로 눈앞에 헤여지기 너무도 서운해 눈물을 머금고 따라서던 중대 동무들, 딸의 귀가전보를 받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을 고향집의 부모, 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 그들이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를 안다면 얼마나 놀라고 기막혀 할것인가.

한순간, 강물이 더 불기 전에 헤엄을 쳐 건너갈가 하는 의욕이 뇌리를 쳤다. 그에게는 그럴만한 능력도, 용기도 있었다. 그는 중대 도하훈련때면 기재없이 맨 앞장에서 넓은 강을 헤엄쳐건느군 했었다. 물론 그 도하훈련을 홍수진 강에서 한것은 아니였다. 류속도 지금처럼 거센 곳이 아니였다.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헤엄친다면 이 강을 못건널것이 없다. 여기는 강중심인만큼 저쪽 기슭까지는 백삼사십미터쯤일것이다.

그러나 그는 저만 살겠다고 그렇게 행동할수는 없었다. 낮을 익힌지 이제 고작 한시간나마 되는 사람들이지만 어머니, 언니, 동생들같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른다고, 뒤편으로 되라고 내버려둘수 있겠는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 나는 어제까지 군대에서 그렇게 교양 받았고 또 그렇게 대원들을 교양했다. 나는 조선 인민군 중대장이었다. 중대를 책임지고 대원들의 운명을 책임진 지휘관이였다. 그때처럼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다잡으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비판하지 미십시오. 신심을 잃지 맙시다. 누구나 다 보아왔겠지만 이렇게 무더기비가 쏟아지면 우리 나라 어디서나 당조직들과 인민정권기관, 보안기관이 있을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기관기업소, 협동농장들을 발동시켜 순찰을 강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도 주둔지역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지켜 동원되곤 하였습시다.

지금 저쪽 기슭에서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있을겁니다.》

라연심이 잠시 숨을 돌리는데 누군가 호응하는 말을 했다.

《맞아요. 우리 김근정보안원은 날씨가 조금만 나빠져도 이 강변에 나와 살다싶이 해요. 만약을 생각해서 고무배까지 갖춰놓았어요.》

강건너 마을에 산다는, 아까 자기네 보안원을 자랑하던 그 중년부인이였다.

라연심은 그가 고맙았다. 이 녀인에게 그런 믿음을 준 그 보안원이 또한 고맙기 그지없었다.

라연심은 계속했다.

《우리모두 꼭 구원된다는 신심을 가지고 그 누구도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더 굳게 뭉쳐섭시다.》

그는 강물이 계속 불어나 적재함을 넘어설 정도에 이르면 동발을 비끄러매는데 쓰던 바줄로 일행을 쇠란간에 동여맬 작정을 했다.

그는 전지불을 적재함밖으로 비쳐 그사이 수위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를 살펴보았다.

물갈기가 적재함 중간부분을 치고있었다.

라연심은 전지불을 강건너쪽에 대고 깜빡깜빡 구조신호를 련속 보내었다. 그러면서 웅답불빛이 오지 않는가를 눈밝혀 살폈다.

여전히 불빛 한점 보이지 않았다.

라연심의 가슴속에 불안과 초조감은 더 짙어갔다. 우리가 여기서 조난된것을 누구도 모를수 있다. 강기슭순찰이 진행되였다 해도 우리가 탄 차가 이 강에 들어 서서 전진하다가 발동이 꺼지던 그때에 순찰하던 그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면 모를수도 있는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있는 이 불빛신호도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이 짙그리 차단해버릴수 있다. 어떻게든 대안에 여기 형편이 알려져야 할텐데...

그는 커누선수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커누선수동무. 이름이 뭐예요?》

《권혜정.》

《혜정동무, 혜음을 잘 쳐요?》

그는 큰 기대를 품고 혜정에게 물었다. 커누는 물에서 하는 체육종목이니 그가 수영선수는 아니라고 해도 혜엄치는것을 배우고 숙련했을것이다. 그가 이 강을 혜엄쳐건너가 구원을 요청할수 있지 않을까.

《좀 치긴 해요.》

대답하는 그 어조에는 자신감이 없어하는것이 대뜸 알렸다. 그가 라연심이 묻는 의도를 즉시 알아차린상싶었다.

《이 강을 혜엄쳐 건널 자신이 없어요?》

《...》

그가 대답을 못하자 라연심은 속이 울끈해났다. 체육선수라는게 담이 그렇게 약해서야 어떻게 우승자가 되겠는가.

라연심의 노염은 인차 풀리였다.

《군관언니, 제가 건너보겠어요.》

권혜정이 이렇게 나왔기때문이었다.

라연심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권혜정이 자신은 없으면서도 동행하던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물에 뛰어들 결심을 한것이 고맙고 대견했다.

《안되겠어. 강물이 너무 사나와서.》

그는 이렇게 커누선수를 저지시키고나서 다시 강건너쪽으로 눈길을 주며 생각했다.

내가 강물에 뛰어들어야 한다. 떠내려오는 나무에 얻어맞고 굴러오는 돌에 치운다 해도 나는 기어이 기슭에 가닿아야 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살릴수 있다. 그런데 내가 여기를 뜬 다음 강물이 더 불어나 적재함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되면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누가 이 사람들을 지휘해서 끝까지 견뎌내게 할수 있을까... 생사경각의 시각에 자리를 뜨는것이 옳은 처사이겠는가?...

라연심은 도리를 저었다.

저쪽에 알릴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자. 불빛은 세찬 비발이 차단해버릴수 있어도 소리는 비발사이로 울려갈수도 있을것이다. 목소리를 합쳐 목청껏 구원신호를 보내보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바루 있다는것을, 우리가 살아있다는것을 소리쳐 알립니다. 내 구령에 맞춰 목청껏 소리를 쳐야 합니다.》

라연심은 목청을 가다듬어 선창을 했다.

《아-》

일행이 일시에 따라 소리쳤다.

《아-아-아-》

《아-아-》

성대가 갈릴 때까지 반복하여 웨치고 또 웨치였다.

얼마후 저쪽 기슭에 구름에 싸인 달과 같은 희여스럼한 두개의 등근것이 나타나 꺾꺾꺾꺾 화답신호를 보내왔다.

라연심은 그것이 승용차나 자동차의 전조등이라는것, 그쪽에서 우리의 고함소리를 알아들었다는것, 곧 구원해준다는 대답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눈물이 콧 치솟았다. 동시에 온 몸에 맥이 탁 풀리었다.

문득 그는 운전사생각을 했다. 그가 아직도 적재함위에 오르지 않았다는 룩감이 들어 《운전사동지》하고 다급히 찾았다.

대답이 없다.

(?)

라연심은 전지불문을 기관실쪽으로 돌렸다. 기관부는 이미 사품쳐흐르는 물속에 잠겨 보이지도 않았다.

가슴이 섬찝해났다.

어떻게 되였는가?

그는 운전칸천정을 광광 두드렸다.

기척이 없다.

그는 서둘러 강아래쪽으로 향해진 운전칸 왼쪽 문을 내려다보았다.

운전칸문은 한껏 열려진채로인데 운전칸으로 통과한 탕수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고있었다.

혹시 하는 불길한 예감에 라연심은 무작정 적재함모서리를 잡고 강물속에 몸을 잠그었다.

다급히 커누선수처녀와 성천녀인이 그의 팔을 잡아주었다.

이때였다. 운전칸에서 운전사가 탕수와 싸우면서 가가스로 밖으로 나오고있었다. 그새 무엇을 했는지 운전칸문을 거머잡은 손등에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운전사는 침통한 낯빛으로 라연심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라연심은 인차 깨도가 되였다.

운전사는 밀려드는 물살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운전실문을 열어놓고 고정시키느라 적재함위로 오르지 못한것이다. 눈물겨웠다. 그런다고 차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만무하였다.

라연심은 그가 왜 적재함으로 오르지 못하고 혼자서 문을 열어제끼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 마음이 이해되였다. 불안간 알지 못할 분한 생각이 치밀었다.

《...지금껏 <무던이운전사>로 불리우던 사람이 고작 그게 다예요? 남자가 그렇게 웅졸해서야 되겠어요... 자, 어서 오르세요. 저쪽 대안과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라연심이 재촉했다.

《!》

운전사의 눈에는 물기가 어리었다.

라연심이 그의 팔을 잡아끌었다...

4

강대안에 여러대의 자동차들과 승용차들이 횡대로 서서 전조등을 이쪽으로 비치고있었다.

비발도 가늘어져 그 물줄기가 물에 잠겨있는 자동차 적재함위에 한덩어리로 뭉쳐있는 사람들을 드러내보였다.

이어 《배가 간다-》하고 웨치는 소리가 소연한 물소리를 누르며 날아왔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불줄기가 뻗어온 수면쪽을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러나 범람한 강수면을 두드리는 비발뿐 배는 보이지 않았다.

이때였다. 뚝박에도 강우쪽에서 중심물굽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온 고무배가 물에 거의 다 잠긴 적재함을 세차게 들이받았다. 그 서슬에 튕겨난 중년의 사나이가 적재함바닥에 나떨어져 뒹굴었다.

《아, 우리 보안원이예요!》

중년부인이 내지른 환성이였다.

보안원의 이마와 드러난 어깨에서 피가 흐르고있었다. 그 상처는 보안원이 어떤 희생적인 각오와 간고분투로 여기에 와닿았는가를 말해주고있었다.

모두가 뜨거운 눈물을 머금었다. 고마움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였다. 비상한 정황에서의 느낌은 강렬한 법이다. 이들은 지금 우리 당, 우리 제도의 보살핌과 사랑을 뼈와 살로 느끼며 새기는 것이였다.

보안원은 재빠른 숨씨로 고무배 고정바줄을 적재함걸쇠에 비끼려매고나서 자기 상처는 아랑곳없이 사람들을 일별하며 고무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구원됩니다. 저 기슭에 군당과 인민위원회, 보안서 책임일꾼들이 나와 이 구조전투를 지휘하고있습니다. 맥을 놓지 말고 얼마간만 더 견뎌냅시다.》

그는 고무배에 매고온 굵은 바줄을 풀어 운전사에게 내밀며 지시했다.

《이걸 쇠란간 옷가름대에 풀리지 않게 든든히 매오. 저쪽 기슭과 연결하는 바줄이요.》

운전사가 바줄을 받아 쇠란간에 매자 그는 다른 바줄끝을 내주었다.

《이 바줄은 고무배가 여기를 떠나면 놔주었다가 내가 저쪽에서 신호하면 여럿이 당기시오. 고무배를 당기는 바줄이요.》

보안원이 강건너를 향해 두팔을 머리위로 들어 신호를 보내자 그쪽에서 바줄끝을 맨 자동차를 후진시켜 당기였다.

바줄이 수면위로 떠올라 뽕뽕하게 되자 보안원이 거기에 고무배 줄고리를 걸어 벗겨지지 않게 자물쇠를 채웠다.

보안원이 뭉쳐있는 사람들쪽으로 눈길을 주며 지시했다.

《한번에 두명씩 타겠습니다. 어서 오르시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빨리!》 보안원의 재촉.

그래도 타려는 사람이 없었다.

사경에 처한 사람들이, 공포감에 전율하던 이들이 지금은 자기아닌 남에게 구원의 배를 양보

하는것이였다.

《분초가 새롭소. 자, 너희 학생들부터 타거라.》

보안원이 사정없이 내려치는 물살에 고무배가 뒤집히지 않게 옷쪽 현측을 힘주어 누르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갈려올랐다.

《아니, 할머니들부터 태우라요.》

한두살우인듯 한 소년의 말이였다.

《에끼 이 녀석, 무슨 버릇없는 소릴 해.》

체격이 큰 룡순 녀인이 꾸짖었다.

운전사가 소년들을 하나씩 끌어당겨 고무배우에 강제로 태웠다.

《운전사, 배 탈 순서를 미리 짜놓고 기다리오.》

보안원이 두 소년을 태운 배를 밀고 떠나며 남긴 말이였다.

운전사 유영혼은 비로소 자기 할바를 자각한듯 사람들을 여겨보며 순서를 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차례는 나이 많은 두 어머니. 그 다음은.》

《아니, 난 맨 마감에 타겠네.》

체격 큰 룡순 녀인이 운전사의 말을 중동무이 시키였다.

《제 자식들보다 먼저 살겠다고 할 에미가 어디 있어. 난 살만큼 살아 봤어, 그럼.》

《그렇잖구.》

같은 나이의 녀인의 호응이였다.

《저 제대군관처녀와 커누선수부터 태우라구. 나라의 보배들인데. 그럼.》

《그래야지.》

룡순 녀인 둘이 이렇게 보조를 맞추었다.

《!...》

운전사는 코마루가 시큰해나고 목이 메여와 인차 말을 이을수가 없어 했다.

그의 눈길은 제대군관처녀에게로 갔다.

《그건 안됩니다. 저와 이 선수는 고무배를 안타고도 헤엄쳐 건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넘려는 마십시오.》

라연심은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느 시각에 지금보다도 더 엄청난 큰물이 밀려내려올지, 지금 지지하고있는 이 자동차마저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 위급한 정황에서도 구원받을 순서를 앞다투어 남에게 넘기려는 사람들! 아, 이런 아름다운,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 제도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키워주셨다. 이런 사람들을 한명도 잃어서는 안된다. 절대로!

그는 자기가 나서서 배에 오를 순서를 정해야겠다고 작정했다.

《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명령을 받아 무조건 일화

집행하는데 습관되고 정황을 판단하여 옳은 명령을 내리는데 습관된 지휘관이였습니다. 배타는 순서를 제가 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라연심이 이미 선포한것처럼 자신의 순서는 맨마감으로 기정사실화할것이 뻔한것이여서 호응하지 않는상심었다.

라연심은 시간적여유를 두지 않고 계속했다.

《반대가 없구만요. 그럼 이제 제가 정하는 순서를 명령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명령에는 알았습시다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다음 순서는 두 어머니, 그 다음은.》

그는 순서를 정해나갔다.

구조받아야 할 인원은 운전사까지 합하여 열셋이였다.

여섯번째 순서로 커누선수와 운전사를 꼽았다.

마지막 남은 한명은 라연심 자신이였다.

라연심이 서두에 명령으로 받아들일것을 그루박아 요구하여서인지, 정한 순서가 로약자를 고려한 합당한것이여서인지 녀성들속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운전사한테서 의견이 제기되였다.

《중대장, 마감 순서는 꼭 내가 돼야 하요. 이런 위기를 조성한것이 난데 내가 얼마간이라도 죄를 덜도록 해주시오.》

물기를 머금은 그의 말은 의견이라기보다 애원이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운전사가 우리를 위해 주다가 이렇게 된것인데 죄는 무슨 죄겠어요. <명령>은 한번 내리면 흥정할수 없답니다.》

라연심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의 눈에 어린 미소는 누구도 볼수 없었지만 누구나 느끼였다.

《성천아주머니. 운전사에게 주려다 못준 사과가 아직 남았소?》

있으면 지금 한알 권하지 그럼.》

체격이 큰 룡순녀인이 한 소리다.

《있어요. 여기-》

성천녀인은 려행가방을 앞으로 당겨놓으며 대답했다.

《그럼 한알만 주. 그렇지 않아도 속이 타들던 중인데...》

운전사가 이렇게 선선히 응대하자 성천녀인이 사과구력을 꺼내들며 약의없이 시까슬렀다.

《받을바에야 구력채로 받지 쪼쪼하게 한알은 무슨 한알이예요》

그 소리에 누군가가 호호 웃었다. 몇시간만에 처음 터친 웃음소리였다. 위험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들은 배심이 든든해서 굳게 뭉쳐있었다. ... 이들이 모두 구원된것은 날이 희뵤히 밝을무렵이였다.

괴테와 베토벤

피테와 베토벤은 보헤미아의 데플리츠온천에서 처음으로 즐거운 상봉을 하였다.

피테는 해마다 여름철이 오면 이 온천을 즐겨 찾았다.

한편 베토벤은 오래전부터 피테를 존경하여 왔던것만큼 그와의 상봉을 매우 기뻐하였다.

그때 피테는 70살 가까운 로인이었고 베토벤은 40살이 넘는 중년이였다.

피테가 처음으로 만나는 베토벤은 작달막한 키에 짝 벌어진 체격이였다. 잘 생겼다고는 할수 없는 얼굴에 표정은 항상 우울하고 무뚝뚝하였다. 귀까지 멀어 끊임없이 불행을 겪고있던 베토벤은 기뻐하는 일에 익숙되지 못했던것이다.

그러나 엄격하였던 피테가 일생을 통하여 칭찬의 말을 보낸 사람은 아마 베토벤 한사람뿐일것이다.

피테는 종종 베토벤이 묵고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였다.

어느날이였다. 피테는 베토벤에게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길을 걷고있었다.

얼마후 피테는 뒤를 돌아보다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낯모르는 젊은이들 열댓명이 뒤를 바짝 따르고있었던것이다.

《여보게, 저 젊은이들이 왜 우리뒤를 따라오나?》

피테는 베토벤에게 귀속말로 묻다가 자신의 실책을 느끼고 인차 중단하였다.

이때 촉기빠른 베토벤은 뒤를 홑금 돌아보더니 《선생님,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문학이야기를 하면 저 젊은이들이 못알아듣지 않습니까.》하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테는 베토벤의 영특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번에는 베토벤이 피테에게 음악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베토벤은 처음에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점점 걸음이 빨라지더니 뉘다 뛰기 시작하였다. 피테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이야기의 내용이 박자가 빨라지는 음악장면인가봐....)

두 친구는 서로 매우 존경하고있었지만 성격은 판이했다.

어느날 피테와 베토벤이 거리를 산책하고있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왕족들의 행렬이 오고있었다.

그것을 본 피테는 《왕족들이 행차하니 길을 비켜줍시다.》 하고 말하면서 길가덕으로 몸을 비켰다. 그러나 베토벤은 모자를 눌러쓰고 뒤집을 진채 길 한복판을 유유히 걸어갔다.

왕족들이 점점 가까왔다. 왕후는 베토벤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였다.

루돌프대공은 모자를 벗고 베토벤에게 친숙한 인사를 보냈다. 베토벤은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대로 길을 걸었다.

한편 길가로 피해났던 피테는 왕족일행이 다가오자 모자를 벗어 손에 쥐고 공손히 인사하였다.

베토벤은 그러는 피테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왕족일행이 지나간 후 베토벤은 피테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래동안 당신을 존경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신은 왕족들에게 지나치게 공손합니다. 예술가는 왕족들보다 더 높은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같은 예술가가 어찌 이처럼 비굴합니까.》

유모아

저세상

신부가 《이 세상에서 소를 죽이면 저세상에 가서 소가 되고 돼지를 죽이면 돼지가 되고 새를 잡고 벌레를 해친다면 저세상에 가 새나 벌레가 되고마느니라...》 라고 설교하였다.

듣던 사람이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것이 제

일 좋겠군요》 라고 말하였다.

신부는 《그게 무슨 소리요?》 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래야 저 세상에 가서도 사람이 되지 않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경구, 격언

예술, 인생

· 노래와 함께 인생로를 걸어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망하지 않을것이다.

· 독자는 문학을 위한 최고의 심판이며 최고의 법전이다.

· 대중은 글쓰지 않는 평론가이다.

· 리성을 잃은 상상력은 피물을 낳는다. 리성과 결합된 상상력은 예술의 어머니이며 기적의 원천이다.

· 시는 온갖 재능의 내적인 불이다.

조선사람의 성과 본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고유한 성과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여왔다.

《삼국사기》를 비롯한 옛책들을 보면 고대와 삼국시기에는 주로 출신지방(부락 또는 고을)이름을 사람이름앞에 붙여 피줄 또는 지역적인 소속을 밝히었다.

한편 삼국시기부터 한자성을 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왕실이나 귀족들이 쓴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B.C. 277년에 우리 나라의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를 세운 주몽(동명성왕)의 성은 《고》가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와서는 그 범위가 넓어져 평민들에게도 전반적으로 성이 쓰이게 되었다.

옛날에는 인민들을 통털어 말할 때 《백성》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지 성은 100개가 아니라 수백개에 달

하였다.

《도곡총서》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때의 성은 298개,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근 500개에 달하였다.

가장 흔한 성으로는 김, 리, 박, 정, 윤, 최, 류, 홍, 신, 권, 조, 한 등 12개이며 두자로 된 성으로 남궁, 독고, 동방, 령고, 부여, 사공, 사마, 서문, 석말, 선우, 황보 등이 있다.

점차 인구수가 늘어나고 여러 고장으로 옮겨가 살면서 자기 조상의 본고장을 밝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여기로부터 《본》이 생겨났다. 즉 김해김가, 전주리가, 밀양박가, 남양홍가, 풍산홍가등으로 혈통관계를 나누었다.

그러나 대개는 본이 10개정도이며 110여개의 성은 본이 하나이고 본이 없거나 명확치 않은것도 많다.